



태권도지 창간

전세계 태권도인의 길잡이인 태권도지를 발간한지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은 1971년 1월 17일 대한태권도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태권도지의 발간, 태권도의 국기화, 장학제도의 실시, 중앙도장의 건립, 예의규범의 제정, 심사제도의 단일화, 교본의 발간등 일곱가지 사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써 태권도지의 발간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권도지가 태권도인의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태권도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태권도인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태권도 기술의 이론과 실기에 대한 지도·보급으로, 질적향상과 통일된 태권도를 전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창간 1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태권도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태권도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관지로 성장하여, 태권도 발전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본인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창간호로부터 37호에 이르기까지의 태권도지에는 태권도의 10년 역사를 한눈에 알수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십년은 태권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며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60년대에는 전통적인 무예에서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닦았으며, 70년대엔 우리나라의 국기로 출발하여 세계적인 스포츠로, 80년대엔 국제스포츠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혀 나갈 것입니다.

즉, 세계 태권도대회의 개최와 세계태권도연맹(WTF)창설, 그리고 각지역 태권도 대회 개최, 국제경기연맹(GAISF)의 가입, 국제군인스포츠대회(CISM)의 개최 및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의 세계 태권도연맹공인 등, 태권도가 국제스포츠사회에서 이룩한 업적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월드게임」의 집행위원장을 본인이 맡게된 것은 태권도의 우수성이 전세계에 입증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창간호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간된 태권도지를 살펴봅니다. 거기엔, 숏한 어려운 일들과 절망적인 순간을 극복하고 신기원을

10주년에 즈음하여

국 기 원 원장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金 雲 龍

이룩했을 때의, 영광과 감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지의 그 기록들이 난관을 돌파할 용기와 힘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1000만 태권도가족 여러분도 본인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태권도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태권도는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으며, 최종적인 몇 가지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태권도인의 단결과 화합심만 가지면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제의 하나는 올림픽 진출이며 다른 하나는 영원한 종주국으로써의 위치 확립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면으로, 본인은 태권도지를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권도 이론과 기술을 집대성한 교본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것도 창간 10주년을 맞는 태권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앞으로 태권도지가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만족하지 말고 모든 태권도가족과, 전세계 인류가 보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자랑스럽고 신뢰받는 전문지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태권도인 여러분! 태권도지는 태권도인 모두의 것입니다.

태권도가족 여러분은 태권도지를 보는 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드는 책이란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시고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태권도지는 더욱 충실해질 것이며, 태권도지의 발전이 곧 태권도 발전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 동안 태권도지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든 여건에서나마 분발하여 태권도지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길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태권도지는 태권도 선수들의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소식을 여러분께 드릴 것이며, 태권도의 상징 국기원을 찾는 수만명의 해외 수련생들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태권도지가 더욱 충실한 전문지로 태권도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신뢰와 기대를 보내는 바입니다.



祝 辭

跆拳道會誌發刊十周年을 맞이하여 全國의 跆拳道人, 「스포오즈맨」, 體育人과 함께 創刊 10돌을 祝賀하게 되니 創刊號에 寄稿한 사람으로서 더욱 感懷가 새롭다. 이 기쁨과 感激을 跆拳道發展을 위하여 投稿해주시는 분 보다도 직접 會誌發刊에 수고하신분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滿喫하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跆拳道誌가 創刊以來 四季節마다 끊임없이 繼續된 것은 끈기와 忍耐의 結晶이었으며 金雲龍 會長의 강인한 意志와 編輯委員들의 精神의 團結에 의한 것임을 높이 贊揚하며, 그 勞苦에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오늘날 韓國의 跆拳道가 新羅時代로 부터 國技로서 發展하여 태권, 手搏, 托肩, 跆拳道에 이르기까지 歷史的, 時代的, 變遷과 함께 우리民族의 精神을 강인하게 繼承하게 하였고 또 永遠히 그 脈을 이어갈 것임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긍지와 自信을 심어 주고 있다.

물론 外國에서도 권법, 空手, 合氣道등이 있어 保健運動으로, 護身術로서 오랜 歷史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으나 이와같은 武術은 다만 그나라의 武術로서 現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國技인 跆拳道는 心身修練을 통하여 人類의 平和와 世界民族間의 相互理解를 促成케 하고 共存共榮의 精神을 世界 靑少年들에게 뿌리깊게 심어 줌으로써 健全한 人間形成의 哲學을 實踐으로 이끄는 根本의 道라 하겠다.

오늘날 跆拳道는 花郎五戒의 哲學을 世界民族혼에 불어넣는 實踐運動으로, 現在世界各國道場에서 자랑스러운 우리國旗를 게양하고 우리말로 指導하고 있음도 國威宣揚은 勿論이며 우리民族의 자랑이요! 榮光이요! 國家發展을 위한 장래가 約束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우리 跆拳道指導者들의 偉대한 勞力은 跆拳道使徒의 責任을 다하고 있어 이제 跆拳道는 世界의 跆拳道로 完全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現實에서 跆拳道誌의 今後의 使命은 實로 막중하게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첫째로, 國內 스포오즈誌로서 體育文化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內容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創意力을 동원한 研究를 통하여 指導方法의 改善을 追求하는 指針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海外 跆拳道師範을 통하여 자국의 消息을 받아 發展하는 樣相을 알리고 또 지도자들의 要望·協助事項을 協會를 통하여 政府에 反映하는 통신 교량역을 맡아야 하겠다.

셋째로, 國內 協議會를 가져 跆拳道發展을 위하여 國技院으로 하여금 새로운 計劃을 樹立하도록

특하는 일이다.

죽 날로 붙어가는 跆拳道인구를 이끄는 계몽지가 됨으로써—인식·보급·발전—의 목적 수행에 중추역할을 하여야겠다. 또한 국제적인 안목으로 볼때 세계 중주국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고 全世界의 跆拳道 가족을 선도하기 위해서 國際의 전문지를 發刊할 수 있도록 文教部·外務部·文化公報部의 적극적인 지원을 절실하게 促求한다. 이제 十年의 연륜을 가진 跆拳道誌는 그간의 경험을 발판으로 굳건히 섰으니 成長期의 문턱에서 밝게 펼쳐진 可能性을 向하여 힘차게 도전하여 모든이에게 날로 사랑받는 전문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에 종사해온 여러분의 업적을 眞心으로 치하하고 건투를 빌고자 한다.

(說) (詩)

고구려의 응지, 상무정신
신라의얼, 화랑정신
선조의 뜻 태권도라
이어받은 얼과기슬
정성으로 갈고닦아
온누리에 펼쳐보세
태양처럼 빛내보세



—筆者紹介— 體育學博士 白 龍 基

- 1912年 11月 19日生
1934~1981敎職生活 現 中央大學校, 延世大學校, 東國大學校, 漢陽大學校 大學院 및 學部講師.
跆拳道와의 關係
1947年 文教部 體育課長 當時 中高等學校 敎科課程에 跆拳道(韓國最初)採擇, 編入, 全國體育講習會 開催
1948年 延世大學에서 跆拳道部創設 金雲龍(現會長)在學時
1953年 慶北大學校에서 跆拳道 啓蒙大會 開催 (當時 洪鍾秀師範)
1960年 中央大學校 跆拳道部 創設(尹成重 師範)
1963年 中央廳廣場에서 示範大會(中大跆拳道)
1963年 大韓體育會會長 (當時 이호)에게 跆拳道加盟을 力說, 加盟에 協助
1970年 各級學校 體育課程에 跆拳道를 正規課程으로 文教部 審議會에서 決定主張 金溶采 會長參席 全國에 示範學校 決定에 協助
1972年 跆拳道 創刊號에 跆拳道의 科學的인 研究 기고
1976年 美國 센트랄 미시간大學에 跆拳道部 創設
現 跆拳道 지도자敎育 초빙강사

1980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1980년도 대의원 정기총회가 '81년 1월 15일 11시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백여명의 태권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 17명중 불참자 2人を 제외한 15명의 대의원들은 김운용회장의 주재하에 새시대를 맞은 태권도의 일대응비를 위하여 진지한 토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순배(중앙), 박해만(중앙), 이학선(중앙), 전용하(서울), 김일권(부산), 윤치영(경기), 김성태(강원), 장한철(전북), 박봉춘(전남), 오광웅(경북), 이도재(경남), 고익조(제주), 주상일(국교연맹), 노상석(중교연맹), 노희덕(대학연맹)

이날 회의는 김운용 태권도 협회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으며 황춘성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후에 김운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시대가 펼쳐지는 금년에

우리 태권도인은 가일층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후배육성과 국가 태권도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지난 70년대가 태권도 세계화에의 進入年代라고 하면 80년대는 우리가 세계정상에 서서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I.O.C 8개 승인종목에 태권도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박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일대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O.C 규정에는 유사종목을 추가 승인치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라테」나 「콩후」등이 승인을 추진 한다면 I.O.C 부칙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큰 행사로는 미국의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월드게임」이 있는 데 거기에 태권도가 14개 종목, 3개 시범종목 가운데 하나로 참가하여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태권도의 범 세계적 확산에 발 맞

주어서, 이제 우리는 태권도의 정신철학 정립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 지도자교육에도 이론·정신적 바탕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승단심사제도의 합리화등 합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태권도인이 합심단결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구시대 의 폐단인 상호비방과 질시풍조를 일소하고 이해와 협조로 새출발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강원식 전무이사가 전년도 회의록과 그 결과처리를 낭독했는데 그내용은 심사업무가 '80년 3월 1일자로 국기원으로 이관되었고, 여성태권도 연맹승인, 태권도인의 밤 부활, 선수강화위원회의 신설 및 품종의 대형화 등이며, 이런 것들은 전년도 동의안 및 건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로써 대부분 대의원들의 제안대로 처리되었다.

회의록 낭독에 이어 대한 체육회 지침에 따른 임원개선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정부의 체육계 정화방침에 따라 집행부의 일괄 사표후에 1980년 12월 19일부로 신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며 1982년 말까지의 향후 2년간 협회를 이끌 임원은 회장 김운용, 부회장 정호영, 한봉수, 이사 이현우, 김신정, 김영원, 김중수, 박영훈, 권영찬, 고희환, 박승복, 안현태, 강원식, 감사 인창근, 마의웅씨등 15명이다.

다음에는 인창근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감사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1980회계년도의 지출 예산 집행액 148백만원이 총지출 예산액 168백만원보다 파소하게 집행된 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예산안의 심의, 확정을 요추했으며 협회운영상 필수적으로 요망되는 관계규정의 제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 의 기능을 기획, 재무, 기술, 홍보등으로 전문화해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추구했으며 협회의 회계년도를 정부회계년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확정하도록 지도했다.

회의는 감사보고에 이어 토의 사항으로 넘어

갔다. 토의 사항은 제일 먼저 198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순서였으나 추상일 대의원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관한 심의에서 추상일 대의원이 국민학교 개인 선수권대회에 대해 질문하자 강원식 전무이사는 답변에서 국민학교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이지만 협회에서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판옹대의원의 경기력 향상에 대비한 연구비 책정을 과감하게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김운용회장은 국기원의 연구위원회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익조 대의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 다음은 규약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개정된 대한 체육회 경기단체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정수가 13인 이내로, 부회장 약간인으로 감축되고, 대의원은 각기·도지부, 전국규모 연맹체 1인과 중앙대의원 약간인으로 확정 되었다.

또한, 대의원 자격은 시·도지부의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중에서 1명(전무이사 제외)과 각급 연맹체의 회장·부회장중에서 1명으로 바뀌었으며 대의원이 부득이 불참할 경우는 전무이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한 체육회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김운용회장의 설명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이어서 건의 및 시정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노상석 대의원이 분과위원회가 합리적이며 의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건의하면서 장학금을 예산상 편성이 아닌 실제로 집행하도록 강조하며 증액도 아울러 요청하고 견고한 경기용구의 연구개발로 사고 예방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바랐다.

이에 김운용회장은 각자의 적극적 참여와 장학금 지급에서 연금 지급문제에 까지 언급한 후, 연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판옹 대의원은 경상북도 일선사범의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첫째, 과외 학습허가서 받

급문제의 정부차원에서의 해결 둘째, 선수양성에 관한문제 셋째, 급증발행문제를 국기원명의 혹은 지방장명으로 조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박봉춘 대의원은 전국규모대회에 중임심판 파견요구 및 지도자 강습과 심판교육을 지방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윤치영 대의원은 대학선수증가와 실업팀 신설 및 태권도 대학전립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도재 대의원은 수강료의 현실화 및 전국체전에 종전대로 지방심판이 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끝으로 이학선 대의원은 여성 태권도연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여성연맹의 발전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건설적인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실무자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반영하도록 하자면서 약 2시간에 걸친 대의원 총회를 끝마쳤다.

열면 토의가 끝난 후 태권도 가족들은 한 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81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981년 도 사업 계획(안)

대한태권도협회

월	일	사	업	명	장	소	비고
'81	6~7	1981년도 심판자격증 소지자 보수교육(2, 3급)			국	기	원
3	12~1	1981년도 한국 대표선수 선발대회			"		
	27	1981년도 한국 대표선수 평가전			"		
4	4~11	1981년도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대회			"		
	22~24	1981년도 심판강습회 겸 심판자격 시험 (3급)			"		
5	3일간	제10회 전국 소년체육 대회			광	주	
	21~23	제16회 대통령기 경팔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국	기	원
6	11~13	대통령 당선 축하기념 OB 팀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		
7		제 1 회 월드게임			미	국	
9	18~19	제12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국내, 외인) 개인선수권 대회			국	기	원
10	4일간	제62회 전국체육 대회			"		
	4일간	제 5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멕시코		
11	6~7	1981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국	기	원

2년간 자 시, 도별 심판강습회 개최 및 각급 심판자격시험 실시



국기원 및 대한 태권도협회 합동이사회

1981년 1월 10일 오후 1시 「코리아나 호텔」 22층 「프린스룸」에서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合同理事會가 열렸다.

이날 김운용 원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강원식 부원장이 사회를 담당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흥환, 박영훈, 김영원, 김영환, 김중수, 김

중식, 마의웅, 박승복, 봉두원, 안현태, 이상빈, 이현우, 인창근, 장익룡, 한봉수, 한승조, 홍문식(가, 나, 다 順)

한편, 이날 심의 안건은 다음의 5개항이었다.

1. 198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2.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3. 정관개정안 승인
4. 사무국 처무규정 심의
5. 기타사항

오찬회를 겸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태권도의 양대 기관인 국기원과 태권도협회의 임원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면 인사를 나누고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태권도의 당면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 했다.

이날 강원식 부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해 총 77,962명의 품 및 단증 발급이 있었고 232명이 지도자 교육에 참여했으며 해외인사 101명이 국기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운용 원장은 보충 설명에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있었던 국제경기연맹 가입, 군인체육대



회 개최, I.O.C공식승인등의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기로서, 세계 스포츠로서, 국위 선양의 기수로서, 호국의 기수로서의 태권도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국기원 정관 개정안이 전원 동의하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국기원 사무국 처무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취합해서 원장의 재가를 받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 태권도협회의 1981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각 시도 지부 및 연맹 육성 강화, 국가 대표 선수 훈련강화, 국제대회 파견, 기술 개발등이고 제 1회 월드컵게임이 7월하순에 미국에서 제 5회 세계 선수권대회가 10월에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운용 국기원 원장은 참석 이사들의 다방면에 걸친 적극적 지원과 특히 재정분야의 후원에 대해 당부했으며 이사직에 취임한 임원들은 이에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 2시간반에 걸친 이사회는 화기의 웃음으로 마무리되었다.

1981년 도 사 업 계 획(5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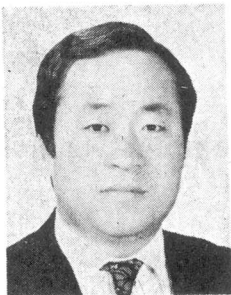
국기원

월	일	사	업	명	장	소
5	17	제137회 전국 승품 심사 대회			국	기 원
6	31	제138회 전국 승품 심사 대회			"	
	14	제139회 전국 승품 심사 대회			"	
	20	제100회 전국 승단 심사 대회 (5, 6, 7단)			"	
	21	제100회 중앙 승단 심사 대회 (1~4단)			"	
	28	제140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7	12	제141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국	기 원
	23~8/1	제30기 사범 지도자 교육			"	
	26	제142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8	6~7	제 1 회 지도자 보수 교육			"	
	8	제101회 전국 승단 심사 대회 (5, 6단)			"	
	9	제143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10~11	제 2 회 지도자 보수 교육			"	
	13~14	제 3 회 지도자 보수 교육			"	
	16	제101회 중앙 승단 심사 대회 (1~4단)			"	
	30	제144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9	13	제145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27	제146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10	11	제147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17	제102회 전국 승단 심사 대회 (5, 6단)			"	
	18	제102회 중앙 심사 대회 (1~4단)			"	
	25	제148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11	8	제149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22	제150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12	5	제103회 전국 승단 심사 대회 (5, 6, 7단)			"	
	6	제151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10~19	제31기 사범 지도자 교육			"	
	13	제103회 중앙 승단 심사 대회			"	
	20	제152회 중앙 승품 심사 대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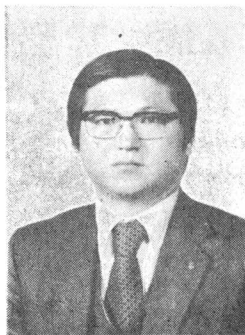
태권도계 인사 정계진출

새 時代의 장이 열리는 81년과 함께 跆拳道界人士의 國會進出을 230萬 跆拳道人들은 眞心으로 祝賀한다. 特히 國技跆拳道가 世界무대로 進出하여 民間外交의 일익을 담당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跆拳道發展을 爲해서도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수 있겠다. 이번 選舉에서 봉두완의원은 전국 제 1위득표를 마크하였고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1위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에 國會에 進出하는 議員의 進出을 빌면서 跆拳道 發展을 爲하여 끊임없이 努力해 줄것을 당부드린다.



김현욱의원



김한선의원



봉두완의원



조기상의원

人士〈가나다 順〉

- | | | | | |
|---|---|---|----|--|
| 김 | 한 | 선 | 의원 | 〈국민당, 전국구. 現, 中·高 跆拳道聯盟 會長〉 |
| 김 | 현 | 욱 | " | 〈민정당, 충남 서산, 당진지구. 前 大學 跆拳道聯盟 副會長〉 |
| 봉 | 두 | 완 | " | 〈민정당, 서울 마포, 용산지구. 國技院理事 서울시 跆拳道 協會長〉 |
| 조 | 기 | 상 | " | 〈민정당, 전남 영광, 함평 장성 지구 前 中·高 跆拳道聯盟會長〉 |

1981년도 기 술 심 의 회

기술심의회

의 장 박 해 만
부의장 김 용 서
강 정 구

연구위원회

위 원 장 : 정 찬 모

부위원장 : 안 해 옥 조 근 중

위 원 : 우영일 박창덕 정찬성 김호성 주상일 이종찬 한상윤 이봉 이황구 주신규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이 규 정

부위원장 : 고 국 환 임 춘 길

위 원 : 나용경 김성찬 서광립 신영억 한상국

해의위원회

위 원 장 : 이 규 석

부위원장 : 강 선 장 김 용 길

위 원 : 정경덕 김광호 김영삼 한광열 문선호

시범위원회

위 원 장 : 김 영 작

부위원장 : 이 규 현 이 규 형

위 원 : 유승렬 이호영 심명구 이종관 구정희

1981년도 전문위원회 임원명단

의 장: 김 순 배

부 의 장: 권 경 옥 박 명 수

경기분과위원회

위 원 장: 최 청 대

부위원장: 김 석 만 고 철 성

위 원: 최연수 나규성 한명학 배석철 강석기 임순길 이달문 박찬수

심판분과위원회

위 원 장: 이 영 근

부위원장: 이 병 규 김 대 연

위 원: 김정인 조 동 김장인 정해주 박덕규

국제분과위원회

위 원 장: 백 운 대

부위원장: 노 춘 길 문 창 남

위 원: 이택명 이상구 조규학 박용국 유광중

선수강화분과위원회

위 원 장: 노 상 석

부위원장: 최 영 열 이 승 국

위 원: 김용휘 김인수 김철호 정만순 유형환 김찬희 송요식

상벌분과위원회

위 원 장: 안 영 택

부위원장: 최 대 응 김 중 영

위 원: 신우철 한효봉 김봉식 성진엽 조준탁 안상환

도장관리분과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재

부위원장: 김 봉 기 이 상 달

위 원: 임동범 오운석 장재우 신계식 김석중 이훈구

1981년도 국가 대표선수 선발전

1981년 3월 12일, 13일, 3월 27일과 28일의 2차에 걸친 대표 선수 선발전이 국기원에서 벌어져 각종 전국대회 입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 대표 선발전이 펼쳐졌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운용 회장은 치사를 통해 금년 미국의 「산타 클라라」에서 열리는 제 1회 「월드게임」의 중요성과 「멕시코」에서 열릴 제 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첫째, 이와 같은 국제경기를 통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태권도 종주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태권도가 무도 스포츠인 이상 정신적인 차원의 우수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 선수 각자가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짊어 진다는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런 대명제에 부합한 태권도의 사절을 뽑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 선수 전원이 선전, 분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벌어진 첫날 경기에서



79번째 「게임」인 「페더」급 한국체대의 이종호 선수가 3회전에서 공격 중 손가락의 부상으로 기권하여, 한성고 김용성 선수가 기권승을 거두었다.

제 2일째 경기는 접점 가열되어 「반탁」급 준준결승에서 국가대표를 지낸 해군의 김종기 선수가 경희대 정범수 선수에게 판정패했으며, 또 「라이트헤비」급 준준결승에서는 청주대의 임재익 선수가 한사대의 이동우 선수를 2회 2분 10초만에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통쾌한 K.O 승을 거두었다.

최종 평가전은 1차 선발전의 1,2위 입상자와 작년(1980년)도 최우수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한 1,2위자 그리고 선수 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하여 각 재급별 5명을 대상으로 「리그」전 경기를 가졌다.

3월 27일 28일 양일간 열린 최종 평가전에서는 「리그」전이 벌어져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대의 기량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의 신중한 경기운영으로 범전이 벌어지는 등 근소한 판정승이 많았다.

그러나 최종일 경기에서는 대표 탈락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선수들이 선전분투하여, 전일의 경기보다는 박진감있고 활기찬 경기가 벌어졌다

특히, 해군의 김종기 선수는 앞서의 부진을 씻고 동성고의 한홍식을 맞아, 노련한 경기운영과 다양한 공격기술을 발휘하여 낙승함으로써, 대표탈락 일보직전에 기사회생했다.

또 「웰터급」 2위 결정전에서 한국체대의 박천재는 해군의 전동근에게 K.O패 당한 충격을 씻고 「리그」전 재대결에서 육군의 이병두를 제압한 후 전동근 선수와의 재대결에서 판정승하여, 2위에 입상하는 불굴의 감투정신을 발휘했다.

81년 한국대표 선수 선발대회(1차전)

1981. 3. 12~13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고	정 호	성동상전	
		2	김	윤 환	한체대	
		3	김	준 태	동성고	
플 라 이		3	이	병 석	전남체고	
		1	윤	준 철	한체대	
		2	전	웅 환	동대문상	
반	탐	3	이	인 재	인천광성소	
		3	박	영 진	동성고	
		1	정	범 수	경희대	
페	터	2	최	승 룡	경상대	
		3	전	양 주	육군	
		3	조	병 준	명지대	
라	이 트	1	장	명 삼	동성고	
		2	김	용 성	한성고	
		3	김	효 중	경희대	
웰	터	3	이	준 결	"	
		1	박	오 성	해군	
		2	윤	오 남	조선대	
미	들	3	이	상 현	한체대	
		3	신	일 섭	명지대	
		1	전	동 근	해군	
L. 미	들	2	김	무 천	한사대	
		3	박	익 용	육군	
		3	이	병 두	"	
해	비	1	정	국 현	한체대	
		2	최	찬 용	유도대	
		3	오	일 남	한사대	
미	들	3	문	원 재	한체대	
		1	김	상 천	육군	
		2	김	병 곤	한체대	
L. 해	비	3	이	강 식	대전체고	
		3	유	호 경	유도대	
		1	하	용 성	한체대	
해	비	2	노	육 상	육군	
		3	임	재 익	청주대	
		3	김	용 운	유도대	
해	비	1	박	종 만	성균관대	
		2	최	종 남	한사대	
		3	강	승 우	경희대	
해	비	3	정	부 근	한체대	
			—이상	40명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1위자는 미국 「산타 클라라」에서 개최되는 제 1 회 월드게임에 출전하며 2위 입상자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제 5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 할 예정이다.

1차 선발전 및 최종 평가전의 경기 전적은 다음과 같다.

81년도 한국대표선수 최종평가전

(1081. 3. 27~)28

체	급	등위	성	명	소	체
핀		1	권	기 문	서울체고	
		2	이	진 우	한사대	
		3	고	정 호	성동상전	
플 라 이		1	양	기 모	한체대	
		2	전	웅 환	동대문상	
		3	안	명 일	서울체고	
반	탐	1	정	범 수	경희대	
		2	김	종 기	해군	
		3	한	홍 식	동성고	
페	터	1	이	준 결	경희대	
		2	장	명 삼	동성고	
		3	이	재 봉	한체대	
라	이 트	1	김	영 국	해군	
		2	박	오 성	"	
		3	방	만 규	서울체고	
웰	터	1	김	정 국	동아대	
		2	박	천 재	한체대	
		3	이	병 두	육군	
L. 미	들	1	오	일 남	한사대	
		2	정	국 현	한체대	
		3	최	찬 용	유도대	
미	들	1	이	동 준	청주대	
		2	김	상 천	육군	
		3	이	중 곤	동아대	
L. 해	비	1	정	찬 종	"	
		2	하	용 성	한체대	
		3	임	재 익	청주대	
해	비	1	박	종 만	성균관대	
		2	마	상 현	해군	
		3	진	중 의	유도대	
해	비		—이상	30명		



81년도 전국 종별 신인 선수권대회

(대한태권도협회) 최 청 대
(경기분과위원장)

198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기원에서 전국 종별 신인 선수권대회가 1,000여명의 남, 여 신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주일에 걸쳐 열띤 접전이 벌어졌다.

개회식인 4월 4일 김운용 회장의 의유로 강원식 전무이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김회장은 참가 선수들에게 신인 선수권대회를 통해 경기경험을 쌓고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기량을 익혀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물론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무도인으로서의 정정당당한 언행을 잃는 일이 없이 승자에게는 갈채를 보내고 패자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단결되고 화기어린 시합이 되도록 당부했다.

태권도 선수의 등용문인 신인선수권대회에 참가한 1,002명의 선수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이번대회의 경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첫날 43번째 반탐급 게임에서 동성고 박호상 선수는 김순웅 선수를 맞아 1회 1분만에 원발 돌려차기를 적중시켜 호쾌한 K.O승을 거두었으며 76번째 페더급 게임에서는 경북체고 이홍식 선수가 명재현 선수를 2회전에 K.O시켰다.

제 2일은 스탠드의 고급학교, 단체의 열띤 응원이 경기장 분위기를 점점 가열시켰으나 팔목 할만한 경기는 없었으며 지방선수들의 선전분투가 돋보였다. 제 3일 경기는 대진번호 373번부

터 521번까지의 「게임」이 있었으며 이날은 타이틀 미들급 대전 대성고의 이상각 선수가 춘천상고 장병오 선수를 맞아서 뛰어난 발기술과 민첩한 동작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 나가다가 1회 1분 25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안착했다.

또, 506번째 페더급 게임에서는 회현체육관의 우재선 선수가 이병옥 선수에게 뒤돌아차기를 명중시켜 역시 K.O승을 거두었다.

제 4일 차 경기 일반부 반탐급 「게임」에서 명지체육관의 김영목 선수가 김석훈 선수를 1회 1분 30초만에 K.O시켰다. 경기 5일째를 맞은 국기원에서는 연일 뜨거운합성과 묘기가 백출하는 가운데 필승의 기합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참가 선수들은 입상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신중한 대전 자세를 보였다.

한편 758번째 대학부 미들급 「게임」에서 인천



체대 강동화 선수는 유도대의 한정호 선수에게 1회 1분17초만에 원발 돌려차기를 명중시켜 K.O 승을 거두었다. 또, 중등부 웰터급 경기에서는 배명중 서정현 선수가 단국중의 서정록선수를 2회 1분10초만에 오른발 돌려차기로 K.O시키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중반을 맞은 제 6일 경기에서는 각 체급의 준결승이 벌어졌는데 동대문상고의 김진기 선수는 이병희 선수를 맞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1회 1분20초만에 뒤차기를 명중시켜 역시 K.O승을 거두었다.

열전 7일이 끝나고 시상식에서는 각 체급의 입상자가 영예의 「메달」과 상장을 받고 심판 및 경기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공로 표창이 있었다.

이날 수상한 입상자는 별표와 같으며 표창을 받은 심판 및 경기 관계자는 이무웅, 최돈오, 심명구, 김석만, 한병학이다.

이번 경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경기에 입하는 선수 및 「코치」의 자세가 매우 진지했으며 판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승복하는 등 「매너」가 훌륭했다는 점과 참가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정신과 부상을 이기고 분투하는 감투정신이 돋보인 점이였다. 한편, 부상자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계체에서 실격당한 선수가 200여명이나 되었다는 점은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정신적 자세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앞으로 선수를 지망하는 유단자들은 기술과 체력관리는 물론 최최 체중유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입상자 명단

<여 자 부>

재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이 은 영	창 덕 여 중
"	2	김 은 영	성 암 여 상
"	3	김 금 란	동 덕 여 중
플라이	1	장 희 인	동 명 여 고
"	2	서 은 속	인 천 체 고
"	3	김 해 속	은 광 여 고
"	3	이 미 자	"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반 탐	1	박 순 경	은 광 여 고
"	2	석 회 영	청 산 여 상
"	3	김 선 자	인 천 청 고
"	3	이 충 회	은 광 여 중
페 터	1	박 현 용	인 천 체 고
"	2	황 연 회	성 암 여 상
"	3	이 선 화	청 산 여 상
라이트	1	정 영 신	자 석 여 장
"	2	김 명 애	이 화 여 고
"	3	강 명 화	인 천 체 대
"	3	이 경 화	동 명 여 고
웰 터	1	이 광 욱	중 암 대
"	2	홍 해 영	경 기 고
"	3	김 소 영	인 천 체 고
"	3	박 우 수	전 남 체 고
미 들	1	문 우 영	인 천 체 대
"	2	김 순 욱	인 천 체 고
"	3	김 복 영	은 광 여 고
"	3	이 주 미	유 도 대
헤 비	1	현 완 속	인 천 체 대
"	2	김 미 자	청 산 여 상
"	3	이 회 순	송 신 여 고

—이상 29명—

<중 등 부>

재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함 준	완 산 중
"	2	김 덕 용	경 북 체 중
"	3	성 나 형	청 주 남 중
"	3	고 용 재	배 명 중
플라이	1	이 재 용	동 대 부 중
"	2	이 희 영	경 북 체 중
"	3	김 상 태	일 중
"	3	엄 한 주	배 명 중
반 탐	1	양 대 승	동 성 중
"	2	박 봉 권	"
"	3	김 성 호	"
"	3	우 창 문	한 일 중
페 터	2	김 주 훈	세 광 중
"	1	지 영 만	세 배 명 중
"	3	여 민 철	"
"	3	김 영 주	동 성 중
라이트	1	이 용 일	배 명 중
"	2	황 동 순	완 산 중
"	3	김 영 준	대 성 중

체 급	등위	소 속	학 교
라이트	3	김영철	경북체중
웰터	1	박만성	동성중
"	2	서정현	배명중
"	3	박동화	동성중
"	3	김천환	성인중
미들	1	황완수	단국중
"	2	이희우	동성중
"	3	유재봉	형석중
"	3	김창섭	동대부중
해비	1	이추열	배명중
"	2	추교일	주성중
"	3	김택동	서대문중
"	3	조영호	경북체중

—이상 32명—

<고 등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김형수	성동상전
"	2	김재욱	"
"	3	최천봉	동성고
"	3	김만봉	형석상고
플라이	1	박승길	동성고
"	2	김도훈	"
"	3	이서희	"
"	3	방재구	대천체다
반탐	1	손재열	대전체고
"	2	노병욱	동대문상
"	3	정해준	남대전고
"	3	이종목	경북체고
페터	1	김정열	전남체고
"	2	고동환	남대저고
"	3	박기룡	인천체고
"	3	정삼보	형석상고
라이트	1	이상갑	경북체고
"	2	김성호	형석상고
"	3	김관환	인천체고
"	3	이명성	대전체고
웰터	1	김현준	대성고
"	2	이광섭	서울체고
"	3	장진우	남대전고
"	3	안성만	형석상고
L.미들	1	김진기	동대문상
"	2	노영수	경북체고
"	3	이병하	고양중고
미들	1	이근성	청주신흥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미들	2	서민영	전남체고
"	3	김광업	인천체고
"	3	이정진	성한체고
L.해비	1	김재영	동대문상
"	2	장영철	장훈고
"	3	장정휘	배영고
"	3	최운석	인천체고
해비	1	권용수	서울체고
"	2	한상우	전남체고
"	3	엄보섭	경북체고
"	3	정종한	대동공고

—이상 39명—

<일 반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윤원근	화담도장
"	2	이명식	충남정심체육관
"	3	이종원	간석체육관
"	3	서경석	북인천체육관
플라이	1	장원근	후문체육관
"	2	김동훈	간석체육관
"	3	윤성호	명승도장
"	3	이병민	중앙도장
반탐	1	한두수	이촌체육관
"	2	구본경	동일 "
"	3	진정환	신촌본관
"	3	하정욱	중앙도장
페터	1	이택중	성동체육관
"	2	오광택	석사도장
"	3	노승남	잠원체육관
라이트	1	김명연	공향도장
"	2	백종영	용도장
"	3	이해동	5602부대
"	3	천승민	신촌도장
웰터	1	최오암	"
"	2	박상호	이촌도장
"	3	김상우	5602부대
L.미들	1	이상택	쌍용도장
"	2	장병환	평성 "
"	3	김형만	명지 "
"	3	임진철	용일 "
미들	1	임승권	남양도장
"	2	김기용	5602부대
"	3	김대식	신촌도장
"	3	김홍천	"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L.해비	1	조관현	5602부대
"	2	홍정호	신촌도장
"	3	이복남	서산 "
"	3	김효진	인왕 "
해비	1	박강훈	장석 "
"	2	김명상	갈산 "
"	3	이한종	배명 "

—이상 37명—

<대 학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	송하현	인천체대
"	2	이상문	"
플라이	1	신현무	"
"	3	장경수	한양대
"	2	김윤식	유도대
"	3	유영준	"
"	3	김종철	인천체대
반탐	1	이광호	유도대
"	2	권준호	인천체대
"	3	김환기	전주대
"	3	김영종	인천체대
페터	1	김일권	영남대
"	2	최재주	유도대
"	3	송광현	인천체대
"	3	정파평	유도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라이트	1	신병만	인천체대
"	2	김종섭	"
"	3	조세훈	유도대
"	3	강영식	인천체대
웰터	1	강일수	"
"	2	정홍곤	"
"	3	박양규	유도대
"	3	임재석	인천체대
L.미들	1	신형우	"
"	2	황신	"
"	3	서정열	유도대
"	3	이영기	인천체대
미들	1	박종두	유도대
"	2	김주명	인천체대
"	3	채현기	"
"	3	강동화	"
L.해비	1	고영철	유도대
"	2	김환배	인천체대
"	3	김명수	"
"	3	옥노균	성실대학
해비	1	김재명	인천체대
"	2	이용우	유도대
"	3	나창훈	경희대
"	3	이성준	홍익공전

—이상 39명—

남산청년회의소 회장 조 휴 익

(祝) 태권도지창간 주년

대구백화점 사장 이 정 무

韓國武藝로 道德武裝 운동展開

美議員들 太極道服 입고 試合도

『차렷!』

『태—권!』

흰 도복을 입은 20여명의 미국 소년들이 한국 달 구령에 맞춰 기본동작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겨루기 중인 「타놀드」군(7)이 옆치기로 오른쪽 발을 내딛자 상대편의 「에릭 루비언」군(9)이 슬쩍 비키면서 손으로 쳐낸다. 도장 한편에서는 올해 62세의 「제임스 모셀」 교수(「조지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주임)가 품세를 익히고 있다. 한국인 부인의 권유로 6년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모셀」교수는 호신술로는 물론 심신의 융화 운동에 태권이 아주 적격이라고 말하고 6년을 익혀도 매일 새로운 것 같다고 만족해 했다.

미국 「워싱턴」시내 번화가의 「2000 L 빌딩내」李俊九씨의 도장에는 매일 남녀노소의 외국인 수련자 수 백명이 중주국 한국에서 전래된 태권도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워싱턴」시내에 이 같은 도장 7개를 갖고 있는李씨는 매달 도장마다 승급대회를 열고 2천여명의 수련생을 직접 심사한다. 또 그의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全美洲 30개 태권학교의 승단심사를 맡는 한편 매주 한 차례씩은 미 국회의사당 체육관에 나가 그가 10년전에 발족시킨 의회태권도「클럽」(CTC)소속 상하의원 및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지도하고 있다.

議會에 跆拳道클럽

스포츠 하나만으로 그것도 한국에서 비롯된 태권도를 바탕으로 미국사회에李씨처럼 폭넓게 알려지고 깊숙이 파고든 경우도 드물다. 미국이름 「준 리」로 불리는 그를 모르는 「워싱턴」시민

은 거의 없다. TV화면에서는 하루에 두 차례씩 「스피드! 벨런스! 파워!」의 구호와 함께 「점프킥」으로 飛翔하는 그의 道場 광고방영(CM)이 수년 이래 계속 되고 있다. 골목길의 어린이에서부터 상하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를 볼 때마다 『준리! 준 리!』를 연발하며 받긴다.

미국내 한국의 태권도가 보급된지 20여년만에 약 1천개의 도장이 들어서고 5백여명의 한국인 사범을 비롯, 미국인 일본인등 1천여명의 사범들이 「브라질」에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미주지역에 걸쳐 약 80만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된데는,李씨의 초기 개척운동과 보급 활동의 성공에 힘입은바 크다.

고교시절 서울에서 태권도를 익힌李씨는 군복무중 6개월간 미국에 연수했던 것이 인연이돼 제대후인 57년 「텍사스」주립대학에 유학, 대학생 태권「서클」을 만들면서 미국에 태권도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치고 받는 것이 싸움이지 무슨 운동이냐면서 체육관 사용도 못하게 하더군요. 학장과 체육부장을 설득시켜 겨우 첫 도입을 갖고 회원을 모집했지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보급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워싱턴」으로 옮겨왔다. 62년 6월 「워싱턴」시 K街에 3층 방 하나를 빌어 첫 태권도장을 차렸다.

처음 등록회원은 30명 뿐이었다. 장소가 비좁아 곤란을 겪었다. 게다가 미국인 강패, 일본유도 유단자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기도했다. 그러나 이들은李씨가 「점프킥」으로 자신의 키보다 높이 반쳐든 기왓장을 깨는것을 보고 놀라李씨에게 굴복, 제자가 되거나 친구가 되어 수련생

들을 많이 모아 주었다.

그는 독특한 지도이념으로 미국사회에 태권도를 대중화시켜 나갔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기풍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접근했습니다. 교묘생 이상은 우등생이 아니면 입단 심사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니다. 담배도 끊도록 권했지요. 학생들이 승단심사를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게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전해져 가는데 놀라 태권도에 새삼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남녀학생 직장인 군인등이 줄지어 그의 도장을 찾았다. 3년후에는 「하이시빌」에 제 2도장을 차렸다. 그뒤 해마다 한개씩 늘어 모두 7개의 도장이 되었다.

태권도 인구가 확장되면서 70년 들어 그가 주최한 국제 태권도대회가 크게 성공하자, 태권 「블」은 중남미 「캐나다」 「유럽」에 까지 폭발적으로 번져갔다. 73년 「도미니카」 태권도대회를 「스타트」로 74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멕시코」 팀 초청 시합은 2만여명의 관중이 열광속에 지켜보았다. 9년 10월 「아모리」 체육관에서 미국民主黨대 共和黨의 원내 태권도시합을 개최, 共和黨의 「테드스틴슨」의원과 民主黨의 「퀸턴 버크」의원등 상하의원들이 선수로나와, 맨발에 태극 마크도 선명한 도복을 입고 주먹 지르기과 발차기로 의정단상아닌 링위에서 「실력 대결」하는 것을 보고, 미 의회 출입기자들도 깜짝 놀랐다. 정치인들까지 훈련시키고 시합에 뛰게 만든 태권도의 「위력」을 새삼 인식하기에 이른것이다.

지금은 「사이명턴」 의원을 비롯한 의회 교정 「앨버」만도 15명에 이르며 「메니스 위언트」 전 노무차관등 상당수의 官界인사도 있다. 저명한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과 「무하마드 알리」는 그의 태권지도가 연인이래 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지 부시」 부통령과는 CIA국장 시절부터 교류가 있으며 그의 요원지도와 관련, FBI는 지난 6월 그에게 감사패를 주기도 했다. 그는 순수한 스포츠를 통해 미국사회 「스타덤」에 올랐으며 「워싱턴」政街에 깊이 파고든 한국인이 되었다.

지난 76년 1월 「워싱턴」시 「힐튼」 호텔에서는 「키신저」 국무장관, 「보르 호프」등 국제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독립 2백주년기념 세계체육인상 수상이 있었다. 이자리에서李씨는 권투의 「알리」, 야구의 「디마지오」, 농구의 「윌 챔벌던」과 함께 武術부분에서 수상했다. 당시 사회자 「잭 앤더슨」은 『세기의 인물. 한국인으로서는 세계에 무술을 크게 일으키고 「윌드 불렉벨트 리그」를창설한 지도적인 무술인』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12월 9일 그는 의회 태권 「클럽」회원인 「빌차펠」의원등 11명의 의원들을 부부동반으로 그의 저택에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내가 지난 10년동안 한주일에 한차례씩 여러분들을 무료 지도해온 데 대해 저도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태권도를 통해 미국 청소년들의 도덕 지도운동을 펴고자 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李씨는 의원들에게 「청년도덕지도를 위한 무술인협회」를 만들어 의원 태권 「클럽」과 정기시합을 갖고 서로 교류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우등생이 된 도장수련학생을 위해 장학회를 만들어 이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더 많은 태권 인구를 늘리도록 하자고 재의했다.

미국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태권도를 통해, 정계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이되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기풍을 함양시키는 도덕무장 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면 그의 생각이다. 자신의 태권도에 대한 이념에 의원들의 성원을 합쳐 跆拳道본연의 「道」를 승화시켜 보겠다는것.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참으로 좋은일』이라고 그의 「아이디어」에 찬성했다. 지난 1월초부터 의원들의 활동이 시작돼 「차펠」의원은 「플로리다」의 3개 대학에 태권도장학생을 보낼 수 있게 해놓았다.』고 연락해 왔으며, 다른 의원들도 태권을 통한 청년도덕 운동의 성공을 위해, 올해 의원 30명을 목표로 의원 「클럽」회원 倍加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태권도에 국가적 지원을

양 승 진 (알래스카)
태권도사범

한국의 태권도가 북미 凍土「알래스카」를 녹이고 있다. 이곳에 태권도를 파종한 주인공은 梁承辰·(5단·29)씨. 태권도 불모의 「알래스카」에 씨뿌리고 가꾼지 4년만에 이제는 그의 주가가 「알래스카」의 최고봉 「머킨리」 정상만큼이나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에 핀 「동토의 꽃」그늘에는 양씨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져 있다.

고려대 산악회의 「머킨리」 정상정복, 「알피니스트」 고상돈(高相敦)의 죽음으로 한국의 얼이 서린 「머킨리」. 그 「머킨리」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알래스카」 제 2의 도시 「앵커리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승진씨.

그는 4년여 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일시 귀국했다. 태권도 5단에 합기도(3단) 실력도 만만찮은 그는 獎忠中과 善仁高를 거쳐 76년 도미, 현재 수련생 2백여명을 거느린 「양스(YANG'S)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앵커리지(교민 약 6천명)에 정착, 도장을 개설했으나 인종차별, 언어불통, 태권도의 물이해로 술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뛰어난 기량과 성실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차차 소문이 퍼지면서 개인지도를 원하는 수련생도 늘어났다. 그의 문하생중에는 주립법원판사 「G.터커」씨, 「프로비덴스」병원 수석의사 「슈나이더」씨 같은 지도급 인사도 있다.

최근엔 「웨스트포인트」 육사출신 장교 5명이 특별개인지도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현지신문 「앵커리지 타임즈」도 「양씨의 태권도수련법은 독특한매가 있

다. 1주일 훈련「스케줄」을 보면 순수태권도를 다른 무술과 비교하여 그 기법을 가르키고 있고 그의 수련생중에는 국민교생 유단자도 수두룩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현재 한국인 경영 도장은 「앵커리지」, 「페어뱅크스」, 「케나이」에 한군데씩 있지만 일본의 「카라메」는 30년전 「타나카」씨가 도장을 설립 현재까지 성업중이며 주 곳곳에 10여개의 도장이 성업중이며 「앵커리지」에만도 3개의 도장이 있다고.

일본의 「카라메」가 이처럼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것은 국가적 차원의 폭넓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 『지난해 김영권씨가 총영사로 부임해 오셔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멀리않아 태권도바람이 「알래스카」에 몰아칠 것입니다』며 양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그는 도장 수련생의 도복(道服)은 의무적으로 한국제품을 입게한다.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배우는데 있어 한국인의 손때가 묻은 도복을 입지 않고는 태권도의 오묘한 맛을 터득할 수 없다는게 양씨의 논리. 하지만 도복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세관에서는 장삿군으로 몰아세워 가슴이 아프다고, 그는 조국관이 뚜렷하고 기량을 갖춘 태권도 사범이 있으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울가울엔 미국 전역 순회시범경기를 갖겠다고 의욕을 펴보인다.

그의 꿈은 태권도를 영화화해 세계도처에 보급 그 우수성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한국혼」을 주먹으로 승화시키려는듯 상치투성이의 손등을 문지르며 웃는다.

하나로 뭉쳐지는 태권도!

(캐나다에서 온 기쁜소식)

■ 캐나다 개황 ■

면적—9,976,139km²
인구—22,975,000(77년 현재)
언어—영어, 프랑스어
인종—유럽계(주로 영국, 프랑스)
종교—기독교
수도—오타와



지난 3월 22일 「캐나다」태권도협회 내 세계연맹소속사범들 및 구국제연맹소속사범들은 처음으로 실현된 합동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18년동안 끌어오던 두갈래 태권도의 분규와 잡음이 완전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토론토」 「앤도아 호텔」에서 정오에 열린 합동회의에서 태권도 후진들을 위한 값진 전통을 세우고, 올림픽종목 가입을 제기로 국제적인 조류와 추세에 따라, 「캐나다」내 단일화에 무조건 합병하는데 의견이 일치됨으로써 하오 2시 역사적인 통합선언이 이루어졌다.

통합직후 상호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악수 교환하기도 했고, 국기 태권도 선양과 한인사회에 태권도인의 단결된 모습을 뽐냈하게 보여주고자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동안 단일화추진위원으로 박주삼, 박중수, 이태은씨 등이 중간 매개역할을 맡았었다.

이날 모임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은 다음과 같다.

교문: 켄·「로빈슨」(연방국회의원)
「토론토」 출신

회장: DR. LLOYD FRANCIS (연방국회의장), 「오타와」 출신

부회장: 윤오장(퀘벡)
사무총장: 이태은(오타와)
이사장: 홍성인(런던)

이사: 박주삼, 이경태, 박중수, 손명수 (온타리오), 이종수, Guy Labett (퀘벡), 강주원, 이암(매니토바), 하기성(사스카치완), 서정길, 이준재(알버타), 오영국, 권태성(브리티시컬럼비아), 김양광(노바스코시아)(무순)

로이드 국회의부의장에

태권도 명예초단 수여

태권도 보급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로이드·프랜시스」 국회의부의장에게 「캐나다」상사 처음



◇오타와 연방정부청사 귀빈실에서 국회부의장 로이드 프랜시스박사(右)에게 이태은 오타와태권도학장(左)이 명예태권도 유단증을 수여하고 있다. (중앙은 프랜시스 박사 부인)

으로 세계태권도연맹 명예초단이 지난 2월 27일 「오타와」연방정부청사 본관 601호 특별실에서 수여되었다.

이날 하오 6시부터 국회부의장이 베푼 「더너 파티」에는 「프랜시스」의원은 “태권도유단자가 된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로, 태권도가 「캐나다」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예술과 복합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태권도가 올림픽경기에서 「캐나다」를 위한 「메달」 획득에도 기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세계태권도연맹 「캐나다」 지부는 올 7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싼타 클라라」에서 개최되는 「월드게임·원」(N.O.F) 및 11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에 출전할 「캐나다」 국가대표 선발 경기를 5월 23일(토) 「오타와」대학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오타와」 한국대사관 및 한국일보·「캐나다 뉴스」사 후원으로 거행되는 이번 선발대회에서는 태권도를 「캐나다」에 새롭게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벌여 태권도가 「캐나다」정부의 공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캐나다」 외교 사절단장, 국회부의장, 대한항공 「토론토」영업소, 「선·라이프」보험, 「딘·마이어GM」판매회사, 적십자사, 「오타와」시 및 경찰당국 등과 자 「매스컴」의 특별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주관자인 이태은 오타와 태권도 학교장이 밝혔다.

「캐나다」대표 선수는 10세급에 1, 2, 3위 30명을 선발하여, 유급자「챔피언」은 28세급에 1, 2, 3위 84명을 뽑는다.

영국 무도계, 태권도의 우수성에 매료!

1981년 2월 15일 영국 「머햄」의 「뉴튼·아이크리프」에서 영국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이날 모든 영국의 무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태권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의 보급을 전담할 기구를 결성했다.

— 跆拳道로 韓國人 才能펼쳐 —



<스 페 인>

■ 스페인 도장분포 ■

발 세 로 나	45	히	온	1
마 드 리 드	11	테	온	1
갈 리 시 아	11	빌	바 오	2
(라코루냐)				
발 렌 시 아	7	싼	판 텔	2
세 빌 리 아	3	캄	팔로나	1
그 라 나 다	2	빅	토리아	1
말 라 가	1	부	르고스	1
라스 팔마스	4	바	자돌리	1
메 데 리 페	2			

鬪牛와 「플라멩고」의 나라 「스페인」에는 1백 67개구 3백 62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 개구주 1백 67명중에는 태권도 사범이 1백 4명으로 「스페인」 교민사회는 모름지기 태권도사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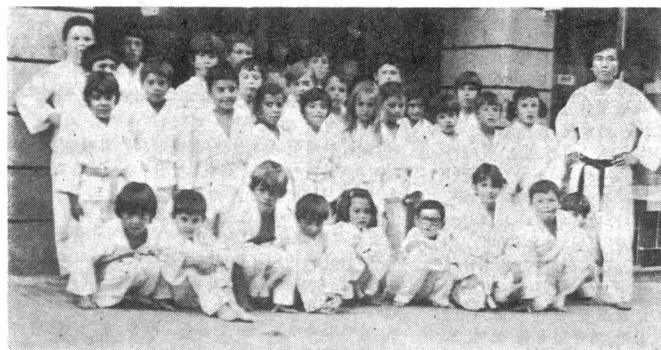
이들은 모두 60년대말부터 70년대 초엽 단신으로 「스페인」에 건너와 태권도 才能을 발휘한 성공적 移民사례에 속한다.

지난 3월 1일 수도 마드리드의 東南方 3백 km 지점에 위치한 이 나라 제 3의 도시 「발렌시아」에서는 제 6회 全「스페인」 跆拳道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되었다.

전국 50개州에서 물러든 1천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太極「마크」와 「跆拳道」란 한자표지를 달고 거리를 누벼 인구 50만의 도시는 마치 「코메아노·페스티벌」場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

다. 위로는 「카를로스 3世」로부터 아 태로는 軍人·경찰 학생·부녀층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태권도는 이제 스페인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가 됐고 韓國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인구 3천 8백만의 「스페인」에는 지금 1천여개의 태권도



스페인의 어수일 태권도장(라코루냐 소재)의 유년부 수련생들

도장이 있는데 이중 1백50여개를 한국인 사범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가 「스페인」에 첫발을 디딘 것은 67년. 지금은 태권도 사범이라기 보다는 교포 실업인으로 성장한 金濟元·趙龍薰(이상 「마드리드」거주) 全永太·趙洪植(이상 「바르셀로나」거주) 씨 등이 각기 다른 경로로 이주해 오면서부터다.

최초에는 태권도 보다는 「가라메」에 관심을 갖던 「스페인」 사람들에게 각종 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型」 위주의 「가라메」 보다는 태권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권도에 결정적 행운을 안겨준 것은 현지 「맥스컴」들이 격파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당시 황태자였던 「카를로스」왕이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나서면서 부터였다.

폭발적 인기속에 도장을 연 이들은 故國의 후배 사범들을 20~30명씩 초청하여 自活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후 「스페인」의 태권도기술과 보급활동은 착

실히 성장하여 1975년에는 국가대표선수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매년 국가대표팀 코치는 한국인이 맡아 지도하고 있다.

1976년에는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여 「스페인팀」이 단체우승을 하였으며 (코치: 김홍구), 1979년의 제 4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6위의 전적을 올렸다(코치: 어수일).

또한 1980년에 「덴마크」의 「에스부룩」에서 개최된 제50회 유럽선수권대회에서도 청소년부가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코치: 어수일, 트레이너: 이경연).

특히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의 전적이 국왕에게 전해지자, 선수단을 불러 직접 그들을 위로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등 태권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현재 「스페인」 내에는 「바르셀로나」지역의 50여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120여명의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태권도지도와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브라질에跆拳道 선풍

『브라질인 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태권도인구는 학생, 군·경찰, 일반 모두 합쳐 10만명 정도는 됩니다. 요즘에서는 여성들까지도 입관수련을 하고 있지요.』

지난 2월말 全斗煥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로 일시 귀국한 在브라질 태권도인 金相仁(37)씨는 브라질 태권도계의 실정을 이렇게 소개했다. 현재 브라질 정보기관(DOPS)의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씨는 「브라질」 내에는 현재 한국인 사범 45명이 태권도보급을 통한 스포츠의 교사절로 국위선양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에 태권도가 선 보인 것은 70년, 김씨가 「브라질」에 간 것은 이듬해인 71년 5월이었다.

당시 日本 「가라메」의 횡포에 질린 「브라질」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심한 거부반응을 보여 보급에 애를 먹었다.

김씨는 기지를 발휘, 정부의 실력자 자체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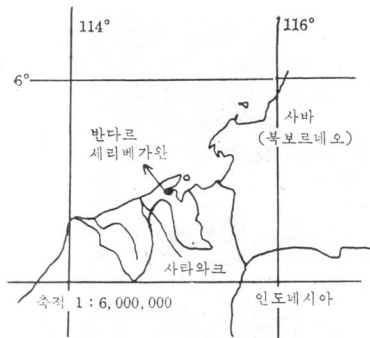
가르쳐 이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브라질」에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다고.

한편 일본의 유도가 「브라질」 체육회의 정식경기 단체로 가입돼 있는데 반해 태권도가 아직까지 임의단체(태권도 브라질)로 남아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在브라질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은 현재의 단체인 「태권도 브라질」의 회장단을 브라질의 실력자들로 구성, 정식 경기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강력히 펴나가고 있다.

김씨에 의하면 오는 5월 25일 「브라질」 정부 주최로 「브라질」에 온 60여개국의 이민들이 모여서 벌이는 「브라질」 移民올림픽대회의 준비위원장 및 올림픽위원장직을 「태권도 브라질」회장이 맡게돼 이 대회의 종목재택도 물론 앞으로의 연맹발족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 기뻐했다.

열대의 브루네이에서

이 우 북 (브루네이)
(태권도 사범)



열대의 「브루네이」에서 태권도를 심고 있는
이우북 사범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조건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도 나뭇꾼더러 나쁜 무술이 현지에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태권도를 알
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연맹이 공인한 「브루네이」태
권도협회의 유일한 사범이 아닙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유도 제게는 없읍니다.”

「브루네이」는 「보르네오」섬의 북단에 위치하
다.

「말레이아」령인 「사라와크」의 동쪽 끝부근이
며 역시 「말레이아」령인 「사바」와 가까운 곳이
다.

이우북 사범은 실내 기온이 무려 섭씨 30도가
가까운 「브루네이」의 수도인 「반다르 세라베가
완」의 청소년회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한편
「말레이아」령인 「사바」와 「사라와크」에 나가서
도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다. 「말레이아」령에는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있으나 세계연맹의 통일

된 품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우북 사범이 이곳에 간것은 5년전인 1976년
이다.

이곳은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들과 기술자들
이 보이면서 교민 사회를 형성했고 지금은 55가
구에 350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 교민들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양계
업 종사자도 많은 편이다. 이곳의 교민회장은
한상봉씨이며 태권도를 깊이 이해하고 태권도를
통한 국의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우북 사범은 정통 태권도를 전파하여 다른
무술을 압도하고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
하고 있으며 인구 20만의 작은 국가인 「브루네
이」에서 이우북 사범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
다.

이우북 사범의 제자들은 벌써 사범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이 있는 유단자가 많으며 제자
의 수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국기원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한다.

아직도 해의에서는 한국의 태권도계가 전부
문쳐서 하나의 단체가 된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우북 사범은 W.T.F의 다른 단체나 사범
들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대동 단결하여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을 할 것을 간곡히 부탁
한다.

주소 : Lee U Pok

Brunei Taekwon-Do Association

P.O.Box 757

Bandar Seri Begawan,

State of Brunei

중공 무술요기단에 태권도 시범

콜롬비아태권도 사범 이 기 정



중공요기단에 시범을 한후 기념 촬영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15년전 자유중국 대사관이 「콜롬비아」에 설치된 후 그들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외교 활동에 전념해 왔었다.

그러던 중 세계 정세의 급변으로 중공의 위치가 크게 향상되는 가운데 이곳 외교가에도 정치 바람이 불어 자유중국의 대사관이 철수되고, 중공대사관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대대적인 「매스컴」의 보도에 편승하여 중공 내부의 여러가지가 상세하게 거들 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 「콜롬비아」 문화 사절단으로 중공내에서 가장 특출한 갖가지 기술의 최고 고수들을 파견하여 순회 공연을 갖게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매스컴」의 선전 속에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입장한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갖가지 묘기를 보여 중공 선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눈치였다.

이곳 콜롬비아에서는 어디를 가든 중공 묘기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예외없이 나의

도장 근처에도 그 선전 「포스터」가 붙여졌고 世人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 나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도장 유단자의 전언이 왔다. 중공 묘기단의 통역원이 3차례나 나의 도장을 방문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태권도 사범이지만 웬지 그순간 섬뜩함을 느꼈으며,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상세한 이야기를 유단자에게 들어보니 대단히 흥미를 끄는 이야기들이었다.

한국의 고유 무도인 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와 자기들도 몇가지 준비하고 묘기단 전원이 오겠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보고하고 태권도 시범에 관해 사진 승인을 구하였다. 대한민국 태권도의 해외주재 사범으로서 이 머나먼 「콜롬비아」땅에서 중공의 묘기단에게 시범을 보이게 되

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어쩐지 나의 주변을 돌아 보고 한명의 보조 사범단 있어도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속에는 중공 최고의 「쿵후」 고수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나는 마음 속으로 나의 일생 일대에 있어 최대의 시범을 계획하고 준비를 완료했다.

드디어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고 시범 보일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그들에게 보다 더 무도인으로써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도장내의 환경정리까지 끝냈다. 약속일인 80년 9월 19일 10시 정각 그들 45명은 단장 「첸잉」씨를 선두로 모택동 복장을 착용하고 나의 도장에 질서 있게 입장하였다. 그들은 시범보조자(10명 유단자)를 제외하고는 동석할 수 없다하여 도장문은 굳게 닫혀졌다. 약간의 나의 소개와 한국 태권도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 이전에 보였던 그 어느 시범보다도 실수없이 하나 하나 진행해 나갔고, 그들의 손에서는 계속 박수소리와 탄성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동행 기자는 나의 모든 시범을 하나 하나 촬영해 나갔다.

나는 나의 특기인 격파에 최대의 신경을 썼다 그리고 시험 겨루기도 간략하게 보여 주었으며 품세 등도 최선을 다해 진행했다. 그런데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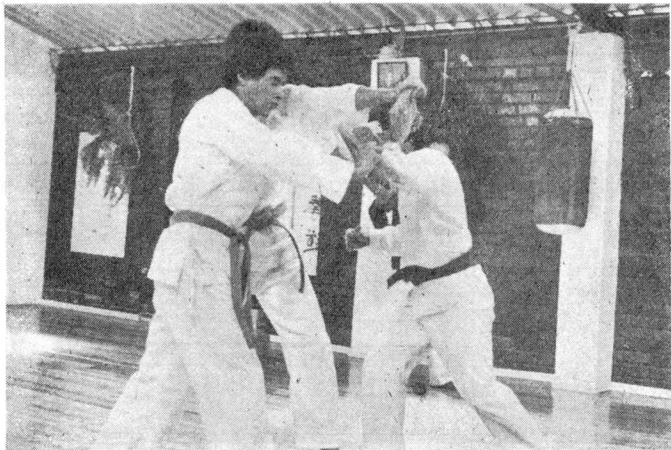
중 한 사람이 5「센치미터」두께의 송판 1개를 나에게 건네 주면서 공중 손날 격파를 원했다. 나는 송판을 교쳐잡고 왼손 엄지 손가락 하나로 격파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진기와 촬영기의 「렌즈」를 내게 고정시켰고 거의 동시에 나의 엄지손가락 격파는 끝났다. 그들의 기립박수와 탄성. 나는 나의 저려오는 손가락을 보았을 때 이미 정상이 아닌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시범을 끝냈을 때, 「쿵후」 고수가 품새 종류 하나를 해주었다. 그들과 태권도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날은 끝내 겨루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번의 시범이 대한민국 태권도 보급이래 최초로 그들에게 태권도를 시범하여 성공리에 끝내어, 그들에게 태권도를 인식시킨 뜻깊은 시범으로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한다.

언젠가 중공내에도 태권도가 보급될 것을 염원하며……

금번 시범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드리며, 피투성이인 나의 손을 어루만지며 태권도 사범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엄지 손가락 격파 장면

세계태권도연맹 뉴스레터 발간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1981년 3월, 전세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태권도계의 제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배포했다.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은 해외사범의 구독신청을 받고있으며 구독료는 무료다.

구독신청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6번지 세계태권도연맹사무국

Mail Order: World Tae Kwon-Do Federation, San 76 Yuksam-dong, Kangnam-ku, Seoul,
Korea (134-03)

Tel.: 56-2505, 57-3024

WTF
News

REMARKS FROM PRESIDENT:

Year 1980 was a new epoch-making year for Taekwondo.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granted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t its 82nd General Session in Moscow from 18th to 18th July.

General Assembly of Other Sports Federation (NOF) of CAISF was held in Seoul under my Chairmanship. The meeting adopted constitution of the World Games, and decided to hold World Games I in Santa Clara, California from 24 July to 2 August 1981 with 14 sports participations.

1st CISM Championships was held in Seoul from 1st to 8th November. Subsequently, 4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3rd European Championships, 2nd Pan American Championships, 3rd North American Championships and 2nd South American Championships were h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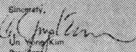
I was elected to President of the World Games and Chairman of Other Sports International Federation (NOF) of the CAISF. I was further elected to Executive Council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GAISF) which is composed of all Olympic and Non-Olympic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further affiliated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ICSPPE) headquartered in London.

In the year 1981, we will see the World Games I, and 5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and General Assembly will be held in Mexico City in November.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ill continue to do its utmost effort to develop Taekwondo in accordance with charter and principles of the IOC, and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WTF throughout the world. It is my sincere wish that members of world Taekwondo Family will be united and will continue to dedicate themselves to our common cause and effort to develop Taekwondo as a universal sport.

With every best wishes,


 Choi Jung-min
 President

83rd session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RECOGNIZED
WORLD TAEKWONDO FEDERATION

The 83r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ession meeting in Moscow from 18th to 18th July 1980, granted IOC recognition to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 accordance with Rule 57 and its by-laws of the "Olympic Charter".

This historical step laid that Taekwondo has become a major world sport and our common desire to include Taekwondo in the program of Olympic Games can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became an affiliate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the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GAISF) by unanimous vote on Oct. 8, 1978. Executive Committee of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CISM) adopted Taekwondo as its 23rd official sport on April 9, 1976.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today has 6 continental unions, 102 national associations with 10 million students.

해외주재 사범 장학기금 기탁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대표 11명은 3월 10일 낮 모국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우수한 학생선수에 장학금을 지급할 태권도 장학위원회를 발기하여 1차로 기금 1천 1백달러(한화 75만원)를 김운용 태권도 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미주 유럽 동남아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 태권도 사범들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로 귀국. 모국에 머무르는동안 우수한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이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각기 되돌아가면 동료 사범들에게도 이 취지를 알려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協力할 것을 약속했으며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장학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선수의 양성과 文武를 兼全한 태권도 후진의 育成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해외 및 국내사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장학기금은 국기원 내 「장학기금 관리위원회」로 보내면 되며, 장학금을 접수하면 영수증과 감사장을 우송하고 있다.

해외사범들의 장학기탁금 내역

미	국	권 부 길	U.S. \$ 100
"	"	이 민 휘	" \$ 200
중	국	김 사 옥	" \$ 100
멕시코	코	문 대 원	" \$ 100
미	국	이 기 룡	" \$ 100
호	주	이 종 철	" \$ 100
미	국	김 대 현	₩100,000
오	지 리	이 광 배	U.S. \$ 50
이	태 리	유 석 열	₩30,000
인도네시아		김 기 하	₩50,000
스	페 인	김 재 원	₩18,000
일	본	조 광 실	₩100,000

祝 태권도지 창간 10주년

성동상업전수 학교

교 장 왕 춘 정

장 춘 고 등 학 교

교 장 이 영 승

태권도 동정

81년 1월 6일

승품(단)심사

장 소: 충남대전

참가인원: 108명

81년 1월 15일

대의원 정기총회

장 소: 대한체육회강당

81년 1월 17일

시범단 13명 홍콩으로 출발

81년 1월 19일

브라질 수련생 이한인사차내방

81년 1월 25일

130회 승품심사

장 소: 국기원

참가인원: 980명

81년 2월 9일

131회 승품심사

장 소: 국기원

참가인원: 431명

81년 2월 12일

미국 문덕영사범 영문 전동 타자기 기증

81년 2월 14일

98회 고단자 승단심사

장 소: 국기원

참가인원: 16명

81년 2월 15일

98회 승단심사

장 소: 국기원

참가인원: 20명

81년 2월 16일

일본 태권도 협회장 내방

81년 2월 17일

승품(단)심사

장 소: 충북(청주)

참가인원: 491명

81년 2월 18일

세계연맹 이금홍 전사무총장대리 이임

신임 배종호 사무총장서리 취임

81년 2월 22일

132회 승품심사

장 소: 국기원

참가인원: 1,213명

81년 2월 22일

승품(단)심사

장 소: 경기(인천)

참가인원: 494명

81년 2월 22일

승품(단)심사

장 소: 부산

참가인원: 917명

81년 3월 2일

양동자 A.A.U. T.K.D. Committee 회장내방

81년 3월 8일

133회 승품심사

장 소: 국기원

참가인원: 687명

81년 3월 8일

승품(단)심사

장 소: 강원(춘천)

참가인원: 247명

81년 3월 8일

승품(단)심사

장 소: 제주

참가인원: 174명

81년 3월 10일

대통령취임사절(태권도 사범)오찬회

81년 3월 17일

실무자회의(국기원, 협회, 세계연맹)

81년 3월 18일

세계연맹 「뉴스레터」 창간

81년 3월 22일

승품(단)심사

장 소: 경기(인천)

참가인원: 354명

81년 3월 27일~28일

「월드게임」 및 세계대회대표 선발전

81년2월39일

134회 승품심사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175명

81년 3월 30일

인도 Andrew Gurung씨

내방(홍콩 신재균 사범안내)

81년 3월 31일

U.S.O.C. Don Miller 사무총장 및 영국 I.O.C

명예총무 Richard Palmer씨 내방

81년 4월 1일

Richard Palmer 및 Don Miller 방문환영 시범

대회(미동국교·서울체고 시범단)

81년 4월 3일

김운용회장 향미

81년 4월 4일~10일

종별 신인 선수권 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002명

Activities of Taekwon Do

January 15, 1981

The 1980 Annual Meeting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was held at KASA auditorium with delegates from throughout the country participating in.

January 17, 1981

13 Members, demonstration team of the Kuk ki Won started for Hong Kong.

February 12, 1981

Instructor Duk-Young Mun resided in U.S.A contributed a electric typewriter to the Kuk. ki Won.

February 16, 1981

The president of Japan Taekwondo Association visited WTF president Dr. Un-Yong Kim at Kuk-ki Won.

February 18, 1981

Mr. Keum-Hong Lee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WTF, leave his post.

Mr. Jong-Ho Bae was appointed as a new secretary general of the WTF.

March 2, 1981

Mr. Dong-Ja Yang, the president of the A. A.U Taekwondo committe, visited WTF president Dr. Un-Yong Kim.

March 17, 1981

Joint meeting for the executive officials of the K.T.A and Kuk-ki Won was held.

March 18, 1981

The first edition of the WTF News Letter was issued.

March 11, 12, 27, 28, 1981

National Taekwondo team championships for the 1st World Game & 5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tournament.

March 30, 1981

Mr. Andrew Gurung from India, visite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WTF.

March 31, 1981

Don Miller, secretary general of the U.S.O.C & Mr. Richard Palmer of the British I.O.C secretary general, visited WTF president Dr. Un-Yong Kim, and viewed Taekwondo demonstration by Midong Primary School children and Seoul Physical Education Highschool Students.

April 4~10, 1981

New face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of the year 1981.

Place: Kuk-ki Won

Participants: 1,002 contestants.

월드게임에 葡등 12國 초청

세계태권도 聯盟

세계태권도연맹(총재 金雲龍)은 20일 제 1회 「월드게임」(7월 25일~8월 3일 · 美산타클라라)의 태권도 종목경기에 韓國을 비롯, 美國 「멕시코」 「에콰도르」 自由中國, 西獨 「코트디부아르」 「스페인」 「네덜란드」 濠洲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을 초청키로 최종 결정했다.

채급은 핀, 풀라이, 밴텀, 페더, 라이트, 웰터, 라이트, 미들, 라이트헤비, 헤비급 등 10체급으로, 1개국 「엔트리」는 13명(임원 3, 선수 10)으로 제한했다.

어린이 跆拳道

시범단 보내주오

『올해는 「캐나다」에서도 세계태권도대회에 대표선수를 파견합니다.』 지난 연말 일시귀국한 權玄澤사범(38)은 태권도 취약지구로 알려진 「캐나다」의 태권도계 소식을 희망적으로 들려준다. 「캐나다」에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소속의 한국인 사범이 20여명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표선수를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릴 제 5회 선수권 대회에는 꼭 대표선수를 파견키로 약속하고 오는 5월 선발대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 또한 그곳 진출 사범들은 이번 세계 대회를 계기로 더욱 풍채 한국어린이 시범단 등 태권도시범단을 「캐나다」로 초청, 태권도 「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의 태권도가 日本의 「가라메」, 「쿵후」 등 타무도에 비해 인기는 훨씬 앞서지만 아직 그곳 체육회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올림픽 총회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

으로 채택된만큼 앞으로 「캐나다」 체육회의 가입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權사범은 전한다.

그러나 「캐나다」서는 전국 규모의 태권도대회가 아직 없어 단계적으로 큰 대회를 자주 여는 게 시급하다는 것. 權사범은 현재 「노드뱅크버」에서 2개의 도장을 운영하면서 2백여명의 수련생을 가르치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 헌혈



제29기 지도자 교육생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앞장서서 헌혈하고 있다. (국가원)

7월 「월드게임」에 跆拳道 등 4種目 파견

대한체육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美國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되는 제 1회 「월드게임」에 상위입상이 가능한 태권도 · 야구 · 볼링 · 복싱 등 4개 종목만 파견키로 방침을 세웠다.

「가라메」의 母體는 태권도

日本 「가라메」의 총수이자 국제 「가라메」연맹 총재인 崔永宜씨(57, 일본명 · 大山倍達)가 정부 초청으로 지난 24일 일시 귀국했다.

17세 때 일본에 건너가 일본 소년 항공학교에 입학한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년 항공학교가

문을 닫자 타국에서 팀단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 일본인 「후나고시」, 한국인 조영주씨 등 「가라메」고수들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무도의 길을 닦았다.

끈질긴집념과 투지로 實戰공수도를 창시한 崔씨는 점차 세력을 넓혀 현재 日本에만 35만명의 문하생을 두게 됐고 전세계 1백8개국에 8백여개의 산하 도장을 보급시켰다.

「가라메」의 모체는 한국의 태권도입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이 익혔던 무술이 「가라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가라메」의 최고봉인 그가 「가라메」의 모체는 태권도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그 가슴 깊이 「조국」이 새겨져 있는 탓.

『몸은 비록 일본에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한국에 와 있다』고 崔씨는 조국의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强者가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곳이든 찾아가 주먹으로써 승자의 면모를 과시해온 그는 지금도 1주일에 10여시간씩은 제자들을 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跆拳道 올해 예산

대한태권도협회는 15일 체육회강당에서 8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1억 5천 3백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통과시켰다.

체육회 우수선수에 김정국

체육회가 선정한 1980년도 우수선수(태권도부문)에 웰터급의 김정국선수가 선발되었다.

프로 태권도 시합

4,5년전부터 태권도계 일각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태권도 「프로」화의 움직임은 지난해 6월 문교부에 정식경기단체로 등록한 후 서울 부산 등 5개시·도지부를 결성, 각 지부에서 예선

전을 거친 2명의 선수들이 실력으로 「랭킹」을 정한뒤 3월 22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참피언」결정전을 갖게 되었다.

이날 첫선을 보인 「프로」태권도 선수들은 전통적인 태권도복에 머리에는 「헤드기어」를 쓰고 주먹과 발에는 「스폰지」를 댄 가죽장갑과 구두를 신고 뛰었다.

시합은 「아마추어」와 달리 대부분 KO로써 승패가 가려졌다.

페더급 金學俊(부산 은성산업)은 랭킹전 1회전에서 崔錦영을 4라운드 KO로, 2회전에서 郭양순(대구대명)을 1라운드에서 KO시켜 「랭킹」1위에 올라 이날 사상관을 이겨서 「참피언」이 되고 3백만원의 대전료를 받았다.

태권도가 「프로」화에 성공한다면 「아마추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활로를 열어 주고 「프로」선수를 겨냥하는 성인수련증을 형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선도장의 운영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면에서 세계 태권도의 본산인 국가원의 지휘에 따라야 단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수련생에 段證

金雲龍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는 13일 국가원을 예방한 「오스트리아」의 태권도 수련생 「피커·클라우스」씨에 2단증을 수여하는 한편 李京明사범(오스트리아태권도협회 기술지도위원장)에게 표창장을 주었다.

豊生高 태권도팀 필리핀과

친선경기

豊生高(京畿城南市) 태권도 선수단 9명(임원 2 선수 7)은 泰國과 「필리핀」에서 친선경기를 갖기위해 19일 출국

태권도의 교고단일 「팀」 해외원정은 이번이 처음인데 豊生高「팀」은 25일 「방콕」, 27일 「마

넬라」에서 경기를 했다.

◇선수단명단 △단장=홍사홍 △감독=강선장
△선수=강승우 이경배 엄정용 염관수 윤성갑
홍재관 김우중

세계태권도 연맹

ICSPE에 加入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스포츠체육의회(ICSPE)에 1백19번째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19일 세계태권도연맹에 따르면 英國「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SPE에는 정부기구, 세계스포츠연맹, 교육기관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스포츠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정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스포츠의 과학적 연구개발 및 「유네스코」와의 협조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세계태권도 연맹은 지난 75년 10월 국제경기연맹(GAISEF)에 가입한 이래 76년에는 국제군인선수권대회(CISM)에 가입했으며 80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83차 국제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

國際 體育聯 발족

—韓國・中共・英國 등 42國 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맞서 국제스포츠계의 정치색 배제를 목적으로 2년전 설립이 합의된 새로운 범세계 스포츠단체인 국제체육연맹총회(IANCS)가 26일 5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멜보른」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발족했다

韓國과 美國 中共 濠洲 英國 등 42개국 이 창립 회원이 된 IANCS는 이날 「엘리자베트」 英國여왕의 부군, 「에딘버러」 공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대회인 濠洲대회에서 濠洲의 前「테니스」선수 「웨인」·「레이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 IOC에 맞서는 강력한 국제스포츠 기구로 출범했는 데 많은 전문가들은 IANCS가 장차 IOC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력을 국제스포츠계에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나이티드 월드社 태권도

映畫 촬영

교포영화회사인 「유나이티드 월드·프로덕션」(대표 헨리차)은 2월 20일부터 「스페인」의 「호세·크라류도 프로덕션」과 손을 잡고 태권도를 주제로한 영화 「용을 죽여라」를 촬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 「로케」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으로 떠나기 앞서 약 10일간 「로스앤젤레스」 「한국타운」에서 촬영을 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에 유럽과 동남아에서 상영될 이 영화는 「인터폴」(국제경찰기구)과 한국의 태권도사범이 공동으로 국제 마약밀매단을 일망타진한다는 줄거리다.

감독은 과거 한국에서 태권도등의 「액션」물을 여러번 연출한 바 있는 박우상씨(38 리처드 차)씨는 27세대 영화에 「태위」, 「맹인 대협객」이란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차씨는 5년전에 도미, 「세인트 루이스」에서 도장을 경영한 경험을 살려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주연은 태권도와 합기도 6단의 강대회(30·페이비드 강). 이미 「무장해제」라는 영화에 출연, 솜씨를 보여 준 바 있어 이번에도 좋은 연기가 기대되고 있다.

LA五輪 조직위 임원

소니아 石여사

LA 시민권자 협회, 독신클럽, 신허민회 회장이며 또 LA시의 자문위원, 주택위원회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소니아 석 여사는 재미동포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인 거물 실업가이다.

여사는 LA올림픽경기에 태권도 시범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태권도지 十年의 歷史

본 란은 태권도지 창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 하였다. 태권도지는 1971년 4월 15일 태권도인들의 태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새롭고 산 지식의 전달과 양식의 거울로 삼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창간되었다.

창간 10년을 맞은 계간 태권도지는 그간 37호가 발간 되었으며 세계 100여개국의 1,000만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과 태권도 이론 및 실기의 기술향상 및 지도·보급을 위한 명실상부한 전문기관지로서 성장하였다.

이에 10년의 역사와 더불어 태권도지가 걸어온 발자취와 태권도계의 변천 과정을 화보 형식으로 살펴 본다.



김운용 태권도협회장취임(1. 17)

1971

태권도의 國技化 선언(3. 20)



태권도지 제 1호 발간(4. 15)

국기래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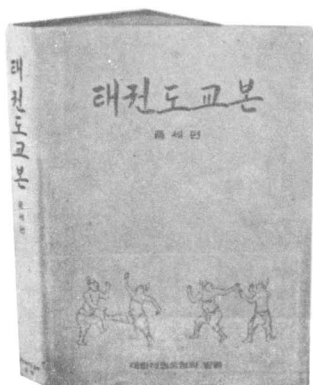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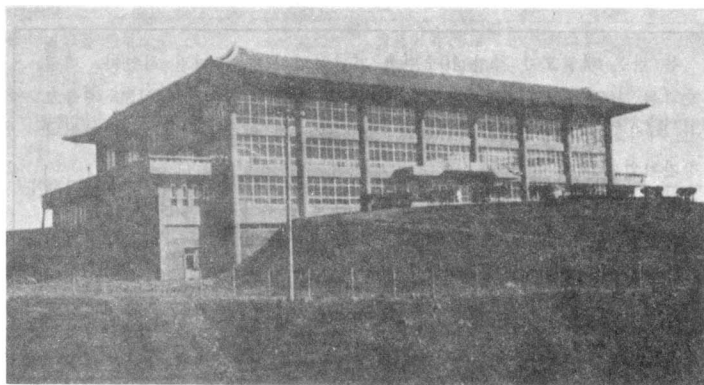
1971년 3월 20일

대통령 박정희

"A NATIONAL SPORT, TAEKWONDO"

A scroll written and given by H.E. President

宿願! 태권도 중앙도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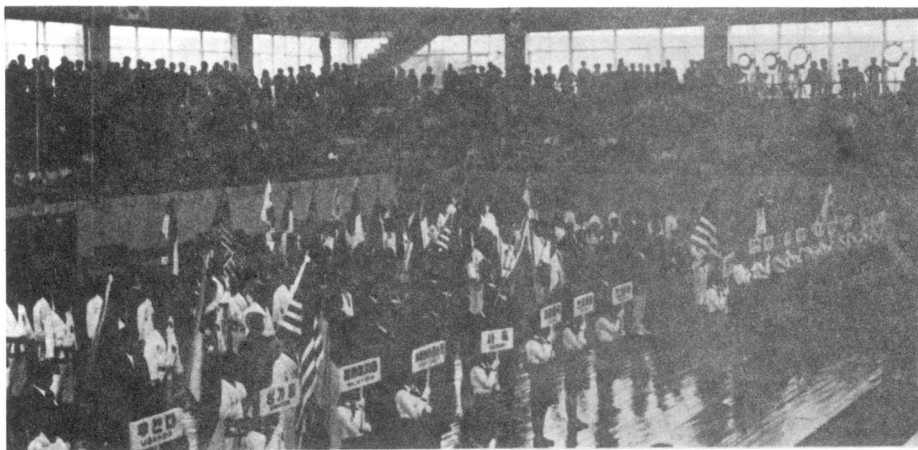
태권도교본 발간 (12. 1)

1972

기술심의회 발족(좌, 3. 1)과 지도자 강습회(우, 4. 4~6)



제 1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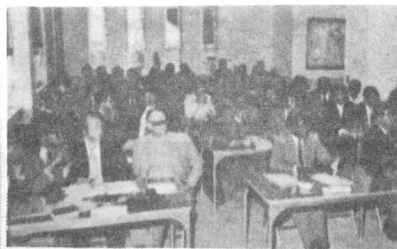


승단심사의 단일화 국기원 원장명의로 단증 발급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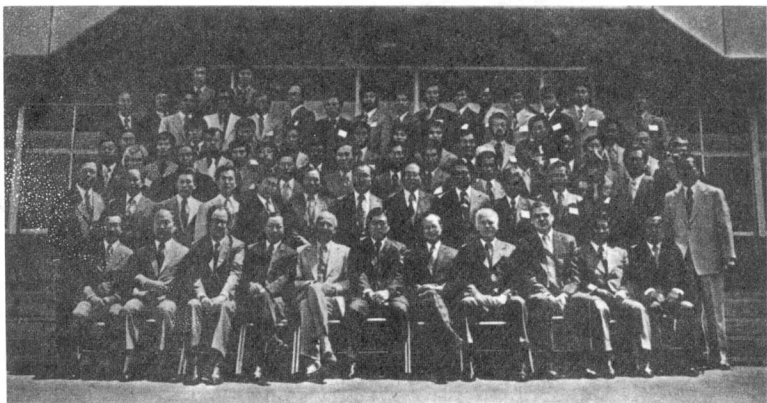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창립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 창립
한국 국교태권도연맹 창립

세계태권도연맹 창설(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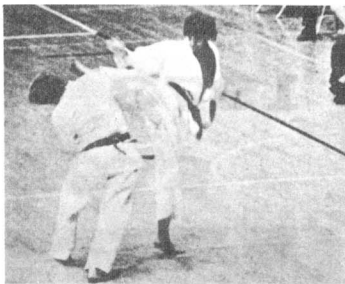
제 1 회 국제심판강습회

(5. 15, 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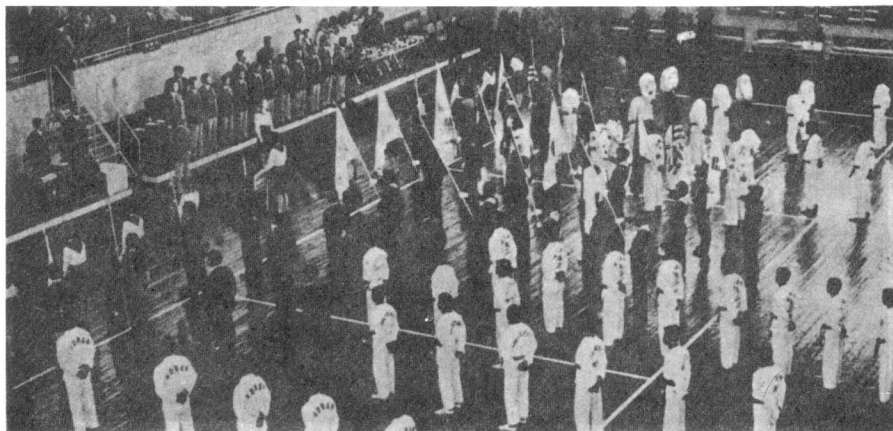


미국체육회
경기종목으
로 채택
(5. 7)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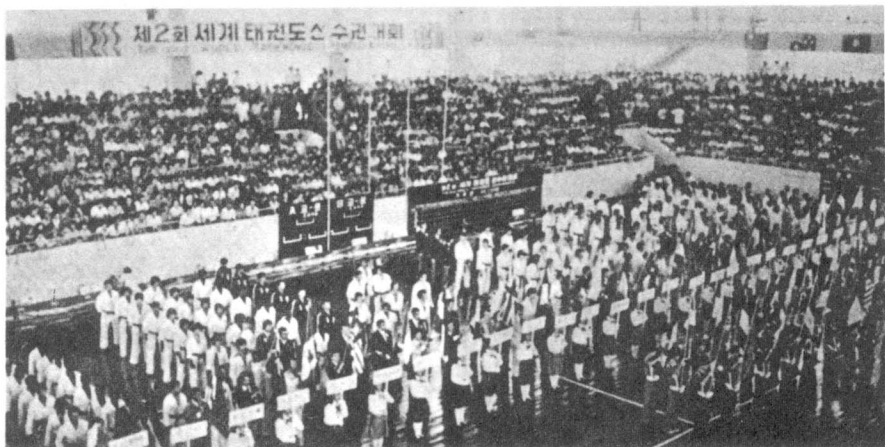


제 1 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 대회 (10. 18~20, 국기원)



제 2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8.28~30. 국기원, 장충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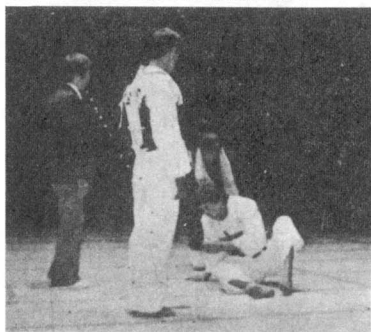


제럴드 포드 미대통령
방한중 태권도 관람

1975

한국대표선수단 유럽원정

(서독,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5.20~6.11)



1975. 10. 5 국제경기연맹(GAISF)에 태권도 가입승인



김윤용총재 미국 미조리주 매리벨리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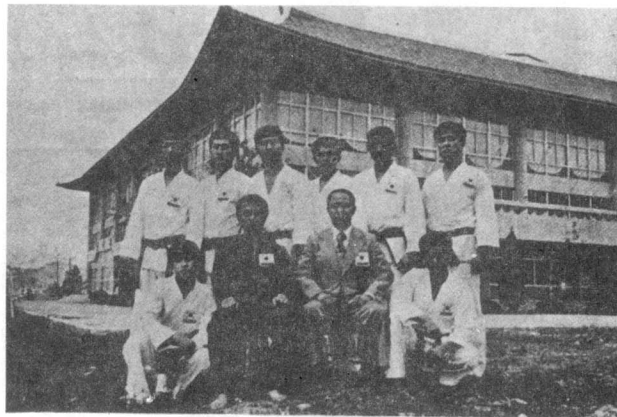
김윤용총재 몬트리올 올림픽 한국 회의대표로 참석(8. 1~20)



무하마드 알리 태권도입단

1976

제 2회 아시아 선수권대회(10. 16~17, 호주, 멜보른)



국제군인체육대회에 태권도경기종목채택(4. 9)

유럽태권도연맹창설검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개최(5. 21~23)



제 3 회 세계선수권대회대표팀, 대통령초청 다과회(9. 15~17, 미국, 시카고)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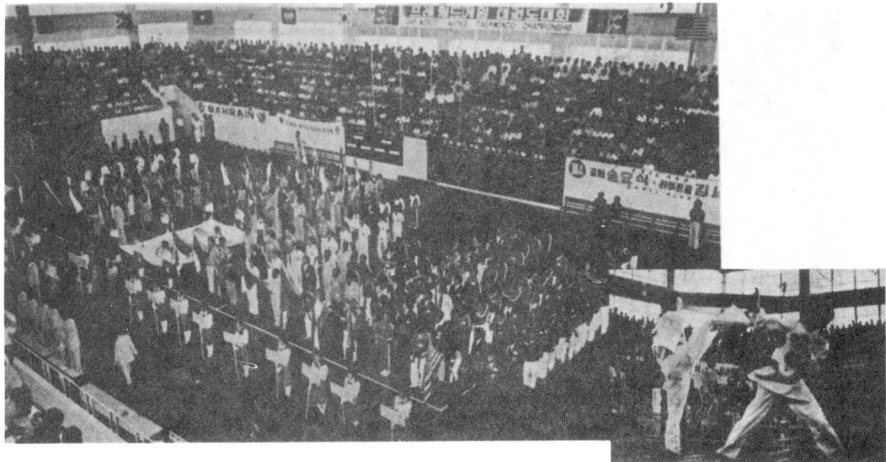
선수권대회 경기장면

세계태권도연맹 제 3 차총회(9. 14, 시카고 힐튼호텔)



태권도인의 밤(11. 30, 대한체육회강당)





프레월드게임태권도대회 (6.30~7.2, 국기원)

1978



우승한 한국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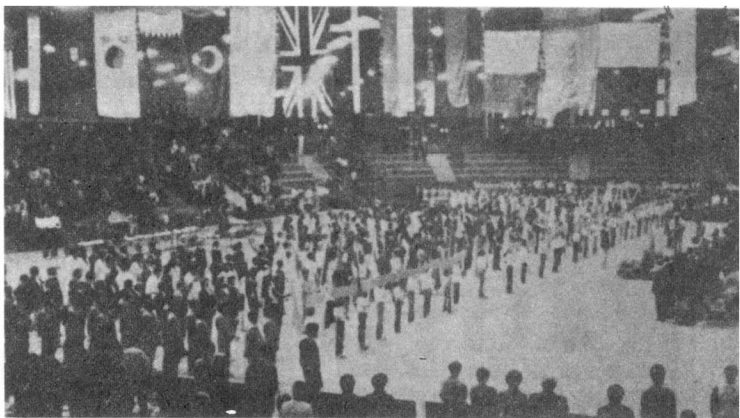
제3회 아시아 선수권대회(9. 8~11, 홍콩 구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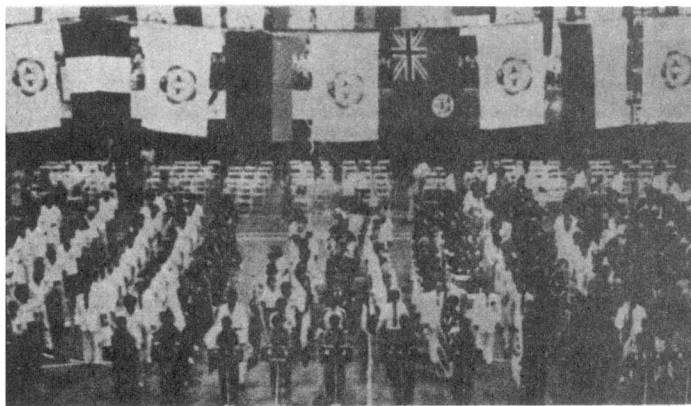
제1회 PAN-AM 태권도 선수권대회
(10. 19~23, 멕시코시티)

제2회 유럽태권도 선수권대회
(10. 20~22, 뮌헨)

관통합 ≡ 태권도계의 총화단결(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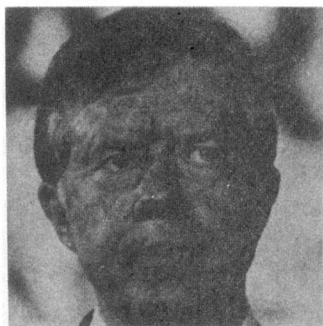
제 4 회세계선수권대회 (10. 26~28, 슈트트가르트)



1979

국제초청 태권도 대회
(7. 14~16, 대만, 대북)

지미 카터 미국대통령 미국태권도대회에
메세지전달(4. 3. 7. 2)



김운용총재 비올림픽종목 경기연맹(NOF) 회장에 피선(10. 20)

비올림픽 경기연맹 총회

(5. 19~22. 서울)



1980



제 1회 국제 군인태권도
선수권대회

(11. 1~3, 장충체육관)



제 4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1. 14~16, 대만, 태복)

태권도 종목 I.O.C 총회 승인 및 세계태권도연맹 공인 자축연





태권도지 창간 10주년 그간의 발자취



'71. 김운용 회장 취임
태권도지 창간호 발간
태권도 국기화 선언



'73. 제 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WTF)
세계 태권도 연맹 창설



'72. 국기원 개관
태권도 교본 발간



'74. 제 1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75. 제2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포드 미 대통령 태권도 시범 관람
(죽한 미 제2사단)
국제 경기연맹 가입



'79. 김운용 회장 비올림픽
중국 경기연맹 회장에 피선 (N.O.F)
제4회 세계대회 (서독 슈트 가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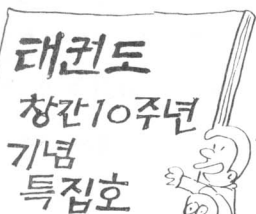
'76. 무하마드 알리
국기원 방문 시범
관람 (도복 입고)
국제 군인 체육대회
종목 채택



'80. 태권도 종목 올림픽 총회
승인 (모스크바
I.O.C 83차총회)
국제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장
중체)



'77. 태권도인의
밤 개회 제3회 세계 대회
(미국 시카고)



'81. 태권도지 창간 10주년.
김운용 총재 취임 10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



78. 프레 월드 게임
(국기원)
관 통합 → 태권도계의 총화단결



태권도를 찾은 외국 귀빈

—태권도지에 개재된 인사들—

1971

(1호) 아이보리코스트: 미셸 부르시에씨, 르네 보빌씨(2인)(태권도 수련차 내한)
이란(왕경호관): 알리 샤버지 씨, 하산자르둠페노, 씨(2인)

(2호) 주한영국대사관: (문정관)존 고여씨

(6호) 말레이시아 태권도협회장: 나자루딘씨
자유중국 三軍大學 부총장: 장위국
장

(9호) 17개국대표 저명인사참석: 세계태권도
연맹 창설

(10호) 자유중국 육전대 사령관: 호엔팅 중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보브 모
레티의장
멕시코 태권도 협회장: 마누엘 몬드라
곤 회장

토고 공화국 보건장관: 자팔로씨

(12호) 미국 체육회장: 리베네스씨
한미재단 총재: 윌리엄 디 로저스 총재
이란 노빈당 원내총무: 모스타파 의원

(13호)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레오·바그너
씨

(14호) 자유중국 C.O.C부위원장: 沈家銘씨
사바 국방상: 하지·아스칸씨
미국 언론인: 잭·앤머슨씨

(15호) 미국하원의원: 존·M.머피씨(75. 4)

(16호) 한미재단이사장: 디마코씨
국제 아마츄어 복싱연맹 부회장겸
사무총장: 안와르—초드리씨

(17호) G.A.I.S.F 사무총장: 오스카 스테이트
씨(1975년)

국제기자협회 사무총장: 보비 나이두
씨(1975)

미올림픽위원장: 필립·오·클렘씨

(1975)

자유중국태권도협회장: 袁國徵씨

(1975)

스페인태권도협회장: 안토니오씨

(1975)

주한 불란서대사: 탠더씨(1975)

(19호) 국제군인체육회 사무총장: Raoul
Mollet씨 '76

브라질 국제군인체육 대표팀 단장: 디
스 대령 '76

스웨덴 국제군인체육 대표팀 단장: 페
이론장군 '76

미국 국제군인체육 대표팀 단장: 스미
스 장군 '76

프랑스 국제군인체육 대표팀 단장: 아
스트룩 장군 '76

스페인 국제군인체육 대표팀 단장: 이
스트반 장군 '76

레소토 공화국 체신장관: 모하레씨
(1976. 4. 28)

한미재단 부총재: 마이레스 K. 렌씨
(76. 5. 17)

오스트리아 황태자비: 아르듀크·어포
본·합스부르크 여사(76. 5. 17)

뉴욕타임즈 외신부 차장부처: 에머슨,
샤핀 부처(76. 3. 18)

(20호) 미국권투선수: 무하메드·알리씨(76년)
가봉공화국 국회의장: 폴·공주씨
(76년)

미국 블랙벨트 폴·윌리엄·크롤 편집
인

필리핀 체조협회 회장: 마르코스·바
바여사(76. 10. 7)

(21호) 존 스타우보 노르웨이I.O.C위원

- (22호) 미체육회 부회장~조시아*웬스씨(1977)
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존·디켈리
부처('77)
인도네시아 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
('77)
오스카 스테이트 월드게임 실행위원
('77)
- (23, 24호) 미국 소프트볼 사무총장~돈포터씨
(1977)
호주 부수상, 서독 하원 부의장('77)
- (25호) 국제 역도연맹회장 및 사무총장(78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78)
- (26호) 국제 탁구연맹회장~에반스씨(78년)
주한 외교사절 단장~티로나 대사
고사시 인도네시아 체육회 부회장, 샘
제임슨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동경지국
장
- (27, 28호) 요르단 왕국 왕자~빈·탈탈 왕자
(78년)
- (29호) 도미니카 상토 도밍고 시장 고문~후
랑 리아도박사(79년)
주한 미 2사단장 부처
영국 무술연맹회장 및 사무총장
('79)
- (30호) 폴란드 코나르스키씨(79년)

- 호주 스포츠장관~케시씨('79)
멕시코 퀘테타로 주지사~안토니오씨
- (33호) 전 미국체육회장~현 국제 국제테스링
연맹~조셉스칼조씨(1980년)
유럽공수도 연맹회장겸 월드게임 평의
원~크 텔쿠르씨
구라파무도연맹 사무총장겸 스웨덴 태
권도 협회장~폴 호그란드씨
주한 불란서대사~Remy Teisserde
Cros씨(80. 2. 1)
국제야구 연맹부회장~Carlos Garcia
(80. 1. 27)
- (34호) 국제 올림픽 위원장~루이 기란두
엔디아예씨(80년)
케냐 국극무장관~고든 플레이 기타우
키씨('80)
미국 텍사스대학 체육과장~스피르 두
소씨
1980년도 미스 유니버스~노르웨이,
잉글랜드, 스코트랜드의 미녀
- (36호) 멕시코 국영석유공사 총재~세라노씨
(81년)
프랑스 사진기자단, 나이지리아 경제
사절단, 잭앤머슨(컬럼니스트) 군인체
육대회 태권도팀 대표

祝

창간 10주년

경기공업전문대학 학 장 홍 순 철

체 육 고 등 학 교 교 장 손 종 목

한 영 중 학 교 교 장 이 조 영

Visitors of Foreign V.I.P

Vol. 6 '1972

- Mr. W.K. Chiang, a Lieut. general of the Republic of China.
- Lieut. general Nazaruddin, the Chief of Staff Malaysian Army.

Vol. 9 '1973

- The 17 nation's representative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 Mr. Mass Oyama, a Korean resident in Japan and Mr. Kuchi Eri, director of the Japanese Karate Federation and Mr. Fuji Ki, director of the Jap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Vol. 10 '1973

- Lieut. general Ho En-ting, Chinese marine corps commandant.
- Mr. Bob Morretti, the chairman of assembly house of the state California.
- Mr. Manuel Mondragony, president of the Mexican Taekwondo Association.
- Mr. Albert Djafalo Alidou, Togo Minister of the Health & Social affairs

Vol. 12 '1974

- Mr. David G. Rivenes, president of the A.A.U.
- Mr. William D. Rogers, president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 Excellency Pierre Landy, Ambassador of France in Korea.
- Senator, Mustafa the majority leader of Novin Party of Iran

Vol. 13 '1974

- Mr. Leo Wagner, vice president of the W. T.F. Oh Ying Teh, Ambassador of Republic of China in Korea.

Vol. 14 '1974

- Mr. Chihat Uskan, the president of Turkey Taekwondo Association

- Columnist Jack Anderson

Vol. 15 '1975

- John M. Murphy, executive member of the W.T.F and a congressman of the U.S.A.

Vol. 16 '1975

- Dr. Roland De Marco, chairman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 Vice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And-war Chowdhry of the International Amateur Boxing Federation.

Vol. 17 '1975

- Mr. Oscar State, secretary general of the GAISF,
- Mr. Philip O. Krumm, chairman of the U. S.O.C
- General Yuan Kuo-Cheng, president of Republic of China Taekwondo Association.
- Mr. Antonio Garcia de la Fuente, president of Spain Taekwondo Association.
- The U.S. Congressional Korean War Veterans Delegation.

Vol. 19 '1976

- 17 members the CISM executive committee
- Mr. Albert Steerforth Mohale, Communication Minister of the Lesotho. Kingdom
- Mr. Myles K. Ren, vice president of American-Korean Foundation.
- Gen. Yuan Kuo Cheng, president of Republic of China Taekwondo Association.
- Crown princess of Austria Arohduke Offo von Habsburg.
- Mr. Emerson Chapin, overseas dispatch of the New York Times

Vol. 20 '1976

- Muhammad Ali, the heavy weight boxing champion.
- Mr. Paul Marie Gondjout, National Assembly Speaker of Gabon

○Mr. Paul William Kroll., the editor of the Black Belt

○Mrs. Fortuna Marcos Barba, the Republic of Philippine Association of Gymnastics.

Vol. 21 '1977

○Hon Jan Staubo, Norwegian IOC member

Vol. 22 '1977

○Mr. Josian Henson, vice president of the A.A.U

○Mr. John D. Kelley, vice chairman of the U.S.O.C.

○Mr. Soeworo, Secretary General of Indonesian Olympic Committee

○Mr. John Teboho Kurenin,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of the Kingdom, Lesotho

○Mr. Oscar State, chairman of executive committee of World Game I.

Vol. 23, 24 '1977

○Australian Vice-Premier J.D. Anthony

○Mr. Don Porter, Secretary-General of the U.S.A. Softball Association.

○Hon. Hermany Schmitt Vocken Hausen, Vice-Speaker of the W/Germany National Assembly.

○Mr. Gottfried Schodl(Austrian),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

○Mr. Tamas Ajan(Hungarian), secretary general of the I.W.F.

Vol. 25 '1977

○Bandar Bin Sultan, Prince of Saudi Arabia

Vol. 26 '1978

○President of I.T.T.F. Roy Evans

○Ambassador Tirona, Dean of Diplomatic Corps in Korea.

○General Kosasih, vice-president of the Indonesian Sports Association

○Mr. Sam Jameson, manager of Tokyo branch of the Los Angeles Times.

Vol. 27, 28 '1978

○Prince Mohammed Bin Talal of Jordan

Vol. 29 '1979

○David E. Grange Jr., commanding general of the 2nd U.S. Infantry Division in Korea

○Mr. Arther Rees, president & Mr. David Mitchell, secretary general of the British Martial Art Commission.

○Mr. Paul Hoglund, secretary general of the European Karate Union.

○Dr. Juan Liado, advisor for Santo Domingo mayor of Dominica.

Vol. 30 '1979

○Mr. Konarsky, a member of the Polish Taekwondo Association.

○Mr. Calzada, Governor of Quertaro of Mexico.

○Mr. Casey, Minister of Sports, Australia.

Vol. 33 '1980

○Mr. Joseph Scalzo, executive member of the F.I.W.A.

○Mr. Jacques Delcourt, president of the European Karate Union and Member of the World Game.

○Mr. Paul G. Hoglund, secretary general of the European Martial Arts' Union and president of the Sweden TKD Association.

○Mr. Donald E. Poter,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Game

○Mr. Remy Teissier de Cros, Ambassador of France in Korea

○Mr. Carlos Garcia,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Baseball Federation

Vol. 34 '1980

○Mr. Louis Guranduo-N'diaye, vice president of the I.O.C.

○Mr. Godfrey Githai Kariuki, the Minister for Department of State, Kenya.

○Professor Waneen Wyrick Spirduso, of Texas University.

○Miss Norway Maiken Lielsen, Miss England Julie Duckworth, and Miss Scotland Linda Gallagher, in Seoul to took part in the 1980 Miss Universe Beauty Pageant.

Vol. 36 '1980

○Mr. Jorrge Diag Serrano, president of Mexico Pemex.

○Mr. Jack Anderson, the famous columnist.

○The representatives of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The team of French photo journalist.

○The team of Economy Mission of Nyzeria.

10년간 태권도인 체육훈장 및 표창 수상자

성 명	재 직 시 직 위	년도	포상종류
김운용	회 장	1971	황조근정훈장
		'74	체육상
		'79	맹 호 장
이병로	제 2 회 세계대회	'75	기 름 장
	단 장		
이영근	감 독		"
김용휘	코 취		"
고의민	"		"
황용수	선 수		"
한유근	"		"
손태환	"		"
이계승	"		"
유영환	"		"
허 송	"		"
양영관	"		"
최정도	"		"
이교운	제 3 회 세계대회	'77	백 마 장
	단 장		
박병오	감 독		"
고의민	코 취		"
정만순	트레이너		"
여성기	선 수		"
하석광	"		"
김종기	"		"
박정호	"		"
최재천	"		기 름 장
유영환	"		백 마 장
허 송	선 수		"

성 명	재 직 시 직 위	년도	포상종류
안장식	"		백 마 장
배영기	제 4 회 세계대회	'79	"
	단 장		
최남도	감 독		"
김길성	코 우 치		"
이승형	선 수		거 상 장
양기모	"		"
김종기	"		"
임대택	"		"
박오성	"		"
김무천	"		기 름 장
박정호	"		백 마 장
김상천	"		거 상 장
정 찬	"		"
강원식	제 4 회 아시아대회	'80	대통령표창
	회의대표		
윤지영	코 취		기 름 장
최영렬	트레이너		대통령포상
이진우	선 수		기 름 장
최승룡	"		"
이준걸	"		"
김영국	"		"
김정국	"		"
오일남	선 수	'80	기 름 장
조남계	"		"
강용구	"		"

태권도 가족이 되고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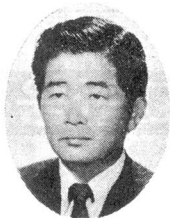
먼저 國內·外 跆拳道人 여러분께 本人이 國技跆拳道 家族의 한 사람으로 籍을 두게 된 것을 榮光스럽게 여기면서 紙面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本人은 오랜 公職生活을 통해서 跆拳道人 여러분이 國技의 保存과 發展을 爲하여, 어려운 環境속에서도 心血을 기울려 獻身하여 오신 國民의 努力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는 천수백명이 넘는 海外 師範들의 活動을 통하여, 海外에서 우리나라 國旗아래, 우리 말로 Korean Taekwondo를 普及하게 되었으며, 그 強靱한 跆拳道 精神을 통한 底邊擴大 努力은 國威宣揚에 크고도 빛나는 業績을 남기게 되었음은 自他가 公認하고 있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 機關誌의 한 구석을 빌어 衷心으로 跆拳道人 여러분의 活動에 敬意를 表하고자 합니다.

특히 金雲龍總裁님을 비롯한 跆拳道人 여러분의 愛國의 國際活動은 及其也는 跆拳道를 國際競技聯監(GAISF)의 加盟競技種目으로 國際舞臺에서 公認을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國際 올림픽委員會(IOC)의 公式 認定을 받는 Sport로 格上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나라 歷史에 永遠히 記憶되어야 할 成就였으며 모든 跆拳道人의 자람이며 國民의인 矜持임이 分明한 것입니다.

올해 1981년은 이미 서울, 「시카고」(美國), 「슈트트가르트」(西獨)에서 開催된 世界跆拳道大會에 이어서 第5回 世界大會가 「멕시코」에서 102個國 選手들이 太極旗의 깃발 아래 開催된 해 일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國際競技聯盟의 非올림픽競技種目 團體(NOF)의 World Games I 이 美國 Santa Clara市에서 開催되는 해입니다. 특히 世界跆拳道聯盟의 總裁가 同大會 會長이 되어 14個競技種目的 國際競技를 主導할 것이며 韓國을 비롯한 世界各國의 代表選手들이 모여 雌雄을 겨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韓國人으로서 너무도 자랑스러운 일이며 跆拳道人으로서 더욱 喜悅한 快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裨 鍾 浩
世界跆拳道聯盟事務總長서리

이와 같은 環境속에 不肖 本人이 世界聯盟 事務總長의 任務를 맡게됨에 있어서 그 責任이 重大하다는 것을 切感케 하는 바이며, 果然 이 微力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으로 貢獻할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疑問케 하고 있는 것이 率直한 本人의 心情입니다. 그러나 또 이 任務가 單純한 跆拳道라는 武道나 Sport라는 次元에서 國家의 名譽와 國威의 宣揚이라는 次元으로 昇華되어야 한다는 課題를 앞에 놓고 볼 때, 어떤 個人的 願不願을 超越해서, 온 國民의 國家의 支援과 責任을 隨伴해야 한다는 點에서 조금도 서슴치 않고 國民의인 召命으로 여기며 獻身하여야 한다는 覺悟가 뒷따르고 있음 또한 正直한 心情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本人은 이미 先輩여러분들이 構築해 놓은 이 빛나는 業績을 더디고

첫째로 : 跆拳道의 宗主國으로서의 事務局 體制를 整備하고, 人種과 國境을 超越하여 全世界의 跆拳道人이 우러러 보고, 信仰하는 跆拳道의 MECCA로서 驛三洞 언덕을 빛내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으며,

둘째로는 : 恒時 무엇을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 世界人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存在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고,

세째로는 : 그렇게 함으로서 國際의인 立場에서 “우리의 것”을 더욱 무게있게 빛내게 하며 “우리의 것”을 위하여, 大義를 爲하여, 小我를 犧牲하며 讓步하며 大韓民國이요 跆拳道라는 大義에 “한 뭉치”가 되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跆拳道人 여러분 !

本人은 여러분 隊列 제일 끝에서 謙虛한 마음 가짐으로 여러분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跆拳道家族의 한 사람으로서 그 矜持를 가지고 일해 나갈 것을 約束하며, 여러분에게도 그 矜持, 누구에게나 當當히 對處할 수 있는 矜持를 가지자고 呼籲합니다.

感謝합니다.

고단응심자 의식구조분석

國技院 研究室

1. 배경설명

1. 研究室에서는 '80年 12月 및 '81年 2月에 實施된 五段 以上 應審者 83名의 意見書(題目: 저변확대방안; 특히 성인인구 감소·인구유출 中心으로)를 分析하여 跆拳道가 當面한 課題가 무엇인가를 把握하고 政策樹立에 反映하도록 건의했다.

2. 여기에 要約된 高段者들의 多様な 諸意見を, 跆拳道界 内部에 關한 要因과 跆拳道界 外의 事項들로 分類하여 圓型그라프로 圖式化했으며 그 中 內의 諸要因은 다시 四個 分野로 나누어서 部門別로 細部事項을 柱型그라프로 표시하여 相互比較하도록 했다.

2. 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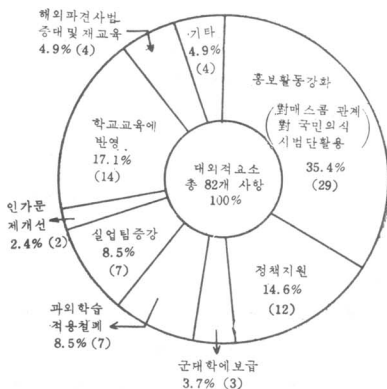
1. 대외적 요소

가. 고단자들이 提示한 對外的 요소는 총 82個로써 具體的 해결방안 보다는 추상적이며 原則論的인 方向제시에 치우친 感이 있다.

나. 총82개 項目중 홍보활동 강화가 35.4%의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지원, 과의학습 적용철폐, 학교 교육에 반영, 인가문제 개선 등으로 42.6%를 점유하므로써 태권도의 고단자들이 정책적 뒷바침을 갈구하는 정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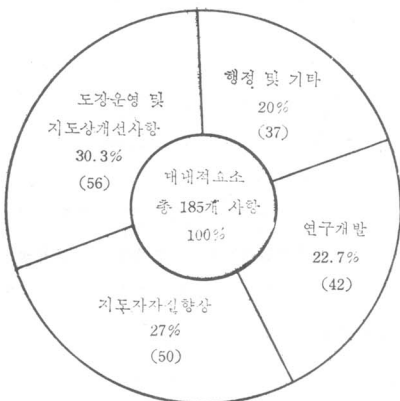
라. 기타 의견으로는 實業팀 증강 8.5%, 군·대학에 보급활동 3.7%, 해외 파견사범 증대 및 재교육이 4.9%를 점하고 있다.



2. 대내적 요소

가. 개요

(1) 對內的 요소는 그 提示 項目이 너무 多種



이어서 크게 指導者 資質向上, 研究·開發, 도장운영 및 指導上改善, 行政 및 其他分野로 單純化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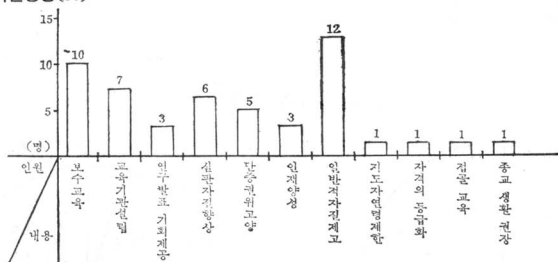
- (2) 총 185개 요소에서 도장운영 및 지도상 개선분야가 30.3%로 首位를 점하였으며 지도자 자질 向上 分野 27%, 연구개발분야 22.7% 행정및 기타분야 20%로 나타났다
(3) 特記 事項으로는 高段者들 自身이 該當

되는 도장운영 및 지도방법과 자질문제에 關한 문제의식이 57.3%라는 절대다수로 나타난 點이며 결국 태권도 內의인 저변 확대 방안은 高段者 자신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에 左右된다고 볼수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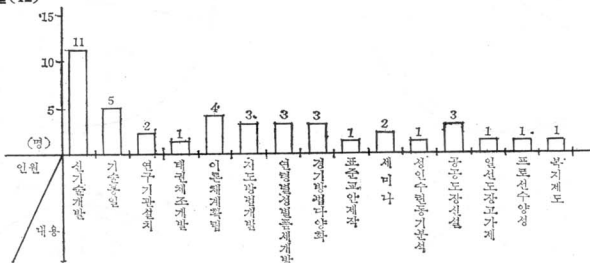
- (4) 對內的 要素의 各 分野別 細部 比較는 다음 柱型그래프와 같다.

나. 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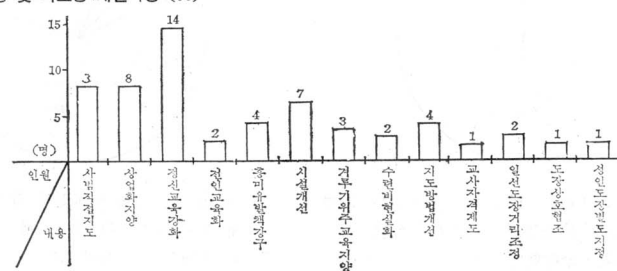
(1) 지도자 자질향상(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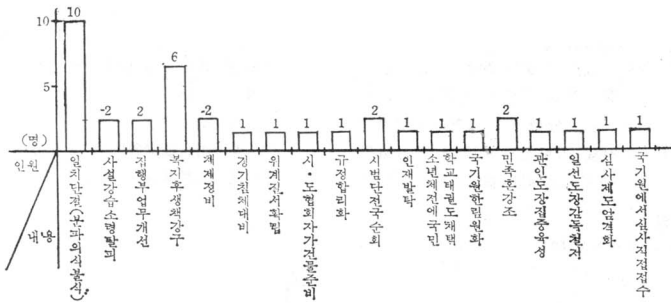
(2) 연구개발(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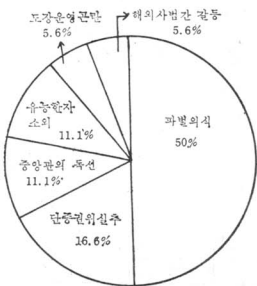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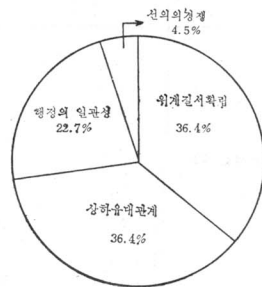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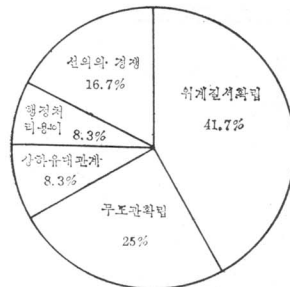
(3) 도장운영 및 지도상 개선사항 (56)



(4) 행정 및 기타(37)



구 관체제의 장단점



上記 도표는 1980년 12월 6, 7단 응시자 34명이 舊 館體制의 長 短點에 對하여 記述한 것을 類型別로 整理·分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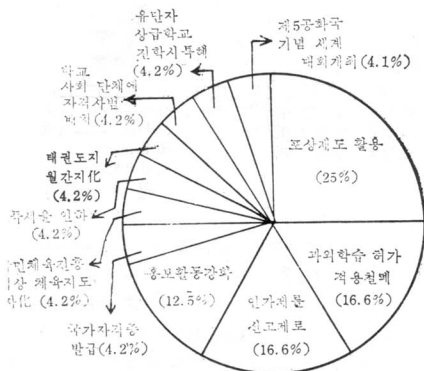
1. 七段 응시자는 위계질서 확립에 이어 무도관 확립, 선의의 경쟁, 행정처리 용이, 상하 유대관계의 順이었다, 六段應者는 위

—◇태권도연구◇—

제질서확립과 상·하 유대관계를 같은 比重으로 언급했으며 행정의 일관성, 선의의 경쟁 順으로 館體制의 長點을 열거했다.

2. 短點에 對한 것으로는 七段이 파별의식, 단증 권위 실추, 중앙관의 독선, 유능한자소의, 도장운영 곤란, 해외사법간의 갈등의 順이었으며 六段은 파별의식, 협회 업무상 혼란 야기, 기술상 혼란, 심사문제, 단증 권위 실추, 보급상의 폐단의 順이었다.
3. 舊 館體制에 對한 최대장점은 6,7단 공히 위계질서 확립으로, 최대단점은 6,7단 공히 파별의식으로 나타났다.
4. 결론적으로 고단응심자의 의식은 파별의식

1. 개 요



을 불식하면서 태권도인의 상하 위계질서를 확립하도록 바라고 있음을 알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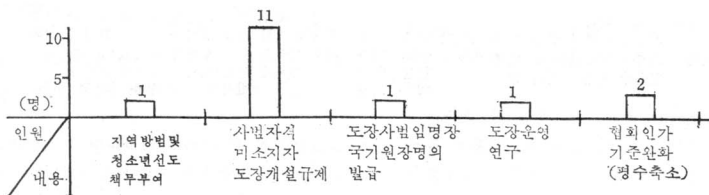
3급 심판 보수 교육자 건의사항

일시 : 1981년 3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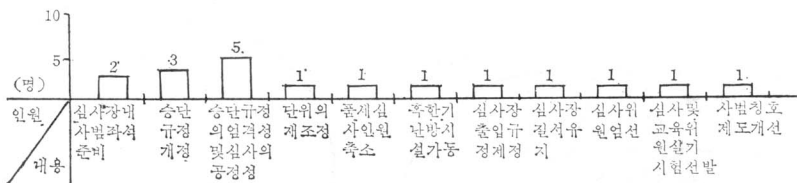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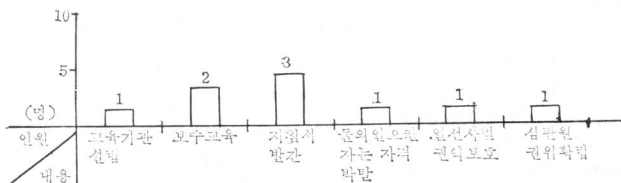
인원 : 21명

說明 : 研究室에서는 '81年 3月 7日 國技院에서 있었던 審判補修教育의 參加者 21名을 대상으로 無作為 抽樣形式으로 건의사항을 받았다.

다음은 建議文을 提出한 21名의 主要 건의사항을 발췌하여 圖表로 나타낸 것이다.



2. 부문별



고단응심자 의식구조분석

國技院 研究室

1. 배경설명

1. 研究室에서는 '80年 12月 및 '81年 2月에 實施된 五段 以上 應審者 83名의 意見書(題目: 저변확대방안; 특히 성인인구 감소·인구유를 中心으로)를 分析하여 跆拳道가 當面한 課題가 무엇인가를 把握하고 政策樹立에 反映하도록 건의했다.

2. 여기에 要約된 高段者들의 多様な 諸意見を, 跆拳道界 内部에 關한 要因과 跆拳道界 外의 事項들로 分類하여 圓型그라프로 圖式化했으며 그 中 內의 諸要因은 다시 四個 分野로 나누어서 部門別로 細部事項을 柱型그라프로 표시하여 相互比較하도록 했다.

2. 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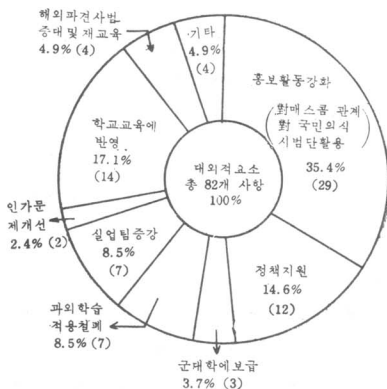
1. 대외적 요소

가. 고단자들이 提示한 對外的 요소는 총 82個로써 具體的 해결방안 보다는 추상적이며 原則論的인 方向제시에 치우친 感이 있다.

나. 총82개 項目중 홍보활동 강화가 35.4%의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지원, 과의학습 적용철폐, 학교 교육에 반영, 인가문제 개선 등으로 42.6%를 점유하므로써 태권도의 고단자들이 정책적 뒷바침을 갈구하는 정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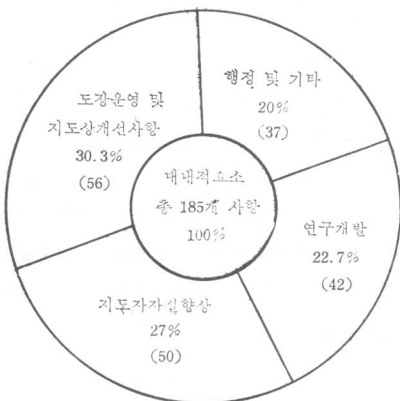
라. 기타 의견으로는 實業팀 증강 8.5%, 군·대학에 보급활동 3.7%, 해외 파견사범 증대 및 재교육이 4.9%를 점하고 있다.



2. 대내적 요소

가. 개요

(1) 對內的 요소는 그 提示 項目이 너무 多種



이어서 크게 指導者 資質向上, 研究·開發, 도장운영 및 指導上改善, 行政 및 其他分野로 單純化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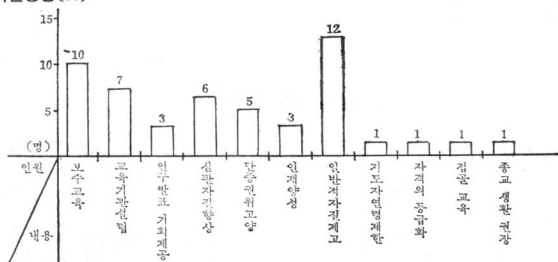
- (2) 총 185개 요소에서 도장운영 및 지도상 개선분야가 30.3%로 首位를 점하였으며 지도자 자질 向上 分野 27%, 연구개발분야 22.7% 행정및 기타분야 20%로 나타났다
(3) 特記事項으로는 高段者들 自身이 該當

되는 도장운영 및 지도방법과 자질문제에 關한 문제의식이 57.3%라는 절대다수로 나타난 點이며 결국 태권도 內의인 저변 확대 방안은 高段者 자신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에 左右된다고 볼수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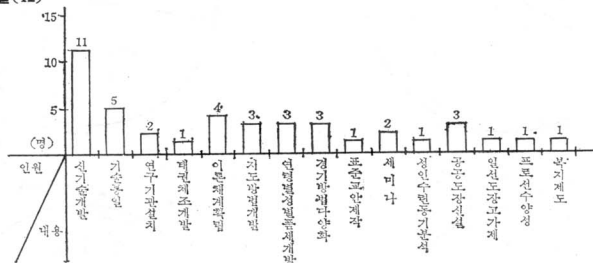
- (4) 對內的 要素의 各 分野別 細部 比較는 다음 柱型그래프와 같다.

나. 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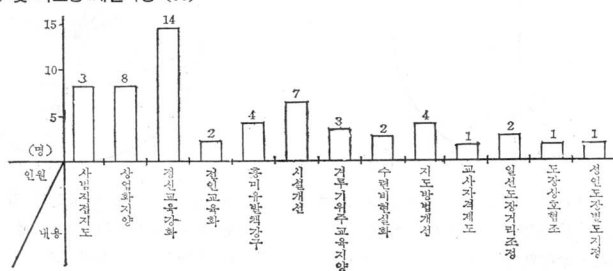
(1) 지도자 자질향상(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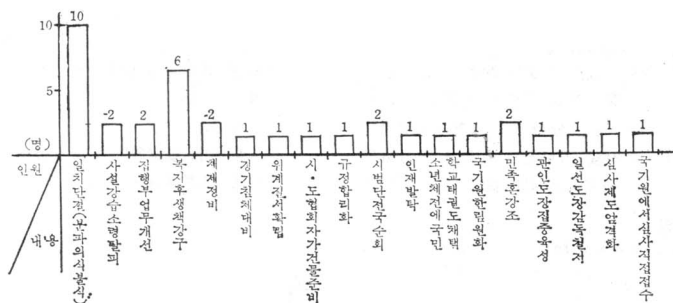
(2) 연구개발(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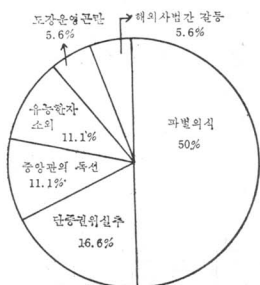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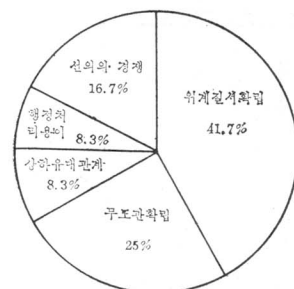
(3) 도장운영 및 지도상 개선사항 (56)



(4) 행정 미 기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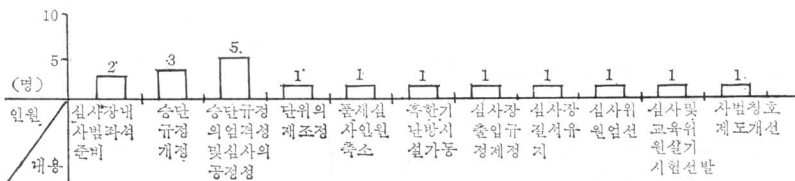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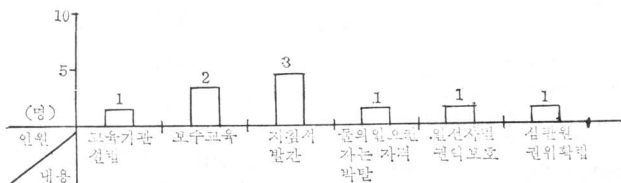
구 관체제의 장단점



上記 도표는 1980년 12월 6, 7단 응심자 34명이 舊 館體제의 長 短點에 對하여 記述한 것을 類型別로 整理·分析한 것이다.

1. 七段 응심자는 위계질서 확립에 이어 무도관 확립, 선의의 경쟁, 행정처리 용이, 상하 유대관계의 順이었다. 六段應審者는 위

2. 부문별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방안



(成人修練生の 감소요인과 그 對策을 中心으로)

李 鳳 (국기원 연구위원
세심도장 사범)

一. 序 論

태권도의 國技化 宣言에 힘입어 70年代에는 修練人口 및 競技人口의 質·量 兩面에 걸쳐 비약적 發展을 이루었다. 그 外的 結果로서 國技院建立, 世界聯盟 創設, 國際 競技聯盟 加入 (GAISF), 國際軍人體育大會(CISM)의 種目 채택, Olympic 종목 채택 등의 結實이 있었으며 內的 發展으로는 館意識의 편파성 타파, 품세의 統一, 段證發給制度 一元化, 各種 教育制度 및 資格制度의 確立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는 태권도가 傳統 武道로서의 배타적·수직적 傳承方式을 탈피하고 汎 世界的 Sports로서의 개방적·수평적 전파방식을 導入한 획기적 業績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跆拳道界의 政策·行政의 分野의 方針과 一線 指導者들의 施行分野가 充分히 應接치 못함으로서 양적 팽창에 질적 수준 향상이 뒤따르지 못하고 그 幅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試行錯誤가 있었으며 그 한 例가 바로 태권도 修練層의 年少化 추세라고 생각된다.

특히 成人修練生の 급격한 감소는 양적 팽창에서 오는 相對的 質저하의 代表的 例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特히 성인 수련생 增加方案에 關하여 論하기로 하겠다.

二. 本 論

1. 現況(1980년 國技院應審者分析)

가. 1980년의 國技院 品段 總應審者は 79,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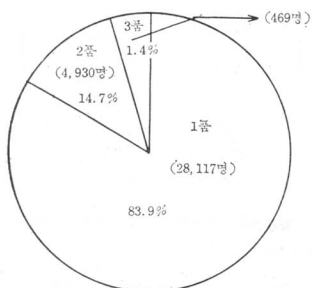
名으로 그 中 품 응심자가 33,516名, 단 응심자는 46,036名이다(表 1參照).

〈表 1〉 1980년 품·단 응심자 比較



나. 품 응심자 33,516名 中 1품응심자가 83.9%를 占하며 계속 수련자를 뜻하는 2, 3품 응심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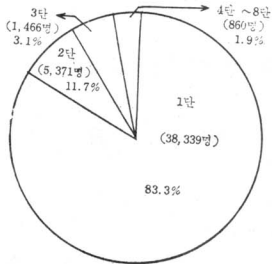
〈表 2〉 품 응심자 등급별 比較



다. 단 응심자 46,036名 中 초단이 역시 품의 경우와 비슷한 83.3%를 占유하며 고단응심자는

1.9%로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3〉 단 응심자 등급별 比較



라. 特別 단 응심자 中 軍・警 等 기관응심자가 27,592명으로 59.9%를 占하고 있는 것은 일선도장등의 一般 修練者인 성인수련생 人口層이 적다는 것을 反證한다(표 4 참조).

또한, 일반 段 응심자 中에는 品에서 전환되는 數 및 2단 이상의 계속 수련자를 제외한 순수한 新規응심자는 더욱 그 數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단 응심자, 기관對 일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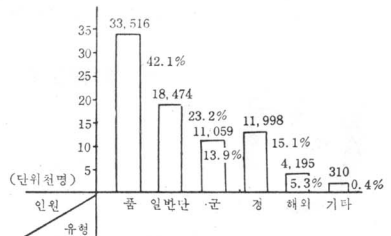


마. 1980년의 국기원 총응심자의 유형별 비교는 '표 5'와 같다.

2. 實態(一線道場 10個所의 수련생 연령별 분포 分析)

가. 서울市 관악구 4個, 강남구 6個 포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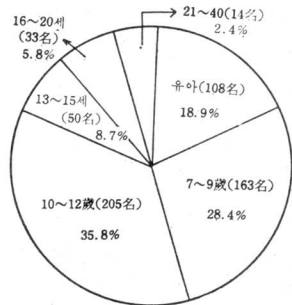
〈표 5〉 '80년 국기원 응심자 구분



個의 1980년 12월 현재의 총수련생은 573명이었다.

나. 총수련생 573명을 만 6세이하(유아), 7~9세(국교저학년), 10~12세(국교고학년) 13~15세(중학생), 16~20세(고교・대학생및 직장인), 21~30세(청년), 31~40세(장년)으로 나누어 比較한 결과 '표 6'과 같은 比率을 占하고 있다.

〈표 6〉 10개 일선도장 수련생 연령별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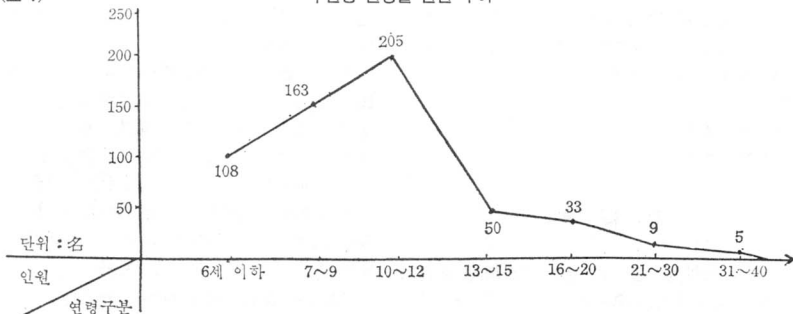


다. 41세 이상의 수련생은 全無했으며 特別 26~30세 사이의 수련생이 없는 것은 中 전역후의 직업상의 문제, 결혼 後 役令기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라. 일선도장 수련생의 연령별 인원 추이(표 7 참조)를 볼 때 국민학생까지의 상향추세가 중학교 진학시부터 급격히 떨어져 성인(단 20세)부터는 극소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7〉

수련생 연령별 인원 추이



3. 問題點(成人修練生 저조이유)

가. 跆拳道外的인 要因

(1) 高度 産業社會로의 急激한 轉移過程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複雜性으로 인한 相對的 個人時間 減少.

(2) 感覺的 즐거움으로 Stress를 解消하려는 傾向

(3) 各種 Recreation 산업의 發達

(4) Mass MEDIA상의 태권도 취급 比重 弱함.

(5) 파열과의 억제策의 파급효과

나. 跆拳道 內的인 要因

(1) Recreation的인 効用에 對한 弘報不足: 태권도=과격한 운동=힘들다=재미없다는 認識.

(2) 道場의 施設未備: 난방시설, 교육보조재료 빈곤, 편의 도구부족.

(3) 指導者의 資質問題

(가) 知識·敎養이 수련생에 對해 相對的 優位를 지녀야 하는 點에서 不足.

(나) 教育方法上的 ناق후성

(다) 도장운영 方法的인 面에서 地域社會의 신뢰도상의 문제점.

(4) 태권도 理論 및 技術體系의 未整立

(5) 行政 指導陣의 下向式 思考方式

4. 解決方案

가. 태권도의 Recreation(성인들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긴장해소의 건전한 방법으로서의)의 長

點을 적극 弘報하여 國民體育振興의 次元에서 再評價되기로 삼는다.

나. 軍隊 教育時 平生健康法으로서의 價値觀을 敎育하여 未來의 家長으로서 家族別 修練이 可能토록 지도한다.

다. 各級 學校의 敎科目으로 채택하여 有資格 師範을 國技院에서 各級형식으로 配置, 學校單位의 修練이 可能토록 한다.

라. 地域別 學校시설을 活用한 週末태권도 학교를 개설하여 성인교육을 실시한다.

마. 과의학습허가제 적용에서 除外되도록 관 계當局과 協助한다.

바. 道場을 地域別 편의시설로 活用한다(例: 각종식당, 주말 경로당, 청소년집회, 강연회장, 반상회等)

사. 指導者 資質의 점진적 提高를 爲한 制度의 장치.

(1) 자격시험의 嚴格化

(2) 지도자 補修 敎育制 실시

(3) 專門 敎育機關 設立

(4) 研究·發表 기회제공 및 연구전문기관설치

(5) 一線指導 및 實際活動이 있는 師範과 資格 取得 後 活動이 없는 師範의 差別化. (사범 자격의 等級化)

(6) 교사자격증제의 채택으로 無資格 有段者의 敎育금지,

(7) 跆拳道 理論 및 技術체계의 정립으로 지도 지침서(사범용)발급.

아. 審査制度 및 競技方式 改善

(1) 國技院 審査의 權位회복. (심사장의 질서, 1회심사 인원축소, 흑한기 난방)

(2) 경기 방법의 다양화

가) 장년부 경기

나) 품세경기

다) 격파경기

三. 結 論

이제 全 跆拳道人은 지난날의 不合理와 試行 착오를 거울삼아 宗主國으로서의 品位를 確立하는 第2의 태권도 도약을 맞을수 있는 準備를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跆拳道 外的인 社會·文化的 環境의 急速한

변천에도 불구하고 유독 跆拳道만이 그 發展의 進化를 멈추고 內的 갈등의 次元에 머문다면 우 리는 퇴락자멸할 것이다.

따라서 跆拳道의 價值觀을 새롭게 整備하여 國民의 心身건강책으로 삼도록 적극 弘報함과 아울러 理論 및 技術체계의 再編成, 施設補完, 指導者 資質向上 및 師範에 對한 社會의 地位向上 策으로 年金制 및 의로보험 혜택을 도입(공제조합 結成으로 可能하다고 생각함)하는 등의 對外·對內 兩面에 걸쳐 苛酷한 政策的·行政的인 決斷과 實行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諸般초치에 따라 自然스럽게 一般國民의 태권도에 關한 意識이 改善된은 물론 그 修練人口가 增加될 것이다.

〈社 告〉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떨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가 늘어가는 기쁜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태권도지 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 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34-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73 국기원 태권도 편집실앞

1년간 구독료	2,000원(송료 포함) 국내
	8,000원(송료포함) 해외

No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년	개월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 것. 2. 구독구분에는 년간과 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쓸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研究論文 및 報告書 作成法 (I)

—體育學을 中心으로—



I. 머리 말

筆者는 陸軍士官學校의 敎官生活를 포함하여 열 두해째 大學에 몸담고 있으며 그동안 大學生 또는 大學院生의 論文作成에 참여하기도 하고 질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또 몇일前에는 「태권도지 十年의 歷史」를 만들기 위해 창간호부터 36호까지의 태권도지에 실린 記事들을 훑어보았으며 특히 研究 또는 論文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모조리 讀破하였다.

그러면서 論文 또는 研究라는 이름과 그 체제와 내용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大學과 大學院에서 論文作成의 자세한 길잡이가 없어 책과 지도자를 찾아다니던 記憶을 되새겨 보았다.

이러한 理由에서 태권도 연구에 뜻을 두고 精進하는 분들을 위해 다소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가 해서 研究論文 및 報告書作成에 關係 筆을 들었다.

또한 本稿의 作成에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體育科의 것을 中心으로 하고, 產學協同財團과 文敎部의 研究費 신청요령 其他 大學의 論文作成法을 參照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本稿는 體育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大學과 大學院의 과정을 마치고 學位論문을 作成코자하는 사람들이나, 태권도 研究人 또는 各級學校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研究題目을 설정하여 論文이나 報告書를 作成하는데 必要한 事項을 알려주는데 그 目的이 있다.

鄭 燦 謨 (國技院 研究委員長)
(大學跆拳道聯盟 專務理事)

本稿에 쓰여진 모든 사항 즉, 論文의 Topic을 결정하는 단계에 관한 것, 또 論文體制에 관한 사항등은 一般의 人정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 속에서 간추려 엮은 것이다.

출업에 필요한 학위논문은 각학교의 「論文作成指針書」가 있을 것이므로 각학교의 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論題를 選擇한 다음 이를 전개시켜 나아가는 能力과 논문을 완전히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 논문의 체제, 서술방법, 노력도, 독창성, 전공분야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各級學位 수여의 자격으로 認定하는 것이다.

學位論文은 적어도 研究方法와 쓰는 要領에 통달해 있음을 表示하는 것이어야 하며 碩士以上の 論文內容은 上記의 능력표시는 물론 해당 專攻分野의 發展에 貢獻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번 쓰여지고 通過된 論文은 차후 후배나 他 研究家가 論文을 쓰고자 할때 參考文獻으로서 貴重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過去の 研究過程을 일수있는 歷史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論題를 選擇하는 過程과 方法, 論文이 승인되는 過程, 論文을 쓸때의 要領 및 順序 論文의 체제에 關한 것을 간단히 수록했으며 부록에는 여러가지 體制에 關한 形式의 보기를 비롯해서 자 대학의 學位論文과 學術誌의 論文目錄을 간추렸고 태권도 논문목록을 첨부하여 研究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研究論文이나 報告書의 작성은 어디까지나 작

성자 自身의 전적인 책임이므로 작성 전에 깊이 생각하고 注意해야 할 것이다.

II. 論題의 選擇과 承認

1. 論題의 選擇

論文을 작성하려면 우선 論文의 題目을 선택한 다음 제목에 따라 內容을 展開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自己의 指導教授 學科長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과 研究題目 選定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다음엔 學校 敎科過程에 있는 論文作成Seminar 시간 또는 體育學 研究方法論과 같은 과목을 授講하면서 論題를 찾아야 한다.

論題를 찾아 내는것은 어디까지나 研究者 自身이 해야할 일인데 卒業을 앞둔 많은 學生들이 問題도 찾지를 못해 右往 左往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論題를 찾아내는 과정과 方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보통이다.

(1) 자기의 경험 즉, 學校에서 배우는 專功科目中에서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중에서, 다시 말해서 태권도 指導를 하고 있다가나 혹은 外部 機關에서 奉仕活動을 하면서 얻은 實際의인 경험속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自己가 늘 마음에 두었던 문제 혹은 따로 적어 놓은것 즉,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나 호기심에서나 모르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중에서 問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가지를 고른 다음 比較的 參考文獻을 쉽게 얻을수 있고 自信이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教授 또는 지도자와 상의·檢討해서 정할수도 있는 것이며, 自己가 屬해 있는 社會機關이나 研究所 學會 등에서 발표되고 행해지는 研究問題中에서 指示를 받을수도 있고 또 직접 그 연구에 참가해서 자기의 문제도 同時에 解決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始作이 半이란 格言이 있듯이 研究의 題目設定은 벌써 論文作成에 있어서 半이라고도 할수

있다.

2. 研究計劃書의 作成

이렇게 일단 論題를 定한 다음에는 研究 計劃書를 짜야한다. 研究計劃書 作成은 論文이나 報告書 作成의 전과정 중에서 제일 重要的 過程이라고 할수도 있다.

同僚와 相議하고 教授의 指導를 받은 다음 또 充分히 토의를 하고 여러번 修正을 거쳐 나와 完全에 가까운 計劃書를 상세히 作成하는 것은 이제 論文의 三分之二를 끝낸거와 비슷할 만큼 진전이 된 것이다.

研究 計劃書는 일정한 樣式이 있는 것이 아니라 研究 主題에 알맞도록 形式을 갖춰야 하는데 重要的 것은 그 計劃內容을 論理的으로 配列해야 하는 것이다.

社會科學 분야던 自然 科學이던 計劃書 作成에 一般的으로 包含되는 項目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人文科學 特別 역사에 관한 논문체제는 別途로 한다.

(1) 研究 題目

(2) ① 研究의 目的(研究의 動機 또는 問題點)

研究의 目的 및 動機내지는 研究의 問題가 되는 點을 서술적으로 충분히 의논하고 이 問題에 대한 理論의 指標 卽, 이 問題와 연관성이 있는 他 研究를 읽은 다음 그에 關한 것을 記錄해야 한다.

② 研究方法으로 問題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기술해야 한다. 資料는 어떤 것이며,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卽 實驗을 하는 것인지, 測定을 할 것인지, 質問紙 조사를 할 것인지, 觀察을 통한 것인지, 또는 文獻調査를 통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研究對象: 研究에 동원된 것이 한 학교냐? 여러 학교냐? 한 學年이나? 여러 학년이나? 연령은 어떻게 되며 성별은 어떠한 지를 밝혀야 하며 文獻調査이면 對象이 된 部分과 年代를 밝혀야 한다.

④ 資料의 蒐集 節次 및 處理: 資料를 수집시 Sampling을 할때 母集團은 어떻게 선택할 것이

■ 학술강좌 ■

며 그중 研究對象이 되는 集團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밝힌다음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處理하며 問題解決에 直結시키느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

上記의 項目을 포함하는 계획서는 問題의 Topic과 問題解決을 위한 계획이므로 방법이 나쁘거나 節次上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研究 論文

전체가 헛수고가 될 염려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評을 듣기도 하고 상의도 해서 완전한 것이 되도록 수정을 거듭해서 作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선된 문제와 또 이에 따른 論文은 該當分野에 상당한 貢獻이 되어 질수 있는 것이다. 參考로 文教部정책과제와 產學協同財團의 연구계획서 양식은 보면 다음과 같다.

學術研究費 受惠 志願書

研究分野別 分類表示: _____

申 請 人: _____

1. 題 目
2. 目 的
3. 範 圍
4. 研究 豫定內容의 概要
5. 參考文獻 目錄
6. 研究方法
7. 豫想되는 效果 및 活用方案
8. 研究期間 및 日程
9. 所要豫算

上記 志願者는 當年度 貴財團 學術研究費支給對象者 推薦要領 所定の 「申請資格 및 研究能力」인 자임을 認定하고 이를 推薦하나이다.

西 紀 年 月 日

推薦者 姓名:

(志願者の 所屬學校長)

財團 產學協同財團 貴中
法人

연구계획 신청서(문교부정책과제)

일련번호 _____

신청인: _____ 소속: _____ 성명: _____

과제명: _____

(분야: 예체능)

첨부 서류 목록)

1. 연구과제명
2. 연구의 필요성(목적)
3.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학문실태 및 연구활동
4. 연구계획
계획내용
전개방안
연구의 목표(결과)
연구착수전 준비실태
5. 기대효과
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7. 참여자의 분장업무의 도시
8. 진행일정계획
9. 소요예산(신청액)
상기목차의 내역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여 19년도 문교부 정책연구과제를 1당수행코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책임연구원)

㉑

3.精選된 問題의 特徵

精選된 問題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 (1) 問題가 간결하고 明確하다.
- (2) 問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또 그 問題가 意義있는 것이고 重要한 것이다.
- (3) 問題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며 研究者의 시간과 능력에 附合된다.
- (4) 豫定된 기간내에 資料 수집이 가능하다.
- (5) 問題의 展開과 解決을 爲한 器具 技術 方法이 準備되어 있다.
- (6) 計劃을 일찍 서둘러나 資料蒐集 以後 充實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data를 분류하고 해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집필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計劃書가 완성되면 다음은 이 계획서와 어느 정도 수집된 資料와 처리된 結果를 가지고 Out line을 작성해야 하는데 Out line은 될수 있는 데 까지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Out line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 論文의 항목이 되는 것이지만 집필이 始作되면 그 순서가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執筆도중 前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idea가 튀어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4. 論文要旨의 承認過程

論文을 作成하는 사람은 學生의 경우 科의 學

■ 학술강좌 ■

科長, 指導教授 或은 기타 지도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要旨을 각 학교가 정하는 形式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일반인인 경우에도 원고 게재기관(학회, 연구소, 연구실등)에서 요구하는 形式을 따라야 한다.

形式은 各學校가 정하는 것이지만 參考로 ○ ○大學校 ○○大學 體育科에 비치된 양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論文題目認可願(體論書式 1)

○○大學校 ○○大學 體育學科

學生姓名: ⑥ 日字:

體育學士의學位論文으로 다음과 같은 題目을 提出하오니 認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論文題目:

要 旨: (200字 以內)

上記 論文題目을 檢討하여 認可함.

學 科 長: ⑥ 日字

指導教授: ⑥ 日字

論文擔當教授: ⑥ . .

論 文 概 要(體論書式 2)

生姓名: 日字:

1. 論文題目

2. 論題의 詳細한 內容(別紙 첨부)

3. 論題에 對한 關心을 갖게된 理由 및 論文의 假想 貢獻度

4. 研究에 必要한 資料源

5. 論文의 取扱範圍

6. 研究方法

7. 蒐集된 資料의 取扱方法

最終論文 承認書(體論書式 3)

題目: 學生姓名:

1. 第一讀

本 論文을 읽고

추진 통과 _____ 통과 _____ 수정 통과 _____ 不認可 _____

日字: 指導教授 ⑥

2. 第二讀

本 論文을 읽고

추진 통과 _____ 통과 _____ 수정 통과 _____ 不認可 _____

日字: 指導教授 ⑥

3. 第一次 通 過

(1) 本 論文을 정독 考證하고 통과하였음.

日字: 指導教授 ⑥

(2) 印論文作成者와 指導教授의 考證이 끝난

本 論文을 읽고 製本하는 것을 認可함.

日字: 論文擔當教授 ⑥

(3) 本 論文을學位論文으로 認可함.

日字: 學科長: ⑥

上記 書式은 學科사무실에 恒시 비치되어 있어서 학생은 論文作成 과정중 上記 書類를 作成하여 學科長을 통해서 학교당국에 提出하게 된다. 勿論 上記 書類를 提出하기 전에 指導教授 또 論文 擔當教授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體論書式 1은 4장을 作成하여 學校(敎務課), 指導教授, 論文擔當教授 또 學生 本人에게 각각 1통씩 전달되어 保管된다.

體論書式 2는 3通을 作成하여 指導教授 論文 擔當教授 그리고 本人에게 각각 1통씩 전달되어 보판된다.

論文이 一次的으로 완성된 단계에 있으면,

體論書式 3을 작성하는데 이것은 Ⅲ 論文' 最終承認 과정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學校가 아닌 경우에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보고 일정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게 된다.

Ⅲ. 論文의 最終承認 過程

1. 論文提出 期日 嚴守

각 학교마다 論文作成 提出 및 承認期日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잘 알아서 期日을 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論文作成하는 도중에도 大學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期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即 (1) 論文 題目 提出 및 承認

(2) 論文 概要 提出 및 認可

(3) 一次 完成된 論文을 第一讀 敎指에 提出

(4) 第二讀 敎授에 提出

(5) 論文의 中間 發表

(6) 最終으로 完成된 論文을 論文지도 敎授에게 提出

(7) 最終 論文 發表 等の 段階別로 자기 기한이 설정돼 있어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한 學期를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2. 一般의 段階

論文의 題目이 科나 대학원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論文 作成者는 即時 論文에 관한 일체의 Check list를 指導敎授 또는 論文擔當 敎授와 상의 작성하여 論文에 관한 諸事項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완전히 論文이 一次的으로 完成되었다고 생각되면 우선 論文의 型과 體制에 빠진 點이 없나를 檢討한 다음 즉시 論文 擔當敎授에게 제출한다. 論文擔當敎授는 論文의 型과 體制 혹은 記述方法 맞춤법 등을 論文 作成者와 함께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고쳐진 論文은 다시 指導敎授에게 간다. 指導敎授는 論文을 다시 한번 철저히 읽고 검토한 다음 最終 論文으로 承認하게 된다 (體論書式 3을 使用)

다음 段階로 論文은 大學이나 大學院에서 위촉한 審査委員會에 넘겨 가게 되는데 만약 審査委員會의 審査結果, 論文에 대하여 “修正通過”나 혹은 “返戾”의 표시가 있을 때는 그 理由를 밝힌 說明書가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다.

論文의 審査 主審과 副審의 評點이 다를 경우에는 學長○○ 또는 學科長이 第3의 혹은 第5의 審査委員會를 위촉하게 하여야 된다.

大學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3사람 혹은 5사람의 審査員을 위촉하기도 한다.

論文의 審査, 通過는 審査委員의 萬場一致가 원칙이지만 審査委員들의 의견이나 評點이 각각 다르게 되면 다수결로 되는 경우도 있다.

3. 論文의 最終完成

論文이 最終으로 완성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點에 유의해야 한다.

(1) 論文을 타이핑(typing)하거나 또는 印刷(공판印刷 포함)할 때는 자 대학 혹은 大學院에서 정한 規格에 꼭 맞아야 한다.

(2) 冊으로 製本되기 전에 校正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3) 만약 製本後 修正해야 할 것이 생기면 正誤表를 붙이거나 고쳐 쓴다.

(4) 타이핑을 한 경우에는 종이나 글씨가 백지에 더럽혀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製本하는 論文은 部數와 大學에 제출해야 할 論文의 部數는 몇부가 되는 論文 擔當 敎授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4. 最終論文 提出 期限

기간이 완료된 論文은 卒業 이전 학교가 정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期限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普通 다음과 같다.

2月 卒業 豫定者: 11月 1日 부터 12月 1日 까지

9月 卒業 豫定者: 5月 1日 부터 6月 1日 까지

完全한 學位請求 論文은 자 학교가 정한 부수대로 제출해야 한다. 論文 提出 期限을 연장 받

으려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연기를 받는데 一般의으로 碩士學位 取得인 경우에는 課程 修了後 最大限으로 3年 以內에 提出해야 하며 博士學位 取得인 경우에는 最大限으로 考正후 5年 以內에 提出해야 하는 것이 普通이다.

上記 最大 期限을 超過할 경우 資格喪失이 되기도 한다. 고로 學位 論文인 경우나 기간 설정이 된 研究論文은 꼭 시간을 嚴守할 수 있도록 自己 能力에 부합할 研究內容을 가져야 한다.

IV. 執筆 要領 및 順序

論文이나 보고서의 작성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指導者의 지도와 상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논문의 내용과 體制와 承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論文作成하는 사람 자신의 責任下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作成者는 체제에 관해 通達해야 하고 內容 수록에 성실해야 한다.

또한 論文이나 報告書의 內容 中 문제가 있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이를 작성 초기에 발견하여 是正하는 것이 最終 論文이나 報告書를 훌륭히 작성, 제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1. Data의 整理

본격적인 논문이나 보고서를 집필하려 할 때는 다음 사항에 注意를 해야한다.

첫째는 論文이나 報告書의 내용이 먼저 作成해 놓은 Out line과 일치하고 그 내용의 순서 역시 一致해야 한다.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집필도중 버란간 기발한 Idea가 튀어나와서 事實과 사실을 연결하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할때 多少 Out line의 순서와 틀리게 되는 수는 있지만(일반적으로) Out line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로 주의할 것은 Data의 整理・統合이다.

우선 論理的인 배열에 따라 定해진 各 章에 屬해있는 Data를 各 章別로 한데 묶어서 番

號를 정한다음 이를 또 境遇에 따라서 主와 副로 나누기도 한다.

한장의 數表나 圖表에 表示된 Data는 잘 처리해서 그 數表나 圖表의 番號를 부쳐 保管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제일 重要的한 것은 論理的인 계통을 세워 主와 副 도 앞에 나올것과 뒤에 들것을 잘 정리한 다음 집필을 시작해야 집필 중 混亂을 피할수 있다.

2. 論文 및 報告書의 文章體

논문이나 보고서는 한 사람의 創作이 아니며 또한 文學作品의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調査 測定 或은 觀察한 事業에 根據를 두고 써야하며 敘述의이고 객관적인 文體이어야 한다.

故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에 留意해야 한다.

(1) 쉬운 말로 쓸것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는 專門인 問題를 다룬 것이지만 이를 읽고 이해해야 할 사람은 꼭 그 분야의 專門人만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전혀 門外漢인 一般市民이 읽고 이해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文障體는 될수록 쉬운말로 풀어서 쓰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말이 들어가서도 안된다. 一般化 되지 않은 특수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어를「註」에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될수 있으면 간결히 표현할 것

論文이나 報告書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敘述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할 때 될 수 있으면 뜻을 充分히 표현하면서도 간단히 또 요령있게 해야 한다.

(3) 修辭나 感情의 排除

研究 論文이나 報告書 中 資料의 分析 解析 혹은 提言 部分에서 事實을 根據로 할때 美辭麗句를 사용하거나 두드러지게 強調해야 될것을 感情的으로 表現해서는 안된다.

가끔 研究 論文이나 報告書 中에서 發見되는

■ 학술강좌 ■

것은 『……重要な 것이다』 또는 『興味있는 일이다.』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등의 表現인데 이와같은 것은 많은 境遇에 適當한 表現이 아니다. 이와같은 判斷은 어디까지나 讀者에게 맞겨져야지 스스로 主張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1人層을 使用하지 않는다.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는 客觀性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1人層과 “나” “우리” 등의 표현을 될 수 있으면 필자, 연구자등 適當한 第三人層을 써야 한다.

3. 論文이나 報告書의 體型

各 學校마다 獨特한 論文이나 報告書의 體型을 설정하는 수도 있고 또 論文에 따라 特別한 體型도 있으므로 잘 알아서 써야 한다.

또한 最近에 와서는 각 분야별 研究量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學校間 또는 國際間의 學術情報 교환의 目的으로 學生論文과 研究論文을 Micro film에 담아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해진 體型에 맞춰써야 하는 것이다.

4. 內容의 順序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論文이나 報告書는 그 內容에 따라 各各 特異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內容의 順序를 일률적으로 고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論文 또는 報告書의 內容이나 그 배열 순서는 논문담당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定해야 할 問題이다.

本 指針書에서 助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말한 바와 같이 Out line을 作成할 때 研究의 要點을 잘 살려 좀 더 詳細한 Out line을 作成해서 論文에 담아질 內容을 Chapter別로 제목을 정하고 또 Chapter에 몇개의 小題目을 부치면 內容이 좀더 一貫性 있는 順序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될 수 있는대로 Out line을 詳細히 쓰면 그만큼 實際의 論文執筆은 쉬워질 것이다.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論文을 章으로 나누는데 물론 여기 章에 부치는 題目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 것이며 章의 數 또한 加減이 될 수

는 것이다.

그 順序와 內容을 簡單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結論(序論, 序言)

緒論章에도 大略 3部分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 論文의 問題 調査 과정을 쓰거나 연구의 目的을 分明히 記錄한다.

둘째 : 問題가 얼마나 效果가 있는 것이냐 또한 合理的인 것이냐를 記述함으로써 問題內容의 重要性을 確實히 해야 한다.

세째로는 論文全體의 概略의인 順序와 內容을 章에 따라 略述한다.

(2) 文獻考察

어떠한 논문이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시도하는 연구와 類似하거나 또는 관계있는 과거의 여러가지 文獻을 調査함으로써 作成者가 如何히 연구에 임하고 그 분야를 조사해 왔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인 것이며 또 현재 作成者가 試圖하는 方法 또는 研究 內容이

① 과거의 것을 한층 더 確認하고자 하는 것이냐?

② 과거의 것을 範圍를 넓히려 하는 것이냐?

③ 혹은 과거의 것과는 正反對의 것을 期待하는 것이냐?

④ 과거의 것과는 다른 角度에서 다른 結論을 얻으려는 것이냐?

⑤ 過去의 것의 잘못 여부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故로 自己가 試圖하는 研究內容과 類似한 것은 指導教授와 相議해서 可能한 限 많은 文獻(主로 學術誌에 실린 것)을 調査해야 한다.

(3) 研究方法(進行過程)

이 部分에서는

① 資料가 어떻게 蒐集되었나?

② 資料源은 어디에서 났는가?

③ 蒐集된 資料를 如何히 處理할 것인가?

④ 研究內容에 따른 器具 使用道具 및 補助事項(質問紙, 面談, 各種 調査)이 나타나

■ 학술강좌 ■

야 한다.

(4) 結果(結果 및 考察)

각 論文마다 자기 조사방법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며 또한 수집한 資料도 다르기 때문에 研究에서 얻어진 결과를 如何히 구성하느냐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지 한가지 말할수 있다면 정확한 것을 명확하게 論理的인 순서에 따라 秩序있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考察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分析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5) 要約 結論 및 提言

要約에서는 앞 부분들의 전개를 간단히 再次記述한다. 同時に 研究의 結果中 특별히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욱 두드러지게 記述한다.

結論은 研究調査가 이룩한 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當初의 假說이나 豫想이 研果結果로 證明이 됐는지 혹은 증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記述해야 하는 것이다.

提言은 結論에 근거를 두고 특별히 해야 할 말이 있을때 記述하는 것인데 이 제언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연구와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해결할때 더 범위를 넓혀서 즉 연구대상 의 집단을 더 크게 잡아서 해야 한다든지 地域을 擴張에서 해야 한다든지 하는 점을 제언할수 있는 것이며 또 研究調査中 附隨의으로 일어난 同種의 연구를 권장하는 제언도 할수 있다.

(6) 附 錄

연구에 사용된 補助物 或은 證據物들 가령 質問紙 內容, 便紙 內容 或은 研究에 使用한 器具 그외에 書類의 形式이나 內容等의 例證物 들을 실을수 있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 附錄部分에 論文의 本文에 나와야 할 表를 총괄해서 收錄할수도 있으나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7) 參考文獻

出版이 된 文獻이진 出版이 되지 않은 文獻이진 論文에서 言及이 됐거나 註에서 參考文獻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이 參考文獻 부분에 수록한다.

또 個人的인 面談 講演, Radio TV 等の 對談放送은 엄밀히 말해서 參考文獻類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上記의 것도 편리상 參考文獻에 收錄할 수도 있다.

어떤 論文의 參考文獻 部分에서는 當該 論文에 間接 使用되거나 言及되지 않은 것도 收錄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직접 관련되는것 이외의 것은 收錄하지 않는 것이 좋다.

參考文獻의 目錄은 著者名(姓)의 가, 나, 다 順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데 參考文獻數가 25卷이 넘을 경우에는 冊 學述誌, 報告書 등으로 分類한 다음 定해진 순서대로 수록하는 것이 좋다.

參考文獻이 外國 것이라면 alphabet 順으로 해야 하고 日本이나 中國의 것은 著者名을 英語로 表記해서 alphabet으로 하든지 原著名을 그 나라 言語의 順으로 하는 方法도 있는데 一貫性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것은 英語로 表記하고 어떤것은 原名 그대로 수록해서는 안된다.

例外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나 日本 其他 alphabet을 使用하지 않는 國家사람의 研究論文이 美國이나 美國 其他 alphabet을 使用하는 국가에서 발표되었을 때는 著者名을 alphabet으로 表記할수 있다

參考文獻의 目錄이 논문중의 註 番號順으로 될때는 물론 上記의 制限을 받을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한다음 작성하는 것이 手苦를 덜수 있는 방법이다.

무도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인의 자세와 방향

李 京 明 (유럽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I 세기 102개국에 무려 1,600名の 한국인 사범이 「스포츠 한국」을 빛내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이 통계는 지난해 12월 대한태권도협회가 집계한 발표이다. 이 보다 실재 더 많은 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세계 구석 구석에 뿌리 내리고 있는 태권도가 국위선양의 旗手로 현지 국민들로 부터 총애받는 武道로 출발, 이제는 엄연히 「무도 스포츠」로 국제적인 자광을 받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는 대부분 개인도장을 경영하고 있지만 더러는 주재국의 국가「코치」, 체육교수, 사업가 또는 유력인사나 주요기관의 지도를 맡아 상당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生活을 하고 있다.

70년대 초반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한 태권도가 10년만에 국제「스포츠」로 부상하기까지에는 武道로서 가치성 인정과 함께 국내의 태권인들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KTA/WTF 김 운용회장님의 탁월한 스포츠의교의 삼위일체적 총화의 결실이라 하겠다.

태권도는 도덕 규범이나 그 기술로 보아서 「스포츠」 이전에 무도이다. 따라서 수련의 과정에서 일격필살정신을 함시 중요시해 왔고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고 선배들로부터 엄하게 수련 받은 우리 지도자(사범)들이 해외에서도 초기에는 그 精神 전수에도 신경을 쏟았다.

품세의 신비성, 격파술의 강한 위력, 호신을로서 겨루기등이 무도의 우수성을 파시했고, 시

범을 통해 태권도의 인식, 보급지도에 박차를 가했었다.

무급에서 1급, 초단에서 10단까지의 엄연한 위계와 사제간의 예의, 무도인의 의리가 태권도의 정신세계를 향한 이국인의 호기심을 자극. 태권도 수련의 동기를 유발시켰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평소 지도하며 생각하고 염원해 왔던 몇가지 제언을 개진함에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태권도의 生命은 겨루기에 앞서 품세이다. 아직도 해외에서 난립상태에 있는 품세로 인해 태권도의 발전적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 60년대의 난립된 품세를 배운 사범들의 지도와 먼저 해외로 진출한 초기의 ITF기술(창현류)의 선제권이 지금도 그 세력이 일부국가에서나마 뿌리깊이 심어져 있다. 그 당시 국내 지도급 태권인의 근시안적 행정이 빚은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을 가져왔으며, 우후죽순처럼 판의 난립, 朝令暮改식 행정시행이 태권도의 내실을 저해하는 독소였고, 해외사범에 대한 무관심이 품세의 뿌리를 아직도 바르게 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

적어도 I.O.C가 승인한 경기단체인 WTF의 공인 품세로 유급자를 위한 태극·팔괘 그리고 유단자 품세가 제정돼 있는데, 국내 보급상태를 감안 팔괘품세가 구형이라고 칭하는 사범이 없지도 않다. 이렇듯 무지한 사범이 영리목적으로

◇태권도인의 提言◇

전전공공하는 심정도 이해할 만 하나 이제 구태의연한자세에서 탈피 시정하는 자세도 아쉽다.

품세가 태권도의 꽃이라면 거루기편은 태권도의 열매이다.

위의 두 生命의 조화에서 진실로 무도「스포츠」의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품세 경기종목 채택은 무예의 生命을 꽃 피우고 단조로운 시합내용을 보충하는 자극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태권도는 전신의 근육과 모든 관절을 무기화하는 종합신체 운동이고 체육 활동으로서 하나의 행동철학이라 했는데, 지금까지의 세계대회「게임」내용면을 관찰해 온 바 몇가지 발기술에 주먹치르기 등 단조로움 바로 그것이였다. 그러고서는 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가라테」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가라테」도 엄연히 국제「스포츠」로 부상·가광받고 있는 이상 이를 의식해야 한다. 그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느낀점은 태권도대회보다 「가라테」대회가 퍼져 관객이 많았음은 웬 이유에서 일까?

「가라테」는 형 시합에 있어 개인과 단체전 종목이 있다. 그 날렵하고 조화되는 선율적인 동작의 美와 위력에 오히려 인기가 대단했다.

이는 무도의 美化에서 얻는 공간에서이다. 품세에 있어 모든 동작이 세련되면 그만큼 그 움직임과 표현되는 品(形)이 美化되어 간다. 이것은 일면으로 스포츠의 美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통일된 품세의 보급을 위해서도, 거루기 출전 선수에게 WTF 단증을 확인하고 계체량을 하듯 기본 품세 실사를 거쳐 출전선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마련도 바람직하다.

경기화된 태권도를 체육의 가치성에서 검토하면 아직도 많은 「틀」의 과학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이다. 태권도 경기는 승부와 技를 겨루는 격렬한 과정에서, 무도의 기술면은 살상의 技임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껏 남성을 보호하는 살보매, 몸통부위를 보호하는 호구가 개발되어 착용되고 있으나 얼굴 머리 부위는 노출, 단지 주먹 손 기술만 금지되었지 실체손기술보다 더 위력이 강한 발기술 허용등

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종전에는 강타 2점 1점제도를 적용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얼굴보호구 없이 1점제를 적용하고 있음은 위험도를 감안하면 체육의 가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얼굴 부위에도 강한 타격으로 부터 받는 위험을 방지 보호하는 장비가 마땅히 필요하다. 이로써 체육과 「스포츠」입장에서 결여돼 있는 가치성을 높이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기에 있어 심판원의 자질문제, 공정성 결여로 빛는 오판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는 사례, 관객들로 부터 받는 심한 야유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걸까?

단순화된 기술면의 경기수준을 감안해서 탁월한 기술 즉 발기술공격(예. 뛰어 공격)은 2점제 채택등·경기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무도본래의 우수성을 전수 개발하고 「팬」에게도 박진감을 고취시켜야 하겠다.

살보매, 호구로 몸통 부위만을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얼굴/머리 부위에 노출시켜, 손·주먹보다 배로 위력있는 발기술의 허용은 제도상의 모순으로, 적어도 유럽에 있어, 「주니어」 선수권대회의 공식종목으로의 채택은 국가별로 우선법적인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복싱계에서도 경기중 심한 타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WTF 실험 부서로 기술분과 위원회가 있다. 각국 기술위원회와 정보교류, 실문조사를 통한 통계, 검토, 분석연구 하는 이론 체계화 작업을 원활히 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겠다.

「무도 스포츠」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현대 「스포츠」과학화하려는 작업을 「나」라는 개인의 권위위주의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우리」라는 공동의식으로 슬기로운 노력, 용기있는 행동과 협동하는 의연한 자세로 이론과 실질을 체계화할 수 있을 때에 참다운 무도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승화·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몇해 전 고안된 WTF 공인 신행도복이 국내,에서는 공식대회(경기, 승단 등 대회)시 착용 의무화로 상당히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아직도 품세기술에서의 마찬가지로 도복과 복장면에서도 통일을 기하지

◇태권도인의 提言◇

못한 실정은 왜 까닭일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형공인도복이 「大家商社」의 실용신안 등록으로 독점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얼마큼 국외에 홍보하여 수출 실적을 통해 國益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태권인의 총애 받는 도복으로 보급됐는지도 묻고 싶다.

해외 사범은 여러 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기술면의 난맥상과, 도복의 혼란에서 오는 고심도 대단하다. 신형 공인도복의 제정에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가라메와 구별, 전통적인 跆拳道史의 고증이 뒷받침되고 또 실용면에서 현대적인 美와 가치성이 높다면 매혹은 감을 느끼지만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단지 수출 창구의 독점(제조판매)에서 오는 보급망의 저해, 이로 인한 유사도복 출현 등은 태권도의 이미지를 크게 복잡에서 부터 흐리게 하고 있다.

선의를 경쟁으로 질의 향상과 보급면에 실효성을 거두는 방안책으로 단호히 문호를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기회에 도복의 종류(예

흑도복, 백 급도복, 품도복)치수, 색상, 「티자인」의 규격화, 띠의 색상, 폭의 규격화, 그리고 급제도 등 일관성 있는 체계 제정으로 WTF 흥분 분과위원회는 각국 회원국에 통보, 홍보하는 사업의 실천적 행동이 있어야 마땅하다.

국기 태권도가 중주국의 금지와 한국의 일이 담긴 값진 문화 유산을 남긴다는 사명감과 무도 스포츠로서 국제화하는 작금에 차원높은 정책수립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

시대의 흐름에 기술면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있게 마련이나 그렇다고 근시안적 연구자세, 계획수립등으로 인한 조령모게식 운영은 되려 독소가 되기 쉽다.

특히 해외 사범들은 민간외교관의 차원높은 사명감과 참여의식으로 주재국 협회는 물론 KTA/WTF에도 깊은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때로는 비판, 시정, 연구, 실천하는 건진척 긍정적 자세의 동력인 실천 행동철학을 가져야 하겠다. 세계 구석 구석에 뿌리내린 「대한의 얼, 태권무예」의 기술을 계발하고 태권도 철학정립으로 태권도를 더 깊고 튼튼히 심고 자랑스레 가꾸고자 열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跆拳道와 人格陶冶

손 명 수
(캐나다 태권도 사범)

우선 이런 글을 쓰자니 사계의 권위자들에게 송구스럽고 지탄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특히 요근래 도장을 가진 현역 사범진이나 과거에 태권도에 업적이 지대했던 분들간에 태권도 단체의 통합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얇은 지식이나 무도인 여려분께 동조를 구하고자 몇자

적어본다.

한국 역사 특히 이찌 조선의 역사를 보면 武人들은 지성인 소위 文人들에게 한심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라의 錄을 먹으며 충성을 다하기에는 뒤질리가 없지만, 지나칠 정도로 팔세받으며, 기개를 펴지 못한채 여생을 마친 훌륭한 무인들에 대해

■ 태권도인의 提言 ■

여 우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혹 그 당시 무인들의 처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筆은 劍보다 강하다”라고들 한다.

필을 잘 다루고, 올바른 글을 쓰면 민중을 감동시키고 크게는 큰 사상을 불러 일으켜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남길수 있는 반면에 필을 잘못 놀려 남을 모함, 선동하는 경향으로 호를 때에는 저속한 표현으로 나타나겠고, 크게는 사회내의 편파, 파벌의식을 조장시키며 따라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武道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학교때 도복은 입었으나 게으르고 진보가 없다고 기압 받을 때마다 「무도란 상당히 엄격한 규율 아래 진행되는 것이며 보통의 인내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친구들끼리 생각하곤 했다.

그당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상대방의 사람들은 시내에 나가 한번쯤 주먹을 휘둘러야 지성이 풀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오래이 그들을 강대 취급하기 일수였고 아직도 그런 인식이 남아 있는듯하다.

나는 요즘 반문해 보는 때가 많다. 주먹만 매일 굴리고 남을 일격에 쓰러뜨리겠다고 정신통일(?)하면 여하히 인격도야가 이루어지느냐? 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양심, 교양 및 생활철학대로 수양을 쌓으며 혹은 종교로서 그 공백을 메꾸어가는 모양이다. 남을 치고 박는것 보다는 예의를 가르치는데 특히 그 중점을 두고 있는 태권도에 있어서 개개인의 품행은 그 사람의 무술실력에 비례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날개가 없으니 날아 잘 수가 없었지만...별 회안한 재주가 있더라도 성품이 사납고 인자하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은 환영을 못받는다 고들 한다.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무법자를 선도하고 광폭한 젊은이들을 진지한 젊은이로, 평소에 남보다 작고, 약한사

람들을 자기보다 힘이 센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기 방어를 할수 있다는 신념과 옳은 일에는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의협심과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신념대로 일을 처리할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갖게 해주는 참다운 무도인들의 노고는 물론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범이란 어떤 면에서의 리더(Leader)라고 볼수 있는데, 태어나면서 부터의 선천적인 「리더」가 있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된 「리더」가 있겠고, 또 차칭 「리더」가 있겠다. 또 「리더」란 남에게 비굴해서도 안되고, 존경심을 강요해도 안된다. 남으로 하여금 따르고 싶은, 자기에게 반하게끔 하는 처신이 중요하다.

그러나 명예욕과 권위의식이 남보다 강하여 나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단체는 그 지도자가 신뢰감을 잃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태권도인이 서로 뭉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융합되지 못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 서로 피해가 따르겠고 체신단 잃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한도내에서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기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부상조하고 피차 공생의 원리를 찾아야 존속한다.

선배는 선배로 모시고, 회원은 누구든지 흥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으며 전체 무도인에 혜택을 줄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인격도야에 정진하여 손을 맞잡는날 과연 한국무도인들은 남의 나라 무도인에 훨씬 앞서는 발전과 공헌을 할수 있다고 보겠다.

순수한 무도란 修心과 勝負가 호신을 할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훌륭한 분이 나서서 같은 피가 흐르는 韓人끼리 태권도인만이 아니라 韓國 武道人 전체를 망라하는 협회까지라도 창설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는 아랫 사람에게 라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따라 오라고 강요하는 성품도 아니요. 上下를 막론하고 그들의 자라는 환경, 계통, 성품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순수한 뜻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다.

● 태권도지에 바란다 ●

김 용 호 (불란서주재
태권도사범)

태권도가 유럽에 보급된지도 어언 15년이 넘
는것 같다.

어려운 역경 속에 赤手空拳으로 오로지 국위선
양을 위한 강한 집념으로 국가관과 애국애족이
란 대명제 아래 민간 외교관으로 노력한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태권도가 I.O.C에 정식「Sport」종목으로
인정된 이후 더욱 발전 보급될 것은 기정 사실이
고 태권도지가 그동안 10여년 동안 태권도 발전

에 기여한 성과는 전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社
會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까지 널리 전파되어
임혀 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잡지로
발전 전과 되기를 바라오며 화보 설명에만 영어
로 번역되어 오는 것을 앞으로는 영자로 모든 기
사가 번역되어 세계 만방에 전파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간부터 지
금까지 手苦하신 편집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태권도지에 바란다 ●

이 중 판 (경기 공업전문대
학 태권도사범)

1971년 초여름, 창간호를 받아 본 것이 었그
제 일만 같은데 어언 10개 성상이 흘렀다니 금
석지감이 든다.

우선 태권도지의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고 묵묵히 태
권도를 대변하며 일하여 온 관계자와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태권
도지가 많은 독자들에게 태권도를 홍보하므로써
태권도 저변확대에 쌓은 공적을 높이 찬양함과
동시에 몇가지 문제점과 바램을 적어 앞으로 발
간되는 태권도지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창간호로부터 36호까지 받아본 소감은 기사 내
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소
재의 빈곤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한다. 획일
적인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차원높은 연
구 교양의 지침서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옛말에 주마가편이라 했다. 태권도지가 질적
으로 향상 되려면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태권

도에 관한 심층보도와 독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
도하여 다양한 기사로써 독자를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자를 의식치 않는 보도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각계 각종 인사들의 참여로서 태권도의
인식을 높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얻
을 수 있는 교양지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재정
이나 편성상 애로점이 많을 줄 알지만 지면을
많이 할애하여 태권도인이 갖추워야 할 교양과
제반 지식을 기사화하므로써, 지도자의 보수교
육을 겸한 지침서가 될 수 있고, 독자(비태권도
인)들에게 태권도인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받
아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제 창간 10주년을 맞아 태권도의 대변지로
서 명실상부한 참신한 태권도지를 기대하면서 편
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태 권 도 지 에 바 랐 다 ●

이 태 은(캐나다 주재사범)

창간 10주년을 맞는 태권도지 관계자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먼 이국에서 태권도를 가르키고 있는 해외사범의 입장에서 종주국의 소식과 태권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권도지 구독에 있다.

태권도지가 태권도인 전체에 미친 공로는 지대하다고 할수 있으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 태권도지가 계간이라서 소식에 접하기가 너무 늦는 감이 있다. 다소의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월간지로 내어 주었으면 한다.

둘째 너무 길이가 없는것 같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더 노력해서 해외사범들의 갈망인 태권도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

애 하였으면 한다.

셋째 태권도지가 너무 획일적이다. 태권도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데에서 9단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각계 각층에 도움을 줄수있게 되었으면 한다.

넷째 한국과 해외의 소식을 넓고 깊게 파헤쳐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유언비어가 나돌고 해외사범들의 동요가 일기 때문이다.

너무 무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으나 나의 요구가 충족될 때 해외 사범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사기를 왕성하게 해줄 것이다. 태권도지 관계자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빈다.

(祝)

태권도지 창간 10주년

미 동 국 민 학 교

교장 이 경 란

선 곡 국 민 학 교

교장 이 재 근

천 호 상 업 고 등 학 교 교장 이 진 환

중남미 기행

이 종 덕

60년도 초반 광주 K.M.A.G(미·군사고문단)에서 시작된 나의 태권도 사범 생활은 혈맹의 우방 「베트남」에서도 계속되었지만 결코 환희와 영광으로 증단된 것은 아니었다. 나의 주위에서 시련과 고통이 계속될 때는 태권도의 길을 걷은 것을 후회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태권도」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것은 김운용 회장님의 탁월하신 스포츠의교와 국내의 여러 태권도인의 일치단결된 노력에 의해 우리의 국가태권도가 I.O.C 중목으로 공인되었고, 각종 국제경기 단체에 가입하여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가져다준 결과이며, 국내의 우수한 지도사범과 태권도인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해서이다 해외사범!

외국을 꿈꾸는 태권도인에게는 듣기만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선망의 대상이된 단어.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신을 단련하며 시간에 쫓기는 직장생활에서도 나 나름대로 태권도 철학과 이론 정립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를 기다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게 쉽게 나가는 해외사범의 길이지만 나에게는 10여년이 훨씬지나 지금까지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지도 않았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인내와 신념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며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중남미 시장조사 일원으로 내정되어 해외파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제 1회 국제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C.I.S.M)에 중남미에서 이기정 사범의 인솔하에 「콜롬비아」팀과 「에콰도르」팀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사범과는 동향이며 같은 사범으로 지우가 있고 하여 「콜롬비아」 선수단과 「에콰도르」선수단과 만날 수 있었으며, 미미한 나의 기술이나 대회 기간중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맡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콜롬비아」에 태권도가 보급된 이래 국제대회에서 최초로 3개의 메달을 따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의 안내로 한국의 여러 백화점과 시장에서 많은 우리 상품을 「쇼핑」하였다.

아울러 발전 한국의 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들 나라에서 생각했던 불안정한 사회가 아님을 피부로 느끼며 대회위원회의 따스한 배려로 아쉬움 속에 김포 공항을 떠났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2주일 후 나는 시장조사차 KAL기에 몸을 싣고 중남미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LA에 도착하여 KAL을 뒤로하고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VAIANCA에 몸을 싣고 시장조사 목적국인 「콜롬비아」 영공에 다가가자 남미 특유의 강한 「엑센트」인 「스페인」어가 기내를 울리며 「콜롬비아」임을 알렸다.

거대한 기체 밑에 펼쳐져 있는 장엄한 대륙, 잘 정리된 농토, 끝없는 평야, 우거진 「장갈」이 모두가 자연의 부국임을 느끼게 했고, 수천의 소떼가 보이는 가운데 서서히 남미의 관문인 「보고타」 공항에 동체가 멎었다. 공항에서부터 태권도의 보급 생활을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현지 DAS직원들).

한국 대회 때 알았던 이 사범의 제자인 「루이스」군이 마중 나와 통관 수속을 쉽게 할 수 있었고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부(DAS) 직원들이 이 사범의 제자임을 알았을때, 나는 태권도

의 위용을 새삼 알았으며, 그들이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데는 더욱 그러 하였다. 「루이스」군의 안내로 공항에서 「보코타」 시내로 들어올때 광활하게만 보이던 시내, 어쩐지 스산한 느낌마저 드는 이곳의 첫 인상은 강인한 남미의 그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했다.

머칠 먼저 도착한 회사 직원들이 있는 「호텔」에 방이 없어 당분간 「루이스」군의 호의로 그의 집에서 투숙하기에 이르렀고, 그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도장을 구경 할 수 있었다.

정면에 걸려 있는 「태극기」와 우리글 “국기 태권도”를 보는 순간……

지구의 반대편 저쪽에서 그것도 외국인의 조그마한 도장에서……

그 낯잡도 선명한 우리의 태극마크와 우리의 글……

“이것이 태권도구나” 하는 순간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끝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우리 목적인 시장 조사를 하면서 우리 상품과 이곳 상품을 비교하여 어떻게 하면 소비성이 짙은 이곳 시장을 파고 들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먼저 온 동료사원들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코트라」의 아낌없는 지원, 현지 교포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좀더 욕심을 부려 이땅에 태권도 모습과 보급 현황을 그리고 여러 사법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귀국을 늦쳤다.

유독 중남미에서 「콜롬비아」만이 작국 대외에 유일하게 참가함을 볼때 중남미 다른 국가의 태권도 현실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루이스」군에게 「콜롬비아」 태권도 사범 진출문제에 관해 물어 보았다. 그는 성의껏 알아 보았으며, 정성껏 가르쳐 주었다.

「콜롬비아」는 모든 무도 사범(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등) 진출이 막혀 있음을 알았을 때 한편으로는 실망도 없지 않았다.

이유는 일전(2-3년전) 한국인사범 몇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사고를 내고 이곳을 떠난후 이곳 외부부에서 입국 비자 발급을 중지했다는 것

이다.

현재로서는 「콜롬비아」에 태권도 사범 진출이 조금은 회의적인 것 같다.

내가 「보코타」에 있을 때 이기정 사범은 지방 도시(이바게) 심사 순회교육에 나가고 없었으며, 이곳의 원로 사범이시며 교민회 회장인 이경득 사범의 초빙으로 그의 도장을 방문 할 기회를 가졌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몇몇 현지인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커다란 도장에서 기거하면서 후진 양성과 조국의 일을 싣고 계시는 이경득 사범님의 조언과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느꼈으며 후배 사범으로서 조금은 가슴 쓰라리움을 맛보았다.

그분의 발전을 기원하며 도장을 나섰다.

그후 이기정 사범의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대형 도장, 국회 의사당, 대학교(로스 안데스대학), 크렙(스카니아), 이 모든 곳을 혼자서 뛰고 있으며, 특히 이기정 사범의 안내로 그의 계약 갱신차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서 이사범은 우리 국회의사당 직원과 그곳 국회의사당 직원과의 태권도 친선 「게임」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곳 직원으로 부터 매우 고무적인 답변을 얻은 것 같았다. 또 「로스안데스」대학을 방문했을 때는 커다란 「콘서트」도장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방학중인데도 몇몇 태권도 수련생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스카니아 크렙」에서는 그와 내가 도복을 입고 잠깐의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와의 이야기 중에는 태권도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뛰었기에 미련도 후회도 없다는 말과 중남미 태권도가 비록 취약지구 일망정 세월이 흘러 현지인에게 명예롭게 물려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와 이론부족, 기술설명 등 여러가지 자료가 아쉽다는 고충담, 300여회 신문에 소개된 그의 태권도 「스크랩북」을 대했을 때 피와 땀으로 점철된 그의 태권도 인생관과 태권도 보급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관의 외교관으로 민간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해의 진출, 해외

사범의 길이 결코 그렇게 호화롭음도 순탄함도
아님을 피부 깊숙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나 태권도가 보급되지 않
는 곳은 없으며, 「콜롬비아」 역시(일부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잘 보급되어 있고, 그
들도 한국인 사범을 원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듯이 사범진출의 문이 그렇게 용이한 것
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 태권도인으
로서 국내에서도 할일이 너무도 많음을 간접적
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첫째, 태권도 홍보 활동, 자국어로 된 기술
및 이론 정립 그리고 서적의 발간 등.

태권도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론정립의 차원 높은 기술개발이 앞서야 할 것
이다.

둘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태권도인의 연구 태
도와 자질 향상이다. 특히 사범의 해외 진출은
양보다는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도자
의 연구 태도와 자질이란 체육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

우리 한국을 단방에 빛낸 농구, 축구, 야구,
탁구……

이 모든 구기가 우리에게 전래된 것은 1세기도
안된 70~80년전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다.
그들은 탁월한 기술도, 정립된 이론도, 완비된
체육관도 결코 갖추지 않은채 보급했지만 오늘의
한국 농구인, 축구인, 야구인, 탁구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종목에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훌륭한 기
술과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고 있지 않은가? 하지

만 우리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은 국제 「스포츠」화 되었다.

이 「스포츠」화된 무도가 해외 보급 20년도 채
못되어 중량급에서 또는 경량급에서 선수권을
땀기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 모든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건지……?

또한 해외 사범관리 문제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로가 다른 물세를 하며 적
대하고 있는 실정이니 현지인들의 눈에는 한
국의 태권도 사범이 어떻게 보일런지? 집행당
국은 그들의 관리 문제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우리 「매스컴」 특히 신문의 지면
할애 문제이다. 내가 「콜롬비아」에서 느낀 것은
태권도에 대해서 놀랄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일간지, 「스포츠」지에는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에 너무도 인색하다. 종주국인 한
국에서 이렇게 「매스컴」의 인색함에 외국인들은
놀라고 있다.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집행 당
국(협회, 국기원, 연맹)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
라며 「매스컴」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국가적
인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태권도
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을 때 국
기 태권도는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오대양,
육대주, 지구를 덮으며, 전 세계는 하나의 태권
도 가족으로서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올림픽 광장
에서 태권도가 우렁찬 우리말 구령으로 경기가
진행될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위해 태권도인으
로서 정진하며 연구 노력하자.

p.102에서 계속

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무등산 친구의
손에 들린 기왓장을 힘껏 걸어칠 수 있습니다.
도복의 친구들이 붙여준 낱은 원더 패지, 그
렇다 땅의 미련한 패지는 이제 아니야 스승이
만들어 준 낱은 원더 패지. 소년은 굳센 스승
의 손을 잡으며 훗날 스승이 하듯 그 길을 따르
리라 용기와 지혜를 가르치며 하얀 도복에 한점

무끄럼 없는 젊은이가 되리라. 가슴을 펴라. 이
세상은 우리 태권도인의것! 사랑과 신념이 가
득찬 대환의 자람! 그속에 자리잡은 나의 원더
패지야! 다시 한 번 상진이를 이끌어 주신 일
승길 사범님께 뜨거운 감사사를 올리며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윤 석 구



머칠 전 일이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어깨를 내려뜨린 채 문가에 서 있는 여를승이 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직감이 떠올랐다.

다가가서 물어보니 여승이는 오늘 도장에서 배구

공을 몰래 꺼내 축구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조지 워싱턴」과 그 아버지가 아끼던 나무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조지 워싱턴」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요즈음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가졌을까를 생각해볼때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유리창을 고치고 오라고 아내를 보낸 후 나는 그러한 아들의 성장에 호뭇해 했다.

우리들은 가끔 어린이들의 지나칠 정도의 영리함에 당혹해하기도 한다. 또 어린이들을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어린이로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외아들을 강하게 키워보고픈 아빠의 마음에서 여승이를 태권도장에 보내지 어언 일년.

여승이는 키는 크지만 눈물이 많고 의지력이 약한 아이였다.

그동안 달래며 호통치며, 심지어는 장난감으로 달래서 싫다는 것을 억지로 도장에 보내면서 나는 꼭 이렇게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도 여러번 느꼈었다.

그러나 국기원에서 또 다른 어린이들과 겨루어서 당당히 품띠를 두른 여승이의 성장과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는 이 아빠의 자랑이며 보람이 된 것이다.

나는 올해들어 막내딸 여정이라도 도장에 보내기로 했다.

태권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대와 더불어...
이제 남매를 태권도 식구로 키우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는 아내에게 사랑과 찬사를 보낸다.

날으는 원더 돼지

김 애 라

(서울 신우국민학교 어머니 회장)
" 육성회 이사)



소년은 힘을 쓸줄 모르는 미련하고 살만전 우렁아입니다. 어느 추운날, 소년은 긴 여행을 떠납니다. 회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허리에는 흰띠를 두르고 소년은 흰대열에서 자꾸만 멀어

져 갑니다. 그러나 소년은 거북이를 달았습니

다 쉬지않고 꾸준히 앞만 보고 갑니다. 노란 고개

를 겨우 넘겼습니

다. 파란 잔디가 속삭입니다.

소년아! 인내와 용기를 가져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쳐도 꽃피는 계절이 와도 흔들리

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소년은 묵묵히 저

기 보이는 파란 언덕으로 향해 갑니다. 그곳엔

소년을 기다리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딱딱

하고 억센손이지만 소년에게겐 뜨거운 피와 용기

를 주는 신선의 손입니다. 그 손을 잡고 붉은 고

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합니다. 계절이 바뀔니

다 하늘빛이 변했습니

다. 소년은 앞집이 그 순간 의

지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 손은

아버이의 정을 느끼게 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

다. 소년은 검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거대한 성인 국기원으로 향해 힘찬 걸

음으로 들어갑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굳센

손에 이끌려 딱아은 실력을 대결의 장에서 보이

기 위한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두팔을 뻗

어봅니다. 손에는 노력의 결실인 품증을 받고,

많은 세월은 소년에게 용기와 인내 신념을 배우

게하며 넓은 공간속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지

나와 태권도

국기원 어린이시범단 주장 김 경 호



제가 처음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된것은 부모님, 선생님, 사범님의 덕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태권도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급이 올라가고 띠를 갈아매는 재미에 하루도 빠짐없이 태권도를 했습니다.

국기원에 가서 태권도 1품 심사를 보고 합격했다는 얘기를 사범님으로부터 듣고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태권도를 한 친구들이 전부 공부를 잘하자 태권도를 더욱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태권도를 하다보니 어떤 때는 피가 생기도 했으나, 남자는 중간에 그만두면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선생님 말씀을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했습니다.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그만 두었습니다. 태권도를 그만두는 친구들을 볼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만들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듭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열심히 수련해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어린이 시범단이 되고 언니들이 졸업하자 어린이 시범단 주장이 되었습니다. 외국도 많이 다니면서 시범을 했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귀한 손님들 앞에서 많은 태권도 시범을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는 태권도를 배우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꼭 될수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런 태권도를 계속 할 것입니다.

부모님, 사범님,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호는 꼭 나라를 위하는 자랑스러운 태권도 사범이 될 것입니다.

나의 수련기

방배중학교 1학년 고 동 윤



저는 지금 방배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고 동윤이라는 한 소년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흰 태권도복과 흰 띠를 두르니 좀 어색하였으나 태권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수련이 끝나면 모두들 청소를 하는 때 나는 하기가 싫어서 띠를 부려 구충을 들은 일도 허다합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힘이 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권도 겨루기 시험이나 국기원 심사 때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태권도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범님의 가르침이신 인내와 국기의 정신으로 어느새 「품」자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했을 때는 떨려서 발은 나가지 않고 주먹만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시험 때에는 그래도 발 공격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수련을 많이 해야 시험을 잘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태권도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던 된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해 볼만한 운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

멋있는 품세와 겨루기, 격파 등은 정말 사내 답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 친구들에게 권합니다. 태권도를 한번 배워 보라고!

여고생 수련기

은평고 2학년 박 은 미



우선 태권도라면 남자들이 하는 운동이라고들 하며 여자로서는 무리한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태권도를 볼 때마다 「나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슴에 웅숭

음 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은평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입학한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다는 말에 운동부에 들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태권도를 하게 되었다.

우렁찬 구령소리와 손발의 동작은 나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여자로서는 좀 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끔 느끼면서도 나는 꼭 이거 나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하루를 뜻있게 보내다 보니 1년이란 세월이 훌쩍 벌써 2학년이 되었다.

저 높은 하늘을 꿰뚫기라도 하듯이 자그마한 나의 발을 하늘을 향해 차 올릴 때마다 남자 못지 않는 기량과 의지를 나 자신이 느끼곤 한다. 하지만 내가 태권도를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여자이기에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힘이 들었다.

무리한 일인줄 알면서도 남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였다. 그래서 유단자가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을 때 운동을 그만 두었으면 지금 이 글을 쓰지도 못하고 후회 하고 있

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의 신념을 지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게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生活哲學으로서의 跆拳道

태권도지 창간 10주년에

서울교육대학 김 정 호

내가 「跆拳道」를 처음 對한것은 '80年 大學進學 後 跆拳道를 서클활동으로 擇하고 난 뒤였다.

태권에 關한 豫備知識도 充分하지 못했고, 지르기 발차기 한번 正式으로 해보지 않은 태권이었지만, 어렸을적 부터 태권에 關한 好奇心과 關心이 상당하였기로 큰 저항없이 금방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무도인의 궁지로서 심신을 수련하며 무도인의.예절을 갖추고 항상 겸허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生活한다는「우리의 다짐」을 새기며 더욱 태권에 情을 깊이 했고 나름대로 겸손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運動의 한 分野로서만의 跆拳道는 태권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못한다. 운동의 한 분야라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個人의 人格修養에 基礎를 이루어 주는 양식으로서의 태권이 될 수 있기를 希望한다. 生活의 場에 스며들어 하나의 生活哲學으로 자신의 몸매 배일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跆拳道會誌「跆拳道」는 氣魄으로 살아가는 跆拳道人들의 삶의 現場과 體驗活動의 實例를 보여줌으로써 태권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성의있는 태권인들의 현명한 안내자의 역할 훌륭한 조연자, 생활의 지침서가 될수 있도록알차고 實한 內容으로 위여지기를 기대한다.

韓國 跆拳道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태권도지의 계속적인 향상을 축원하면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선배들에 못지 않은 태권도인이 되도록 열성어린 수련을 지속하였다.

비 오는 계절

金 健 中

〈지난 줄거리〉

십 여년 동안 후진 육성에 참신하게 몸 바쳐 왔던 한문호 판장은 동료로부터 무인가, 도장이라고 고발을 당하자 회의를 느끼고 후배 문사범에게 도장을 물려준 뒤 떠난다.

문사범은 한판장의 그 뜻을 받들어 도장을 운영하던 중, 그 지역 자체 대회에서 십판의 오판과 그릇된 정기운영이 동심을 울린 것이 못내 가슴 아파하며 도장을 돌아 왔을 때, 미국 Q체육관 하사범이 한문호 판장을 초청한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그 후, 문사범은 한판장을 수소문하여 만나게 된다. 그러나 한판장은 한사코 미국초청에 냉담하기만 했다. 결국 끈질긴 문사범의 설득에 문호체육관으로 돌아온 한판장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수속과 피나는 [백원도 수련에 임하던 어느날, 오피스로부터 여권이 나왔다는 전갈을 받고 갑자기 문사범을 부르더니 말끝을 흐린다.

「부르셨습니까?」

몸을 추스리면서 한판장 곁으로 다가온 문사범은 그의 표정에 드리우는 희색빛 그늘을 발견하고 한판장의 다음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는 내가 미국에 가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이죠.」

「난 그렇게 생각칠 않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냐 그제 아냐. 이 한문호가 흡사 큰 죄라도 짓고 쫓겨가는 기분이야.」

문사범은 한판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분명 한판장은 자신도 주채할 수 없는 허허로운 감정의 도가니 속에서 헤메이고 있음을, 해서 이런 경우 긍정의 자세 보다 부정의 자세가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판장님. 절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문사범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그의 가슴 내부에는 축축히 배어 나오는 인간의 물기가 흐르고 있었다.

「문사범 자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먼.」

「미국 문제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

입을 굳게 다물며 침통한 표정으로 성에건 유리창을 손으로 문지르는 한판장의 모습을 뒤로 둔 채 문사범은 밖으로 나왔다.

그로부터 얼마 아니돼 문사범이 여권을 찾아왔으나 한판장의 시큰둥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흡사 강 건너 불보는 격이었다. 그러나 문사범은 그런 태도에 굴하지 않고 비자/신청을 서둘렀다. 허나 엉뚱하게도 한판장은 전국의 태권도장을 돌아 보겠다고 제의해 오질 않는가.

「아니 판장님. 지금 그럴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 여유라니? 이 사람아 시간은 내면 되는 거야.」

「판장님 이제 기왕지사 미국에 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헌데 새삼 무슨 여행 일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시간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낭비가 아냐. 가장 중요한 문제야.」

고집 불통인 한판장은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문사범은 한판장의 황소 고집에 한발 양보 해야만 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얼마 전 구경을 맞이하고 휴식이랄까 취하듯 한산하기만 했다.

완전히 봄기운이 맴돌았지만 그래도 꽃샘바람의 시리움은 옷깃으로 스며들어 왔다.

한판장은 문사범이 내미는 부산행 승차권을 받아 쥐고 씩씩히 웃어 보이며 버스에 올랐다.

잠시후, 「버스」가 미끄러지듯 「터미널」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한판장은 조용히 시선을 차량 밖으로 뒀다.

지금껏 살아온 서른 다섯해의 세월.

그 중에서도 태권도로 보낸 십여년의 세월. 참으로 생각을 기우려 보면 어중잡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진한 피의 끈끈한 흐름이 얼룩지듯 선명한 자국이 남는 그런 세월이기도 했다.

그 흐름 속에 청운의 꿈을 안고 문호체육관을 개관하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첫 승단자에게 검은띠를 매어 주던 날이 떠올랐고 처음 시합에서 문하생이 참패하던 기억, 그리고 그 참패의 교훈으로 이듬해 금메달의 영광을 안고 환호성에 물들던 순간들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 뿐이라.

제자가 어언 4단 승단 후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도장을 개관하던 날의 기쁨. 실로 가슴 뿌듯한 순간들이 「슬로우비디오」 화면처럼 연속으로 아롱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된 순간을 생취하기 위하여 한판장 개인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가슴아픈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름하여 「이혼」이라는 두 글자였다. 하지만 그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문호 체육관을 개관하고 서너달쯤 되어 중매 결혼을 했으니 일년이 채 못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그 당시 태권도 사범의 생활이 식생활에 곤란을 주었고 그 곤란은, 커운 풍토가 다른 그의 아내로서는 견디기 힘든 문제였다. 결국 그것이

늘상 그들의 신혼생활에 티격 태격 싸움을 동반하게 했고 결론은 이혼이라는 골인점에 다다른 것이다.

어쨌든 그 이혼이 주는 의미는 실로 한판장의 경우에는 가슴 아픈 좌절과 우울증을 동반하는 것이었지만 그로인해 더 더욱 후진욕성에 이를 악물게 했다.

고속「버스」의 질주가 감속되면서 연한 흔들림이 한판장의 몸에 와 닿았다.

여기껏 눈을 슬며시이고 있잖으면 담배 연기를 푹썩썩 날리던 그가 몸을 고쳐 앉았다.

어느새 부산에 도착했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여행인지라 막상 부산에 도착하니 갈 곳이 없었다. 아니 그보담도 초행길인 그에게 비릿한 바닷바람이 코끝에 전해질 때 그저 방향감각을 잃고 있었다.

얼마쯤 망설이다 질퍽하게 트인 길로 걸어나갔다. 이내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기사에게 구경할만한 곳을 물으니

「손님예. 지금 시간엔 늦었심더 태종대 좋타 아입니꺼. 마 저녁엔 남포동, 자갈치로 해서 광복동 그쪽이 끝내 좋니며. 멧길 입니며.」

「기사 아저씨 혹시 태권도장 아는 곳 없읍니까?」

「뭇락요? 태권도장요? 마 우리 아새끼도 오늘 십사락 하던메...」

「그래요. 그럼 아드님 다니는 도장으로 가주슈.」

한판장은 얼마쯤 지나 택시가 멎은 곳에서 이내 도장의 간판을 발견했다.

헌데 도장이 나란히 두개가 맞붙어 있음은 물론 현판엔 똑같이 승급심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아니? 서로 매립이군...」

웬지 씩씩해짐을 느꼈으며 한판장은 눈을 감았다.

양쪽 도장을 살펴보니 한쪽은 ××종합체육관이고 또 한편은 △△체육관이었다.

망설이던 한판장은 규모가 적은 △△체육관으로 들어섰다.

이십여평 남짓한 곳에 승급심사를 받기 위해

30여명의 관원이 죽 나열해서 있었다. 그리고 심사석에는 단 한사람의 사법이 도복차림으로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한판장은 웬지 그 모습에서 코허리가 정해움을 느끼며 심사적으로 닦아갔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마친한 판장은 같이 심사를 보기위해 옆자리에 앉았다.

「어쨌 혼자 심사를 보십니까?」

「마 그렇게 됐심더, 승급 심사락 하몬 사사 사법이 보고 잘된점 못된점을 가려내야 다음에 가르칠때 참고 안되겠심니까. 물론 권위의식이 다 뭐다 하지만 지는 그거 딱 질새입니다. 어떤 도장보면 복덕방 영감도 태권도 고단자네 뉘네 하며 부형과 관원에게 소개하고 거창하게 하지만 그제 다 기만 아닙니까.」

「...음은 말씀입니다.」

한판장은 고지식하고 철저한 △△체육관 G사범으로부터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

사실 승급심사때 보면 어쩌구 저저구 하여 태권도와는 무관한 사람을 심사석에 끌어들여 <태권도를 인식시킨다는 의미가 아닌> 왕왕 거창함을 내 세우는 것을 아니 보아온 것은 아니었다.

「저 G사범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옆에 ××종합체육관은 뭐입니까? 어떻게 서로 밀접되어 있게 됐는지요?」

「그 얘기 하몬 지가 부끄럽심더. 저놈아는 원체 태권도가 아닌기랴요. 지가 마 한오년쯤 이곳에 안있었능교. 작년에 ××도라카는 운동으로 간판을 걸더니만 얼마 안돼 태권도도 겸하며 종합체육관으로 운영하니 참말 환장 하겠심더.」

「그럼 그 친구가 태권도도 했는가요?」

「누가 아닙니까. 지가 마 태권도 했닥하몬 말도 안함니까. 워서 조루래기 하나 구해다 놓고 지는 판장이다 하며 쟤다 아닙니까. 포스타 좀 보소 지가 ××도 6단에 ××도 6단에 태권도도 명예 6단이랴꼬 썩 있지 않능교. 종합 18단이라는 메야. 기가 참니까, 안 우습습니까?」

「그러면 그런 진상을 밝혀야 되잖습니까?」

「밝혀요?」

「암 밝혀야쥬.」

한판장은 힘주어 말했다.

「한판장님 와 이리 답답한교?」

「네에?」

「저놈아 사무실 가면 버젓이 ××도 ××도 6단증이 걸려있고 웬놈의 상패와 트로피가 기리도 많은지 주눅이 들게 돼 있심니까, 생각해 보소. 교육청인가라는게 설립자는 단증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 않음니까. 강사<사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내사마 죽작하고 운동했어도 저놈아 같이 인가장도 없고 파의 교습자 등록으로 안가르침니까.」

「...음...」

한판장은 뭔가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도 뭐라고 딱집어 할말이 없었다.

인원이 많지 않은 30여명의 심사를 끝내고 한판장은 G사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합체육관으로 갔다.

응심자가 100여명은 될지했다.

심사석에는 우람한 체격을 가진 십여명이 심사를 보는지 근엄한 표정으로 담배를 뻑뻑 빨며 앉아 있었다.

한판장은 심사석으로 가서 그곳 M판장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옆에 자리했다. 그런데 심사를 잠시 중단시킨 M판장은

「에 여러분 방금 중앙에서 저희 심사를 보기 위해 한문호 판장이 도착했읍니다. 저희 ××종합체육관이 항상 귀하시고 저명한 사범님들을 초청해서 심사에 임한다는 걸 부형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차. 멀리 중앙에서 오신 한판장님께 박수로 환영 합시다.」

M판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짜자작작 터져 나왔다.

한판장은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흡사 소금물을 돌이키고 난후처럼 찻찻해지는 마음과 삼류극장표를 받아온 듯한 착각에 젖는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며 심사는 웅성거림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줄곳 한판장은 M판장의 비속한 처사에 메스꺼워짐을 달래기에 바빴다.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뒷견에서는 「부라보론」

을 먹는 녀석에 껌을 씹는 녀석에 아롱튼 참으로 심사를 모독하는 것같은 불쾌감이 더이상 버티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내 환관장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에 저 바쁜 일이 있어서…」

황급히 뒤돌아 보지 않고 나왔다.

환관장의 등뒤로 “환관장님이 또 다른곳 심사에 잠깐 다녀 오신다고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꽤나 불쾌해진 기분으로 스적스적 △△체육관으로 올라갔다.

G사범은 환관장의 트정을 읽고는

「내 뭐라 했습니까. 환관장 승미나 내 승미나 똑같은데 그런꼴 보겠습니까? 나가서 대포환잔 하십시오.」

G사범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환관장을 끌고 영도다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휘황 찬란한 향도 부산의 바거리는 환관장의 게름직한 춤전의 기분을 다소라도 씻어주고 있었다.

이튿날.

G사범의 안내로 태종대로 갔다.

산을 감아돌며 펼쳐진 아스팔트를 따라 걸었다.

산허리를 감고도는 한켠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 태양을 받아 반짝이는 은빛 반사체는 참으로 생선비늘을 뜯어말린 것처럼 일품이었다. 그 반사체를 바라다보는 즐거움에, 병풍처럼 둘러친 바위가 주는 자연의 오묘함에 신기함을 느끼며 환관장은 점점 도취되고 있었다.

얼마쯤 걸었을 때 G사범은 개인날은 대마도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순간, 환관장은 자신이 최남단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출렁이는 검푸른 파도로 시선을 옮겼다. 헌데 문득 그 파도로부터 이순신장군의 선영을 보는 착각에 숙연해짐은 왜일까?

얼추이 서너시간을 바닷바람에 취한 후 돌아오니 온몸으로 여독이 스멀스멀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건 웬지 G사범이 자신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걸 느끼면서, 정면 아쉬운 차별에서 비롯된 기분인상 싶다.

환관장은 서둘러 대구로 향했다.

곧바로 대전에 있는 학교 동기동창 성일에게 가려고 했으나 우연히 알게된 대구 한X체육관의 L사범을 이기회에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 것같은 예감이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은 체구지만 그가 주는 사나이다운 매력과 특히 참신한 태권도인의 상을 환관장은 믿어의심치 않기에 더욱 L사범의 얼굴이 그려지기만 했다.

아몽든 예정대로 L사범과 하루저녁의 짧은 해후를 마치고 아쉬운 눈망울로 헤어져 대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두시간 남짓 지나서 대전에 도착하니 황량한 바람이 발길을 휘어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발길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한문호관장의 가슴속에서 쉬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설레임의 바람이었다.

환관장은 갈색「바바리 코트」깃을 세우고 스적스적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이내 「다이알」이 돌려지고

「성일이나?」

「나 문호다.」

「어! 어디냐?」

「대전에 왔어. 너 보고 싶어서……」

「그래 내 그리갈게 기다려.」

급히 전화를 끝는 성일이다.

이십분이 채 못돼.

담청색 「포니」승용차가 환관장앞에 정차했다.

「야! 야야.」

차안에서 성일이 소리치며 총알처럼 뛰어나와 환관장의 손을잡아 흔든다.

성일!

생명처럼 아끼던 환관장의 유일한 친구였다.

기실 환관장은 미국 떠나기전 성일을 만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는지도 모른다. 것처럼 환관장은 성일이라면 아끼는 친구였고 미미운 사람이었다. 흡사 고향을 느끼게하는 그런 존재였다.

어쩌거나 승용차에 오른 환관장은 한참없이 기쁘기만 했다.

얼마쯤 승용차가 시내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런데 성일의 자택인 유천동으로 가는줄 알았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의아해서

「성일이 방향이 틀린데…」

「맞아. 가보면 차차알게 돼.」

성일은 한쪽 쌍꺼풀진 눈이 작아지며 미간의 주름살을 일렁이며 나중히 말했다. 그는 늘상 사생활의 변화가 있을때 이런 표정이었다.

「뭐야? 궁굼하잖니?」

「참 너 이혼하고 재혼 하머니 어때?」

「갑자기 그건 왜 묻니?」

「필요하니까.」

「필요?」

한관장은 성일의 어감에서 문득 와닿는 것이 있었다. 해서 더이상 묻지 못하고 읊제년스러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솔직한 네 조언이 필요한거야. 문호야 너만은 날 이해할줄 믿는다. 나 실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보기 드물게 성일은 심각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가능하면 이혼이란거 하지마.」

한관장은 도리질치며 성일의 말을 가로 막았다. 그순간 차가 목적지에 왔음인지 정차했다.

「다 왔어, 내려. 그리고 암말말고 따라와.」

성일은 앞서서 걸어갔다.

화려하지 않은 한옥 대문앞에 다달랐다. 성일은 아무말없이 대문구석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안에서 스텝퍼 끄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구세요.」

분명 청아하고 옥이 구르듯 매끄럽고 다정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한관장의 귓속으로 파고들어왔다.

한관장은 웬지 가슴을 비수로 찌르듯 아파움을 느끼며 성일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연재를 켜나가는 데 일선 사법님이나 태권도인의 의견이나 방향제시등을 필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낼곳 130-14 경기도 성남시 신흥1동 84-85

TEL 3-2787

〈社 告〉

海外 消息 投稿 歡迎

海外 駐在사법의 投稿를 환영합니다. 보내주시는 海外師範의 原稿는 본 跆拳道誌의 編輯자료로서 海外活動의 現황을 알고, 弘報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니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接受된 原稿는 도착 順으로 本誌〈세계로 뻗어간 태권도〉란 또는 〈특별기고〉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34-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내

태권도 편집실(57-1058, 1059, 3024)

태순양

최 경 철



慶北 태권도협회

새 執行部의 構想



경북태권도협회장 박 정 규

『계보간의 파벌 의식이 하루속히 해소돼야겠습니다.』 朴正圭 慶北 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발전의 암적 요소가 계보 간의 갈등이라며 이를 꼭 척결하고 말겠다고 다짐.

서울에서만 실행해오던 전국대회를 금년에는 慶北에 유치할 예정이며 집행부 내의 잡음, 불화를 없애기 위해 심사·경기·심판등 각 분과 업무를 독립시켜 소신껏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집행부 체제를 만들겠다고.

학교태권도를 중점 육성하겠으며 실업팀 창단도 구상 중이다.

선수강화훈련을 위해 전용 체육관 건설을 구상중이라는朴회장은 『지도자 자질향상 및 도장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태권도 승단 및 승급심사의 위계질서를 꼭 확립할 작정이라고.

제30기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경북 협회장 박 정 규

새시대 새로운 태권도는 지방에서부터 꽃이 피어가는 것 같다.

대구에서 개최된 2,3급 심판자격 및 제30기 지도자교육은 많은 수강자들의 참여속에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구 체제의 비리에 잠시 거리를 두었던 일선 학교 지도교사, 공공기관 단체 및 고단자들이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태권도의 정열을 불태웠다.

태권도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때 회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책인가를 새삼 느꼈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번 3급 심판교육의 수강자중 홍일점인 김안자 4단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금년 56세의 고령자인 임치락 사범이 3급 심판자격 및 지도자

교육에 열심히 임하므로써, 젊은 사범들의 귀감이 됐으며, 다른 교육생들도 열의가 대단했다. 또한 본회 고문단에서 물적 지원을 맡고 있는 안세환 고문께서 직접 3급 심판과 제30기 지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셔서 실무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

두번의 교육을 무난히 끝낸것을 회장으로써 만족감을 느꼈으나, 체육단체의 난제인 재정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고, 실무자들의 자세도 올바르게 잡혀야겠다.

중앙장사 및 교육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에서 처음 실시되는 지도자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음의 교육을 더욱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길 바라본다.

제29기 지도자 교육

제29기 지도자 교육이 80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 동안 국기원에서 116명의 수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80년의 마지막 교육을 장식했다.

첫날 입소식에서 김운용 원장은 훈시를 통해, 지난날 태권도의 발전을 바탕 삼아 지도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종주국으로써 위치를 공고히 하라고 당부하였으며

추운 날씨에 교육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도자토론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일선 사범들의 건의를 받고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큰 인기와 성과를 거두었으며 건의사항은 국기원 연구실에서 종합 정리하여 태권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10일간의 교육기간에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강의에 임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도자 교육이 회수를 더 할수록, 눈에 띄게 나타났다.

수강자 전원은 무사히 교육을 끝내고 전원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았으며, 김원장은 강원식 부원장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에 임한 수강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강의 시간의 재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수강생들의 의견도 많았으며 꼭 필요한 과목을 연구검토 하기로 관계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제29기 지도자교육 수료자 명단(서울)

80. 12. 4~12. 13

이재원	이병흠	서옥근	배성실	김근수
서정만	소병모	유재복	소병길	이문태
유철응	김용태	송장우	최이석	조천식
김영시	김형기	이계극	조용일	한국선
양인석	김낙권	노귀환	김영석	안용남
신천수	최정남	정태석	양병석	유길호
배석출	홍재운	김대식	김진성	서태만
이오연	천금율	진성호	곽성훈	심명섭
양재근	신동점	박원상	김진시	박승용
남장성	이환선	김호준	이종영	최광석
김재광	이필호	김원호	양병훈	강의현
강희택	김관식	김종삼	박동식	안정조
하현우	최승규	정석영	최덕병	류근태
양영호	이정학	최광준	신재용	장종희
이영종	김영돈	이 연	신달승	정문식
정영규	김형조	김진광	김홍배	장종태
백태상	전정석	이명우	육대숙	김병관
박병태	이길수	강도선	문상훈	윤창욱
이인재	김춘종	장효규	차순화	최종숙
김지용	이종관	이용길	김종진	김동일
박상권	이결주	유하수	강승화	김광현
윤여진	박영철	김덕수	송우길	강성일
박용규	이용목	이재길	양해룡	장종갑

제30기 지도자 교육

제30기 지도자 교육이 광주와 대구 그리고 부산에서 열렸다.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8일간 47명, 경상북도 대구에서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50명, 그리고 부산에서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58명의 수강자가 열심히 교육을 받았다.

지도자 교육 지방개최는 1980년도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건의를 김운용회장이 받아 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개최의 장점으로 수강자들의 편의를 들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론 중앙 임원 및 강사의 지방출장으로 태권도 행정의 공백상태·수강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을 제외한 시도지부의 지도자교육은 수강자들이 도청소재지까지 와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수강자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은 마찬가지였다.

도청소재지 수강자를 위해 교육을 지방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의 교육은 다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교육에 노고가 많았던 시도지부 관계자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전남 지도자교육 수료자 명단(광주)

81. 3. 1~3. 8

채희철	한봉인	김영관	김진갑	정상모
최영만	오주열	이영석	김규봉	조철현
윤웅석	서귀선	이평중	박상문	임대택
윤성기	이천석	장호호	전호갑	김명원
이용섭	박상수	이영배	최경양	김재철
최운배	김종문	구희성	김영대	박홍식

장문규	김종진	김경호	김두원	박봉춘
이일환	김승환	전중의	최선수	김익노
국명화	이철무	유충희	이동섭	유성철
이기도	박종철			

경북 지도자교육 수료자 명단(대구)

1981. 3. 23~3. 30

김진관	박철화	서성학	장성조	김진환
안세환	천삼수	조용명	정현재	김상일
유영재	정재석	이동열	한상웅	이재선
양경덕	임치락	남인도	손철덕	양재철
이용우	황창구	황달호	정우득	김갑준
최길효	김운환	김규현	박유서	장진환
장세민	김중기	신홍수	윤판봉	박성학
서정식	권재열	노용조	이규천	정정규
김학돌	강덕구	정태식	정태열	정락철
장상욱	정태식	김종오	천성구	최삼송

부산 지도자교육 수료자 명단(부산)

1981. 4. 18~4. 25

고시식	한명숙	김석규	홍창의	정성희
정수화	김영철	김규수	이형진	곽송돌
허외식	최재일	강경남	최용대	김영수
전덕문	김일동	이재수	차도철	이수길
천석우	정대식	이수정	김광신	김재준
양종배	정종신	최태권	박가서	김철영
김복근	김진복	김춘식	최원범	문창원
김종영	안상설	김 곤	오명근	오영근
김형주	이철주	박인덕	조성윤	김동열
박영우	이상화	김용구	김청이	이규철
이강판	성낙우	류성택	김대석	한동균
정문갑	차동철	서옥근		

각급연맹 및 시도지부 임원명단

대학 연맹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정	범 모	충북대 총장	
부	회	장	노 회 덕	서울대교수 체육과장	
"	"	이	금 홍	대구총업 대표이사	
"	"	전	수 신	삼성전자 이사	
전무이사		정	찬 모	서울대 강사	
실행이사		고	홍 환	연세대 교수	
"	"	최	인 범	경기대 교수	
"	"	조	근 중	한양대 교수	
"	"	정	행 도	명지대 교수	
"	"	김	은 환	서울산업대 교수	
"	"	배	재 웅	한사대 교수	
"	"	권	영 원	청주대 교수	
"	"	임	빈 장	서울대 교수	
"	"	남	종 선	유도대 교수	
"	"	이	형 진	동아대 체육과장	
이	사	송	석 영	한국체대 교수	
"	"	박	성 순	국민대 교수	
"	"	윤	병 열	홍익대 교수	
"	"	임	미 자	이화여대 교수	
"	"	강	진 홍	경상대 교수	
"	"	박	동 기	동국대 교학과장	
"	"	정	순 철	세종대 교수	
감	사	김	순 배	태권도협회 전문위원장	
"	"	오	현 환	단국대 교수	

중·고등학교 연맹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김	한 선	국회의원	
전무이사		박	창 덕	영등포교 교사	
총무이사		최	영 열	남산공전 교사	
경기이사		김	인 수	동성교 교사	
심판이사		윤	태 곤	한영중 교사	
연구이사		이	현 갑	대성교 교사	
설의이사		김	찬 회	대성교 교사	
이	사	김	부 영	교려중 교사	
"	"	남	상 덕	성동상전 교사	
"	"	이	충 구	성암여상 교사	
"	"	정	해 주	은광여교 교사	
감	사	조	현 길	한성중 교사	
"	"	이	택 명	서울시경 사범	

국민학교 연맹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곽	경 배	도진실업 대표이사	
부	회	장	이 대 성	일신건설 "	
"	"	지	동 원	송신국교 교사	
전무이사		주	상 일	선곡국교 교사	
이	사	김	광 호	안암개발 대표이사	
"	"	고	영 수	개그맨	
"	"	전	영 채	회사원	
"	"	한	구 상	미양국교 교사	
"	"	한	규 인	홍사단 서울시 지부장	
"	"	이	상 용	어린이보호회 회장	
감	사	고	재 일	공인회계사	

서울특별시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봉	두 완	국회의원, 민정당대변인	
부	회	장	김	영 춘	인성의원 원장
전무이사		전	용 하	태권도사범	
총무이사		송	봉 선	"	
이	사	김	기 진	미8군 남품업	
"	"	나	경 열	제일공업사 대표	
"	"	박	회 수	대동한의원 원장	
"	"	강	영 식	회사원	
"	"	박	병 식	한국종합경제연구소 전무이사	
"	"	나	병 대	G.Q. 봉제공업사 대표	
"	"	김	중 우	홍연국민학교 체육주임	
"	"	백	승 기	한양대학교 부교수	
"	"	김	체 욱	"	
감	사	김	용 태	삼용수퍼마켓 대표	
"	"	김	동 철	태권도 사범	

부산직할시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손	선 익	왕표연탄(주) 사장	
부	회	장	김	종 필	태성해운(주) 상무
"	"	김	병 출	백양상사 대표	
"	"	변	희 수	동원건축설비공사 대표	
전무이사		김	일 권	미8군부산 기지사령부 태권도사범	
총무이사		최	성 권	천무체육관 관장	
이	사	서	옥 근	부광체육관 관장	
"	"	정	복 단	광안체육관 관장	
"	"	김	성 근	동래체육관 관장	
"	"	차	동 철	영남제일중학교 교사	
"	"	김	병 결	중앙국민학교 교사	

직 위	성 명	직 업
이사	이근우	전일체육관 관장
감사	전두원	왕표연탄(주) 상무감사
"	이용복	장립체육관 관장

경기도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장	전영화	건축업
부회장	문화룡	체육인
"	임석환	"
"	구종기	"
"	안종용	"
전무이사	윤치영	인체체고 교사
총무이사	김동식	체육인
경기이사	최은교	"
심판이사	홍재학	"
상벌이사	황명송	"
조직이사	원교식	"
섭외이사	유기훈	"
교육이사	한상윤	"
감사	최번설	"
"	이치훈	"

강원도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장	김성태	광업
부회장	윤영철	상업
"	유창식	"
"	고봉준	"
전무이사	박병철	체육관 관장
사무장	최문식	회사원
경기이사	김광연	체육관 관장
심판이사	김홍수	"
시설이사	백종주	교사
이 사	백주영	상업
"	박경근	"
"	임동현	광업
"	송동현	"
감사	황인갑	"
"	유연동	"

충북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장	신원근	신광골채 대표
부회장	정익진	채전체육사
"	김종선	원주지업훈련소

직 위	성 명	직 업
부회장	정만순	청주대학교 강사
전무이사	김용	화상사 이사
이사	심규완	내수중학교 교사
"	신현식	가덕 "
"	김광수	무덕체육관
"	김정호	체전 "
"	신용철	서울 신용금고
"	최창원	신흥고등학교 교사
"	심개기	모충국민학교 교사
감사	정해열	증평중학교 교사
"	윤성희	충주체육관

충청남도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장	이정록	현대건설 대표
부회장	하종상	행운전자 대표
"	이길재	체육관 관장
"	정영	번호사
전무이사	정엽	태권도인
총무이사	김창환	남북특수조자 생산부장
경기이사	김기복	버들양장점 운영
심판이사	박선용	미곡상 경영
섭외이사	최승	충남도청공보실 사무관
공보이사	이광열	공군기교단 단준위
시설이사	이계승	남대전교 교사
감사	권석원	삼평중학교 학생과장
"	박상도	충남도청비상대책담당관실

경북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장	조재석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회장	이상완	대구지검 검사
"	김태원	성심의원 원장
"	이종호	청도체육관관장
전무이사	오광웅	백파도장 관장
총무이사	예조해	영천도장 관장
경기이사	장한결	태권도인
심판이사	이영호	용호체육관 관장 경전여객
삼사이사	홍순철	성광고등학교 교사
이 사	박팔근	삼화기업사
"	배재웅	한사대학교 교수
"	윤용일	경북체육 교사
"	이말식	고려자동차
감사	김문규	부림체육관 관장
"	윤집수	보라매체육 관장

경남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이	도	제	목업
부	회	김	태	제	조업
"	"	남	재	상	업
"	"	이	순	"	"
"	"	김	태	진	교육공무원
전무이사		박	응	용	공무원
총무이사		강	성	환	"
이	사	이	승	학	"
"	"	공	경	찬	건축업
"	"	조	희	삼	공무원
"	"	정	우	식	업
"	"	유	기	준	공무원
"	"	배	영	석	회사원
감	사	김	위	수	상업
"	"	장	춘	식	운수업

전남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김	두	원	김신경 외과원장
부	회	박	봉	춘	기아산업 광주지점장
부	회	조	태	열	태권도인
전무이사		박	창	웅	태권도인
총무이사		윤	관	석	사업
경기이사		황	정	남	체육관 판장
이	사	구	희	성	농장경영
"	"	김	현	수	화순고교 교사
"	"	임	세	빈	보성중 교사
"	"	한	길	진	체육관 판장
"	"	김	민	철	"
"	"	임	준	모	"
"	"	박	현	종	"
감	사	박	정	성	전남체고교 교사
"	"	이	정	남	체육관 판장

전북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진	홍	철	에그린주택 사장
부	회	문	창	균	체육관 판장
"	"	차	광	호	동성산업 대표
전무이사		장	한	철	체육관 판장
총무이사		이	병	화	"
경기이사		한	정	수	"
시설이사		오	인	규	군산제일중 교사
기획이사		오	학	수	원광대 교수
설외이사		김	영	휘	군산제일고교 교사
이	사	김	순	성	수산지더센타 사장
"	"	김	해	인	감독메인트 사장
"	"	문	명	철	성심실계 사무소
"	"	윤	석	길	성모간호 교육원장
감	사	하	기	호	체육관 판장
"	"	안	영	빈	"

제주도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장	의	전	화신택시 사장
부	회	고	유	진	경진기업 사장
"	"	고	춘	호	삼양기업
"	"	김	재	호	호텔지배인
"	"	문	무	용	농장주
전무이사		고	익	조	대한화재보험 차장
총무이사		정	진	웅	대한화재 제주지점장
이	사	김	채	균	진로제주공장 지배인
"	"	고	우	석	고려여관 사장
"	"	한	홍	식	조흥택시 사장
감	사	김	판	식	제주무역 사장
"	"	김	수	진	조양상사 사장



제97회 (1980년 12월 20일) 승단심사합격자

5단

- | | | | | |
|-----------|-----------|-----------|-----------|-----------|
| 1. 백 남 석 | 2. 이 필 재 | 3. 고 길 수 | 4. 오 제 매 | 5. 안 태 연 |
| 6. 김 재 곤 | 7. 임 영 복 | 8. 원 용 상 | 9. 안 인 모 | 10. 이 봉 |
| 11. 이 귀 화 | 12. 고 봉 진 | 13. 김 현 민 | 14. 김 영 일 | 15. 백 남 진 |
| 16. 이 정 환 | 17. 김 영 백 | 18. 김 야 갑 | 19. 김 용 태 | 20. 이 영 복 |
| 21. 김 근 식 | | | | |

6단

- | | | | | |
|-----------|-----------|-----------|-----------|-----------|
| 1. 임 종 범 | 2. 정 준 호 | 3. 장 상 환 | 4. 이 효 조 | 5. 조 천 호 |
| 6. 조 한 우 | 7. 서 인 중 | 8. 송 문 태 | 9. 최 용 남 | 10. 김 연 경 |
| 11. 정 길 춘 | 12. 김 기 선 | 13. 원 교 식 | 14. 이 종 매 | |

7단

- | | | | | |
|-----------|-----------|-----------|----------|-----------|
| 1. 김 호 재 | 2. 안 종 응 | 3. 송 봉 섭 | 4. 배 성 실 | 5. 유 영 재 |
| 6. 이 주 근 | 7. 이 도 윤 | 8. 박 용 탁 | 9. 박 병 철 | 10. 양 해 룡 |
| 11. 이 규 정 | 12. 고 경 옥 | 13. 강 영 복 | | |

제98회 (1981년 2월 14일) 승단심사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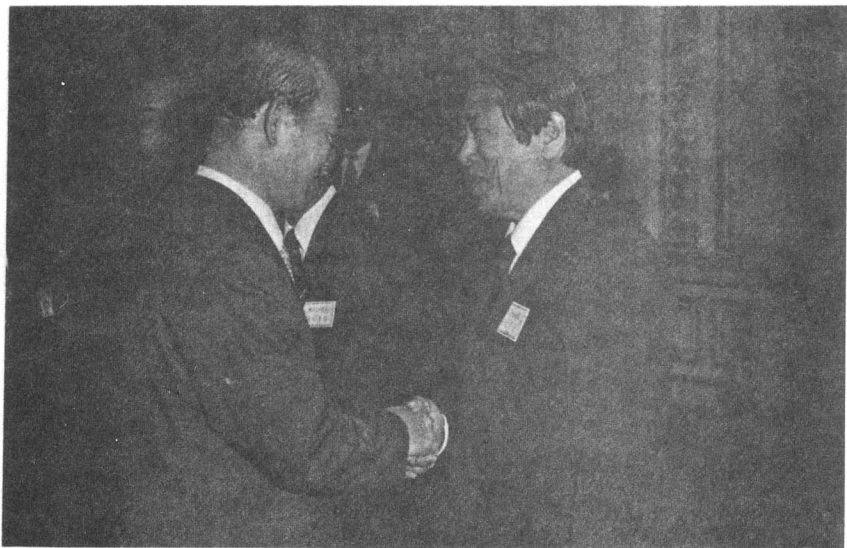
5단

- | | | | | |
|-----------|-----------|----------|----------|-----------|
| 1. 강 영 선 | 2. 주 신 규 | 3. 안 영 태 | 4. 김 낙 호 | 5. 이 근 환 |
| 6. 전 동 욱 | 7. 탁 명 래 | 8. 유 흥 희 | 9. 김 흥 룡 | 10. 박 재 영 |
| 11. 조 봉 현 | 12. 김 영 기 | | | |

6단

- | | | |
|----------|----------|----------|
| 1. 신 계 식 | 2. 장 석 주 | 3. 조 상 귀 |
|----------|----------|----------|

전두환 대통령각하 김운용 회장 접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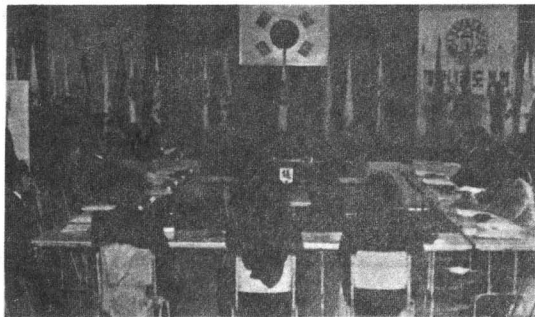


제 4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김운용 회장을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접견

His Excellency President Chun Doo Hwan meets Dr. Un Yong KIM
who returned from 4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at Chang Wa
Dae

1980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The 1980 Annual Meeting of K.T.A



1980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광경

The 1980 Annual Meeting of K.T.A
was held at K.A.S.A auditorium on
Jan 15, 1981

회의에 참석한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들의 모습 Representative from provincial chapter at the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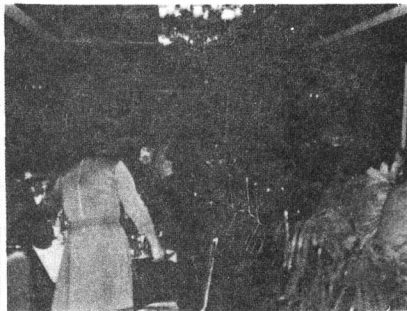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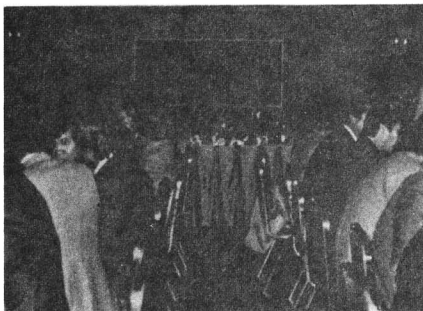
좌로부터

김순배(중앙), 박해만(중앙), 이학선(여성), 노희덕(대학), 노상석(중·고), 주상일(국민교), 고익조(제주)



좌로부터

이도재(경남), 오광웅(경북), 박봉춘(전남), 장한철(전북), 김성태(강원), 윤치영(경기), 김일권(부산), 전용하(서울)



총회후의 리셉션 광경(뉴서울호텔)

Reception after Annual Meeting at New Seoul Hotel

국기원, 태권도협회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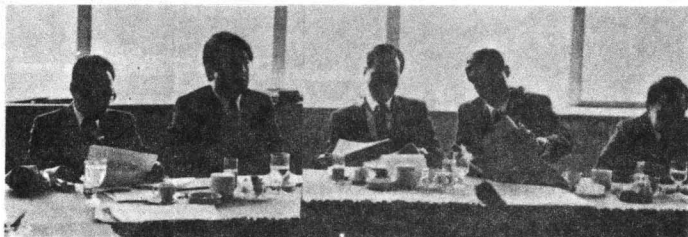
Kuk-Ki Won, K. T. A. Meeting of Dir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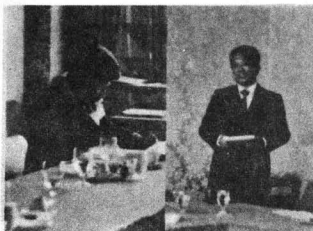
우로부터
장익용 이사
김윤용 원장
한봉수 이사
박영훈 이사
고홍환 이사



좌로부터
김영환 이사
이상빈 이사
홍문식 이사
한승조 이사
김중식 감사



우로부터
박승복 이사
안현태 이사
이현우 이사
김영원 이사
김중수 이사



인항근 감사

강원식 부원장



이사를 소개하는 원장



세제로 뻗어가는 태권도

Taekwondo
around the world

IOC 회장 사마란치씨와 기념촬영
With IOC President Juan Antonio Samaranch at IOC Executive Board-
IF meeting on 11th April 1981 at Lausanne, Switzerland



어린이 시범단 환영꽃다발
A Welcome Wreath



공중연속 격파시범(소년)
Demonstration of Continuous Flying k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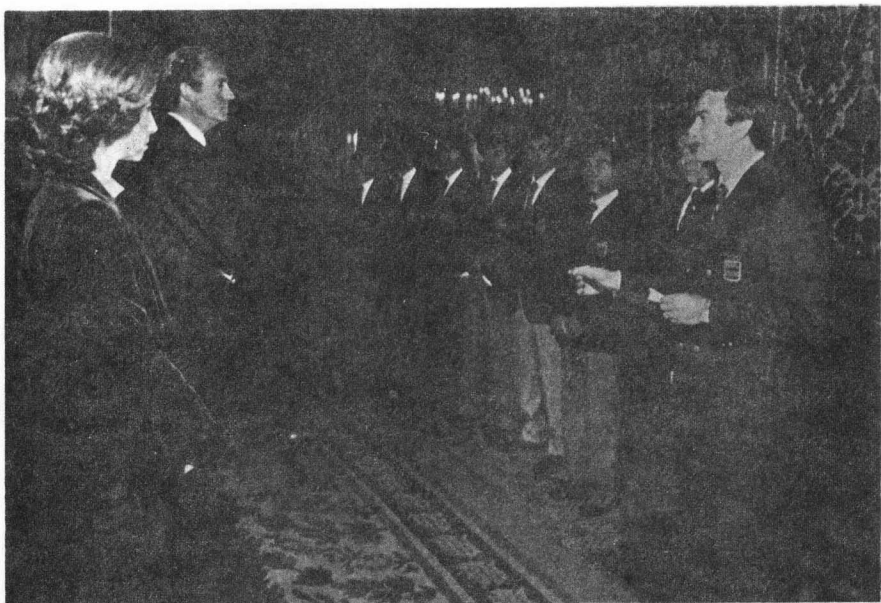


Richard Palmer; Secretary General of British
Olympic Committee



Don miller; Secretary General of U.S. Olympic Committee

명예단증 수여 Presentation of Honorary Dan Certificate



카를로스 국왕이 「제 3 회 유럽 태권도 선수권대회」(청소년부)에서 우승한 스페인 선수단을 접견하고 있다.
 Juan Carlos de Borbon, King of Spain & Spanish Winners of the 3rd Europe TKD Championships
 Tournament



제 2 회 사우디아라비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입상자와 이재학사범
 Instructor Lee Jae Hak & the winners of the 2nd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Tournament at Riyadh, Saudi Arabia (March 6, 1981)



국회 부의장 로이드 프랜시스 박사가 연방정부 특별 귀빈실에서 명예 초단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좌 이태은 사범)

Dr, Lloyd Francis, vice speaker of Canadian House Commons Assembly, receive Honorary Dan Certificate in the VIP room of the Federal Government

이태은 태권도 학교 Lee Tae-eun Taekwondo School in Ott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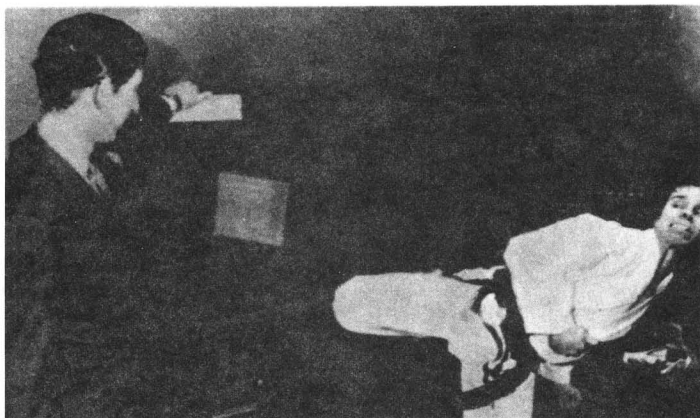


미국 공화당 의원대 민주당 의원간의 태권도 시합에서 입상한 의원들(주최자 : 이준구씨 : 중앙)
 The winners of Republicans vs Democrats Taekwon Do Games,



김영태 사범이 아이보리 코스트 정부로부터 체육 공로 훈장을 수상(좌로부터 보안장관 Mr 와세낭 궤네 육군중장, 청년 스포츠장관 Mr 로랑 포로고 김영태사범)

Instructor Yong Tae-kim awards on order of merit of Physical Education & Sports by Ivory Coast Re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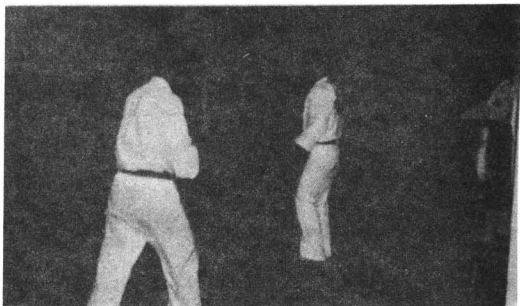
英國의 「찰스」왕태자가 2월 10일 「라이체스터」 YMCA를 방문중 나무판을 직접들고서 태권도 2단의 「론·서규」가 발로 나무판을 두조각 내는 무술요기를 보고 있다.

Taekwondo Demonstration Britain's Prince Charles holds a piece of wood at arm's length as Taekwondo second-dan black belt Ron Sergiew demonstrates the Korean martial art by breaking the wood in two with a kick. The prince was visiting the Leicester YMCA Feb, 10, 1981



미국체육회(AAU)의 양동자 태권도 위원장(중앙)이 국기원을 방문하여 강원식 부원장과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관전하고 있다.

Mr. Yang Dong Ja, President of the TKD Committee of A.A.U., visit Kuk-Ki-won, and observes National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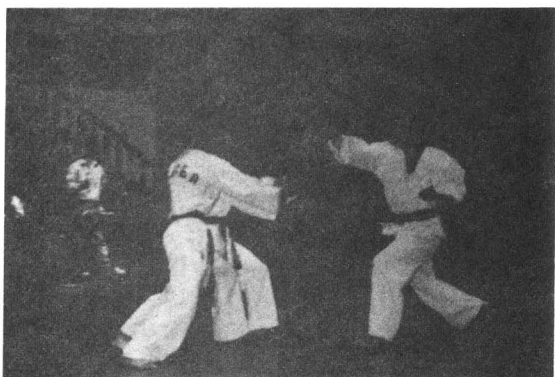


그리스의 올림픽 아카데미 내에 있는 태권도장
Taekwondo Gym. at Olympic Academy
in Greece



1981년도 경북 태권도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박정규 경북협회장(우)에게 명예단장과 감사패를 회장을 대신하여 수여하는 이기해 기획조정실장(좌)
Mr. Park Jung Gyu, President of the Kyungsangbuk-Do TKD Association, receive Honorary Dan Certificate

태권도 시범단 홍콩에서의 시범



쇠막대 손날격파
Iron Bar Breaking by Sonnal



편손골 격파
Breaking the Wood by Pyonson-Keut



여자부
Girl's and Woman's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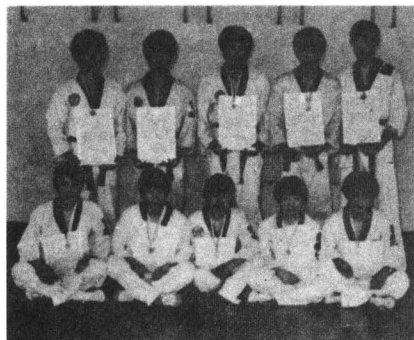


중등부
Middle School Boy's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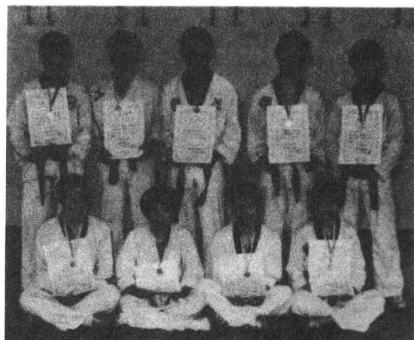
1981년도 전국종별 신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영예의 우승자들
Champions of the
National Newface
Championships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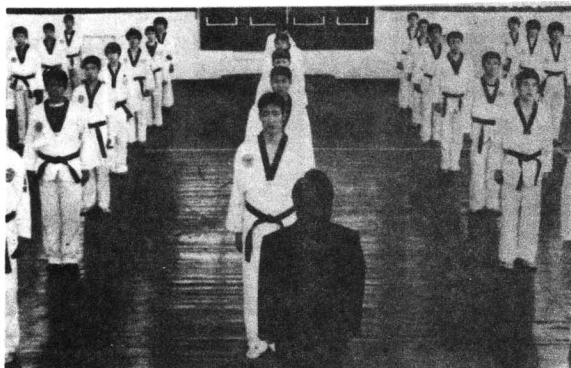
고등부
High School Student's division



대학부
University & College man's division



일반부
Common's division



개회식광경

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1981년도 한국
대표 선발대회
Korean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for
the 1st World
Games & 5th
World TKD
Championships



심판부 임원들

Members of Judge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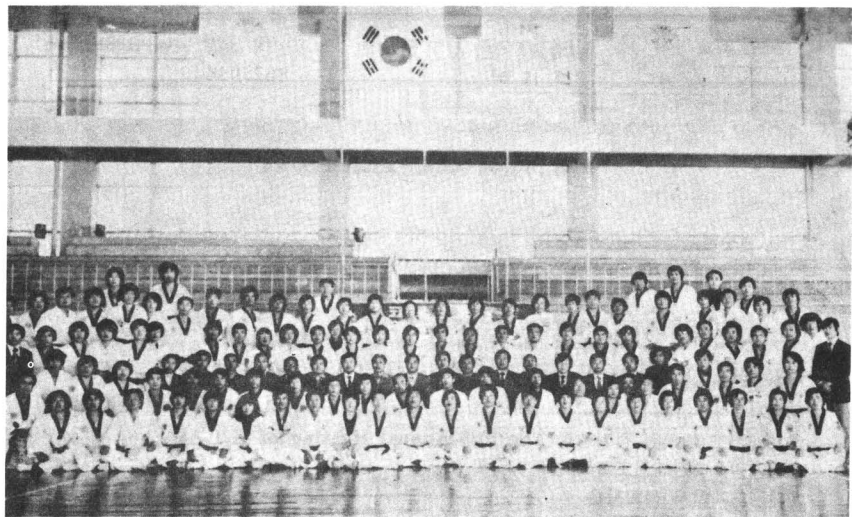


경기부 임원들

Staffs of the Competition Committee

태권도 지도자교육

Taekwon Do Instructor Refresher Training



제29기 지도자 교육

29th Refresher Training in Seoul



제30기 지도자 교육

30th Refresher Training in Daegu